군사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매매춘 관련

열린 세미나 자료집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Feminists' Coalition Against
Militarism and Prostitution

군사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매매춘 관련

열린 세미나 자료집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Feminists' Coalition Against

Militarism and Prostitution

열린 세미나를 제안합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Feminists' Coalition Against Militarism and Prostitution, 이하 CAMP)'에서는 매매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 열린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학 여성운동단위, 여성운동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매매춘'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AMP는 매춘여성 개개인의 구체적 현실 조건에서 출발한 문제 설정과, 여기에서 출발한 확장된 문제의식과 담론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견고한 하나의 관점에서 매매춘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입장들이 제안, 충돌, 소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매매춘 문제를 바라보는 정교한 틀이 갖추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실천 가능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준비하는 세미나가 다소 거칠고 서툴더라도, 적극적인 논쟁과 소통을 통한 '각자의 적극적 받아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세미나 주제 -

3월 :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
(장소 : 서울대학교, 일시 : 3월 18일 2시)

4월 : 무력갈등시 성폭력 (장소 : 연세대학교, 일시 : 4월 22일 2시)

5월 : 한국 매매춘 실태 (장소 : 서울대학교, 일시 : 미정)

6월 : 국제 여성매매 메카니즘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일시 : 미정)

7월 : 매매춘에 대한 다양한 관점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일시 : 미정)

3월 공개 세미나

주 제 :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

관 련 자 료

1. 여성인권 현황과 과제-폭력의 측면에서

- 98년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 여성과 인권 세미나 자료집 중
- 이현숙

2. '폭력 '으로 말하기

-편집실

3. 영역별 사례들

아내구타, 성폭력, 매매춘/포르노, 여영아 살해/강제낙태
무력분쟁시 성폭력

여성인권 현황과 과제
- 폭력의 측면에서 -

이현숙(여성의 전화연합 부회장,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1. 세계 여성 인권운동의 성장

우리는 지금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고 있다. 아무래도 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세계의 관심은 지난 50년동안 인류는 얼마나 인권을 향상시켰는가, 현재 우리의 인권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가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임 또한 이런 관심의 한 표현일 것이며 이글 또한 크게는 이런 맥락에서 준비되었다.

여성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이 고조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유엔 여성 10년(1976-1985) 선포를 통해서다.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의 출발'이라고 표현되는 세계여성의 해와 유엔여성 10년의 결합은 여성들의 관심분야-특히 양성평등, 발전과정에의 통합과 평화증진-를 전세계적 의제로 확정지었다. 유엔 여성10년은 그동안 몇가지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하나는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과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모니터) 같은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중요한 유엔기구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 기구들은 여성지위원회(CSW)와 위원회 사무국인 여성향상국(DAW,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과 함께 유엔에서 세계여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총회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한 것이다. 이협약은 1981년 9월부터 효력을 발생, 비준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유엔,1993, 3쪽)

여성10년이 마감되는 1985년 여성들은 다시 케냐의 나이로비에 모여 여성10년을 평가하고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채택, 2000년까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행동분야를 정립했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1990년 유엔 여성지위원회는 1985년이후 세계 대다수의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발견해야 했다.(유엔,4쪽)

이런 가운데 여성 NGO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의 생명권,자유권,안전권을 말하고 누구도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폭력과 고문, 성적학대, 기아,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 보다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광범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문제가 국제 인권의제에서 종종 제외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1991.6.The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이 주최한 성폭력회의). 또한 대부분의 국제인권문서가 언어나 본질적 측면에서, 또한 그것의 해석에서도 여성의 현실과 여성권리침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않음을 지적, 기존의 인권개념은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1993년 3월, 방콕 NGO 인권선언). 이런 비판과 함께 여성들은 비엔나인권협의회를 앞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침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비엔나 세계인권위원회에전에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16일 캠페인' 서명운동,1991-1992). 이를 토대로 여성들은 강한 협상능력을 발휘, 1993년 6월,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협의회에서 성적차원(gender dimensions)을 인권운동에 통합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비엔나 선언은 여성인권과 여아의 인권을 '보편적 인권의 통합적 부분으로, 양도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부분,'("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of the girl-child are an inalienable, integral and indivisible part of universal human rights",(북경선언, para. 18)으로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이 보편적 인권의 핵심부분임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 여성 인권의 내용도 차별과 폭력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성차별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적,지역적, 국제적 차원 포함-여성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과 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서 이를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 비롯된 것 포함-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명시해두었다. 곧이어 열린 1995년 9월,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를 선언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을 유엔 활동 전반에 주류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서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문제를 세계 인권의제의 중심과제로 만드는 성과를 얻게 된다. 이는 세계인권운동사의 큰 발전으로서 종종 인권운동의 여성화(Feminization of the human rights movement)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곤 한다. 여성인권문제가 국제인권사안의 중심주제로 자리잡게 되면서 90년대는 어느때다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게 되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찾는 것이 1990년대 여성이 수행해야 할 가장 힘든 전쟁이 될 것이다.(U.N.1993, 73쪽)

2.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성장
- 폭력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처음 가정폭력의 문제와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나선때 부터다. 197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통해, 그리고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들이 인간적 자각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당시 풍미했던 인간(여성)해방이론의 세례를 받은 젊은 여성들은 여성차별의 극심한 형태인 아내구타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고발하고 나섰다. 당시 여성의 전화 준비위원회의 조사에서 응답여성의 42%가 남편의 구타에 시달리며 산다는 보고는 사회전반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동안 '부부간의 사랑싸움'으로

간주되었던 '아내구타'의 문제는 한국사회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한다. 중대한 사회적 변화의 시작이었다.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투쟁이 가열되면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희생자 여성들이 늘어나고 당시 군부독재사회의 폭력적 분위기와 향락산업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수도 늘어갔다. 이에 따라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조직적 대응이 법적 투쟁, 세계성폭력추방운동주간선포, 법제정운동(성폭력특별법)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90년대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중심과제로 대두되고 마침내 여성의 힘으로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19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다. 1997년부터는 각 도시마다 24시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위기전화 1366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마침내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사회적 범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도덕적 수치'의 범주로 다뤄질 뿐 '사회적 범죄'의 범주로 간주되지 않았던 점에서 이번 법제정은 여성인권운동사의 비약적 발전이었다. 현재 전국에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20여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20여개 이상의 성폭력상담소가 활동중이다.

한편 1990년대부터 한국여성들이 발빠르게 전개한 정신대문제는 1993년 비엔나인권협의회이후 국제인권사안으로 대두된다. 여성들은 정신대문제를 '전쟁 중 성노예제 문제로' '전쟁중의 인권유린문제'로 제기하면서 유엔이 다뤄야 할 주요 국제적 인권사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반보벤 교수는 지난 6년동안 이룬 성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쿠마라스와미(유엔성폭력특별보고관)보고서와 맥두걸보고서의 마련, 희생자에 대한 배상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정신대 문제는 나치전범 문제와 함께 유엔이 과거의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는 인권사안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류가 아우스비츠 수용소를 기억하듯 정신대문제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귀뜸했다.(지난 '아시아의 여성인권'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가진 평가모임에서) 한국여성인권운동이 이뤄낸 획기적 성과물이다.

한국여성들은 80년대이후 인권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또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협의회와 1995년 북경여성대회 경험을 토대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여성들은 그동안의 인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모든 인권관련분야에 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시켜야 하는 또 한차례의 중대한 도전앞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은 또다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제거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3. 한국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와 현황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50년을 맞는 오늘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지구촌 여성들의 절절한 이야기다. 여성들의 이런 이야기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중 'D.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에 요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곳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 폭력행위의 범주와 형태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여성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를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유의 일시적 박탈 등을 포함한다. (The term"violence against women" means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results in, or is likely to result in,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harm or suffering to women, including threats of such acts, coercion 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whether occurring in public or private life.(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p. 47.)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a)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 구타. 가정내 여자아동에대한 성적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혼인시 강간, 여성생식기 절단 및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전통적 관습, 배우자외의 폭력, 착취에 관련된 폭력
(b) 일반적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 직장, 교육기관 및 기타기관에서의
강간, 성적학대, 성희롱과 위협, 그리고 여성인신매매와 강제 매춘.
(c) 국가에 의해 방조되거나 묵인되며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기타 폭력행위들
• 무력분쟁상황하에서의 여성의 인권침해 :살상,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화와 강제임신
• 임신관련 : 강제불임과 강제낙태, 피임제의 강압적, 강제적 사용, 여영아 살해, 성감별 태아살해
• 특수상황하의 여성집단 :소수민족집단 여성, 토착민 여성, 난민여성, 여성이주(노동)자,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사는 빈곤여성과 빈민여성, 감금상태의 여성, 여자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여성, 피난민 여성, 송환된 여성, 빈곤상황하의 여성, 무력분쟁 및 외국인 점령, 침략전쟁, 내란, 인질억류를 포함한 테러행위의 상황하에 있는 여성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위해 가족, 직장, 사회, 국가, 무력갈등하, 사이버 공간의 범주에 따라 한국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기로 한다.

1) 가족내 폭력

(1) 아내구타

한국여성의 전화가 83년 이후 대중여성을 위해 상담활동을 해온 이래 상담창구에 나타난 가정폭력의 유형은 대체로 아내구타, 아내강간, 근친강간 등이다. 그동안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만큼 가정폭력 추방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아내구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 1998년 1월,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조사가 실시되고 이를 토대로 연대 김재엽교수는 '한국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폭력의 발생율은 31.4%로 나타났다. 이것은 1300백만 부부

중 4백8만쌍의 부부가 적어도 년 1회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수치다. 이 조사연구 결과 우리나라 남편의 3명중 1명이 지난 한해동안 적어도 1회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한국가정의 아내 100명 중 8명이 지난 한해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결과를 얻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57쪽) 또 여성의 전화 자료에 의하면 아내구타의 30%는 결혼후 첫 10년안에 발생하고 결혼 첫 6-7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는 '쉼터'를 이용한 여성 143명 중 주 1-2회 이상 구타당하는 비율이 무려 42%에 달하며 매일 맞는 여성도 15.4%나 도었다. 여성의 전화 93년 통계(상담건수 7,000여건)에 의하면 93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3주이상 진단을 받은 여성이 23%나 되며 구타 남편이 칼이나 망치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또한 폭력가정에서 자란 구타남편의 비율은 45%이며 구타남편이 자녀까지 구타하는 경우는 52%로 나타났다. 남희순, 이형자, 이순심사건에서 보듯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광주여성의 전화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실직과 가족갈등에 관한 상담이 거의 3배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IMF로 인한 퇴직이 아내 탓이라며 아내를 구타하거나 돈을 벌어오라며 구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여아태아 살해

한국의 높은 인공유산율은 여아태아의 유산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마다 한국에서는 유산이 없으면 태어나게 될 여아의 숫자보다 30,000명의 여아가 덜 태어난다. 매년 330,000명의 여아가 태어나는데 이는 12명중 1명의 여아가 성 때문에 유산됨을 의미한다.(Cho Hyoung, p.123) 남아선호사상과 함께 태아성감별 기술의 도입으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여 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년간 470억원의 의료비가 낙태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남아선호는 더욱 높아져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해져 1970년에는 109.5이었으으나 1994년에는 115.3으로 증가하고 1995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13.4였다. 2010년의 출생성비는 남아가 여아 100명당 123.4로 높아져 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들 때 쯤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특별위원회, 69쪽)

(3) 친족에 의한 성폭력과 아내강간

오랫 친족 성폭력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대개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약 30%가 친족성폭력이다. 1995년 분석에 의하면 피해자의 83.2%가 학령기의 연령이며 이들의 95.1%가 강간피해자였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보통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사건보다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 피해어린이는 가족, 친인척 등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임신과 낙태,불임,가출, 자살기도, 살인 등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124쪽) 또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일 경우 돌아갈 집이 없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92년에 발생한 김보은.김진관사건은 친족 강간의 정형을 보여준다. 연인관계인 이들은 상습적으로 21년간이나 딸을 강간하고 아내를 구타해온 의붓아버지를 함께 살해해 근친강간의 위험의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일깨웠던 사건이다.

아내강간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는 성폭력 범죄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기혼자의 67.3%가 아내강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났다. 여성의 전화 면접상담자(1985-1991.7월)의 35%는 두들겨 맞은 뒤 비참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응답하고 이런 경우 죽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었다.(여성의 전화,1991,)

2) 지역사회 및 사회에서의 성폭력

(1) 학교, 직장, 거리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이웃,거리, 영화관, 직장, 교회, 학교, 시설, 데이트 중 등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988년 귀가길에 성폭행을 당하자 폭행범의 혀를 깨문 변월수씨 사건을 시작으로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강간당한 김부남씨가 21년이 지난 후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간, 추행, 성희롱 등의 성폭력은 남성이 있는 곳이면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3분마다 2명이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형사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강간 발생율은 세계 2위다. 1989년 법무부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강간신고율이 고작 2.2%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91,93쪽), 우리나라 성폭력의 가장 심각한 현실은 전체 성폭력 사건중 50%가 19세 이하의 소녀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30%가 1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은 4개월된 애기로부터 70세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낯선사람보다는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오빠, 아버지,또는 친인척이다.(앞책,95쪽)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1991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 중 15.4%가 강간,추행 등의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3.6%가 성적인 폭언을 경험했다고 한다. 성적인 폭언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피해여성에게 불쾌감을 주고있지만직장내에 너무나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앞책130쪽) 최근 서울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특히 IMF 이후 직장내에서 남자동료나 상사로부터 화풀이성 폭력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직장여성들의 상담이 늘고 있는 상태다.

학교에서의 성폭력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조사에 의하면 중고등 여학생의 경우 교사에 의한 가벼운 추행(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짐)이 19.0%, 심한 추행(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이 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친구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비율은 가벼운 추행이 30.7%, 심한 추행이 3.7%로 각각 보고 되고 있어(김혜선,12쪽) 학교 성폭력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여성의 전화가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접수한 이래 학교내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은 유치원(1997년,K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생 다수를 폭행)으로부터 서울대학의 우조교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회

교회내의 성폭력은 교회목사나 전도사가 여신도들에게, 중고등부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목사나 전도사들은 신도들에 대한 상담과 안수기도를 통해 추행과 강간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추행을 하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성서의 가부장적 성서구절을 동원(예: '창세기의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너는 라헬처럼 일생동안 결혼하지 말고 나를 남편으로 맞으라"....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것이다' 등)해 자신들의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문자,111쪽) 이들은 성직과 신적권위를 이용해 순진한 신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지만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처럼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카톨릭의 여성단체와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 교회내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있다.

(3) 취약집단(복지시설,매매춘)

사회적 약자 집단인 여성장애인, 외국인 여성노동자, 매춘여성, 정신병원의 여환자, 교도소내의 여성복역수, 군대내 여성 등은 더 쉽게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200만에 이르는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으로써, 빈곤계층으로써, 장애자로써 삼중의 고통에 시달린다. 이들은 신체적 장애아 장애자의 대한 편견 때문에 종종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이밖에도 이들은 강제로 자궁절제를 당하기도 하고 교육, 의료, 교용기회에의 접근이 제한되며 결혼의 기회도 박탈되기 일수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성교육이나 모성기회, 재생산에 관한 정보, 수술에 대한 결정과정, 그들에 대한 연구 과정 등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인종적, 성적, 계급적으로 낮은 지위 때문에 한국인 동료남성들과 사장, 감독 등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 매춘여성의 경우에는 그들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한다는 이유에서 곧잘 공격의 대상이 되며 강간을 당해도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군대와 교도소내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실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발생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서의 성폭행은 그것이 의지할 데 없는 어린 소녀들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1988년 여성의 전화가 영생애육원사건이 그생생한 사례다. 원장과 직원들이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

교 5-6학년, 여중 1-2학년들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의 전화의 고발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청소년(13세-19세)들의 성폭력피해도 심각하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97년 상반기 통계에의하면 이들의 성폭력 피해 상담은 23.8%에 이른다. 이들 역시 61.7%가 아는 사람 즉 친족, 데이트 상대, 선배, 동급생, 교사, 강사,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나눔터,95쪽)

최근 청소녀들은 물질만능주의의 흐름을 타고 곧잘 성인남성들의 퇴폐적 성행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혼외 성적 파트너로 어린여자, 소위 영계를 사는 퇴폐성향이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가출한 소녀들은 이들의 표적이 된다. 성인남성들의 퇴폐 경향성은 가난한 소녀들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10대들을 매춘으로 이끌어 내거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신을 납치, 매매하는 범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0대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원조교제나 티켓다방은 바로 그 정형들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가출 연령이 12-13세로 낮아지고 이렇게 가출한 소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고 남학생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의 일을 한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30%가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전화를 통한 여학생섹스알선업 '테레크라' 가 성업중이라 한다.(중앙일보 5.3.1998)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방, 직업소개소, 비디오방 등 어린 청소녀들을 매매춘으로 유인하는 퇴폐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정부의 심야영업 허용과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협은 어린여성들을 한층 매매춘으로 내몰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여아에 대한 폭력

여아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일반의 통념을 넘어설 만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1996년도 상담사례 분석에 의하면 약 33.7%가 어린이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연령은 만7세 이하 유아가 11.2%, 학령기 아동이 22.5%,를 차지한다. 이들 어린이 피해자도 성인 여성피해자와 동일한 유형의 성폭력을 당하는데 강간이 약 40%, 성추행이 약 60%에 이르며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79%로, 일반 피해자 약 6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어린 시기의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므로 피해가 지속될 수 있고 비밀유지의 위협으로 부모에게 말을 못하게 된다. 피해사실을 혼자 감당해야하는 어린 피해자는 오랫동안 가해자에 대한 불안, 공포,분노,좌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린다. 심한 경우 가족관계나 사회생활에 적응 곤란을 느끼며 결국, 가출을 하거나 매춘,알콜,약물,남용 등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사회문제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120-122쪽)

소녀들은 나이어림, 사회적 압력, 보호법률의 부족, 혹은 법률시행의 실패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강간, 성적학대, 성착취, 국제인신매매, 강제노동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 성폭력과 HIV/AIDS를 포함하는 성병은 아동의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숙한 성관계로 인한 결과에 소년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북경선언,125쪽) 미성년자 매매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매매춘은 의제강간으로 처벌키로 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1)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주로 대민접촉이 많은 경찰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 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다 검거되는 청년,학생,시민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경찰서에 붙들려가는 여성들의 수도 많아졌는데 이 여성들에게는 으레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이 가해졌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84년 청량리 경찰서에 있었던 여대생 3명(전두환대통의 매국적 방일반대 시위혐의)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1986년 에 있었던 부천경찰서의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이다. 군부독재는 민주화운동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국민적 비난과 저항을 받았다. 경찰의 시위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6년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의 연세대농성사건 진압과정에서처럼 농성사건이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재개발지역의 철거과정에서도 철거반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곤 했다. 또한 일선 파출소에서는 다방종업원이나 힘없는 일반 시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수시로 자행되었다. 경찰들에게 윤간당한 대구 강정순씨 사건이나 임산부를 강간하여 자살하게 만든 고흥 김봉환순경사건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2)제주 4.3항쟁(1948)과 광주민주항쟁(1980)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내적으로 갈등상황에 빠졌을때 국가의 조직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여성들은 그때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제주 4.3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이다. 4.3항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군정(1945-1948) 말에 일어났다. 미군정기말 제주도 무장대(좌파계열)가 남한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미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등에 대해 공격을 개시한 사건이 4.3항쟁이다.(1948년 4.3.) 그로부터 1954년 9월 한라산에 금족지역이 전면 금지될 때까지 6년 6개월동안 제주도 인구의 약 1/8이 경찰과 극우 서북청년단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이사건에서 여성의 피해도 엄청났다. 약 3만명의 양민이 사망한 가운데 여성들이 당한 피해는 고문과 성폭행, 토벌대와의 강제결혼, 및 이후 가족을 잃은 고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은 의례 성폭행과 연결되었고 회유책으로 토벌대, 순경 등과 결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표선면 토산리의 경우, 한밤중에 들이닥친 토벌대가 150여명의 여자들을 불러내간 뒤, 닷새 후 이들은 모두 총살되었다. 무차별적인 강간이 이기간 계속되었고 임산부, 갓난아이 엄마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사살을 감행했다. 가족을 인질로 강제결혼을 감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제결혼이나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와 산모는 으레 '폭도각시', '폭도새끼'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1980년 5월18일-27)은 1979년 말 박정희 군사정권의 붕괴 후 다시 군사정권을 확립하려는 신군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일어선 광주시민세력의 저항운동이었다. 신군부에 의해 군부대의 이동과 대규모 무력 진압작전이 수행되면서 공권력은 마치 적을 섬멸하듯 시민운동을 진압했고 이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사망, 부상, 구타에 더하여 여성들에게는 성폭행이 가해지고 피해여성들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진성,32-33쪽)

4) 무력갈등하의 폭력

한국여성들은 국가가 피식민지, 전쟁, 분단이라는 무력갈등 상황에 빠졌을때 타민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희생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 피해 또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미군에 의한 성폭력

한국에는 37000명의 미군이 10여개의 기지 및 시설과 함께 주둔해 있다. 미군의 주둔은 미군에 대한 성적, 또는 비성적 서비스를 위한 GI 타운 또는 기지촌를 만들어냈다. 기지촌에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주로 성적 사비스에 종사하면서 종종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온갖 형태의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지촌여성들이 겪는 직업적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 잔인하면서도 거의 처벌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간의 행정협정 때문이다.(M. Okazawa-Rey, p.72-73) 한국에서 미군은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막간한 힘의 실체다. 이런 환경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심리적 폭력, 강간, 구타, 살해등 잔혹한 범죄를 당한다. 1992년 10월 잔인하게 살해된 윤금이 사건, 1993년 김국해 성폭행사건,1994년 윤현아씨 성폭행사건, 미군남편에 의한 김분임씨와 두 자녀 살해사건, 1996년 6월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사건 등은 미군범죄의 잔혹성을 그대로 들어낸 사건들이었다. 이밖에도 기지촌 여성들은 피임기구와 잦은 임신중절로 인한 건강위험, 에이즈와 다른 성병의 감염, 광범하게 퍼진 약물남용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기지촌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Amerisian)은 GI타운에 작용하는 복합적 불평등 즉 성, 인종, 계급, 국가, 군사주의, 그리고 경제세계화 등의 요소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중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의 희생자들이다. 한미간의 불평등한 역사적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한 관계는 이들을 통해 투영된다. 제국주의적 권력의 대표들인 미군들은 그들이 한국여서과사이에 낳은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을 뿐만아니라 부대 밖의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그들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앞책,85쪽) 한국은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위해 1995년 11월-1996년 9월까지 7차에 걸친 개정협상을 가졌으나 1997년 5월 미국측이 일반통보를 함으로써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상태다. 따라서 미군범죄는 대개가

미해결이거나 불구속 송치 또는 미헌병대에 넘겨짐으로 끝났고 아주 적은 수만이 배상을 받거나 수감되었다.

(2)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군위안부)

일제의 식민통치기간동안 무려 20만에 이르는 한국여성들은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강제 동원되어 전장에서 하루에 수십명을 상대해야하는 인간이하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종전과 함께 일부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 여성들은 종조와 순결을 상실한 더럽혀진 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며 일생을 죄인처럼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다. 이들의 몸은 병들고 사회의 냉대 속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체 황폐한 삶을 꾸려가야 했다. 이들의 인권은 일제에 의해 또한 조국의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가부장제 사회에 의해 송두리째 침해당했다. 정신대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침해는 여성으로서, 약소국 국민으로서, 국가권력 앞에 무력한 시민으로서, 전쟁이라는 무력갈등하에서 빚어진 가장 심각한 인권피해사례였다. 1992년 한국여성들이 정신대 문제를 유엔에 처음 상정했을 때 유엔 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박사는 이 문제를 "일본군대와 국가가 행한 정신대 동원과 성의 착취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라고 규정했다.(정진성,1996,139쪽) 현재 한국에는 155명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존(1993년이후 31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해 있으며 이들은 일본정부가 유엔의 권고안대로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실시하고 군대 성노예 동원이 국제법의 위반이었음을 인정함으로서 그들의 인권이 회복될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5) 사이버공간의 온라인 성폭력과 포르노

올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인권, 사이버 인간권리를 찾자는 제안과 토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컴퓨터 통신 사용자 가운데 소수층을 이루는 어린이와 여성의 기본권보호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피시통신 나우누리의 인터넷 잡지(웹진) '퍼즐'이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1,368명 참여)에 따르면 남성의 68%, 여성의 85%가 직간접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남성의 6%와 여성의 56%가 실제 온라인 성폭력을 가한 경험과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컴퓨터통신망에서 '컴섹'(컴퓨통신 대화를 통해 섹스행위를 재현)을 강요하거나 '너 가슴 크냐' 는 등의 언어폭력으로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에 대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피해 사례가 되고 있다. 최근 한여대생이 지난 3월 초 국낸 피시통신 대화방에서 남성이용자로부터 심한 성적 모욕을 당했다. 이 여대생은 곧 학생자치기구인 여성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아렸고 여성위원회는 여성단체와 함께 이를 통신서비스 회사에 공식으로 문제제기 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통신이용권을 완전 박탈당했다.이에 따라 최근 18개 대학의 여학생모인과 여성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온라인 성폭력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한겨레 1998.5.11)

폭력적이고 여성비하적인 혹은 외설적인 미디어 작품들 역시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미치고 있다. 포르노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여성학자들이 '포르노는 성폭력의 교과서이고 강간은 실천'이라고 말할 정도로 포르노는 여성에게 폭력적이다. 포르노에는 남녀의 성권력관계가 잘 반영되어 있다. 포르노는 주이용자가 남성이다. 포르노에 남녀가 함께 등장할 때도 남성지배/여성종속의 구도로 나타난다. 포르노는 음란물이기 전에 여성에게 해를 주는 폭력물이다. 여성파괴적 포르노 즉 하드코어 포르노를 규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심영희,161) 최근 이런 포르노물이 각종 매체의 발달과 함께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음란물 외에도 비디오, 컴퓨터게임, 피시통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포르노물이 여성과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다.

5. 변혁을 위한 과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현실을 살펴보았다. 오늘 논의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변경하고 수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성격을 보다 명징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성관련 범죄와 이슈에서 성폭력, 성희롱, 포르노,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가해/여성피해의 특징을 이루고 그 성격은 남성지배/여성종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성관련 범죄에서 남여가 받는 영향이 다른 것은 남녀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고 권력에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

이다. 일찍이 Groth(1979)는 강간이 성충동에 의한 것이기 보다 분노의 표출이거나 군력추구에 의한 것이라 보고 그중에서도 권력형 강간이 가장 많다고 보고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희롱은 '미묘한 강간' 같은 것으로서 '남성이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심영희174쪽) 북경여성선언.행동강령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역사적으로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반영임을 분명히 하고(북경선언,para.118)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간에 평등한 권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진다. 심영희는 공적 권력이든 사적 권력이든 권력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론적인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는 평등 즉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평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이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장 단기적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보자.

1) 인권교육

여성의 폭력적 현실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지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깨달음과 이 권리의 실현사이의 적극적 관계를 기억해야한다. 유니세프의 Stuart는 인권교육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엔이 1994년-2003년까지를 유엔 인권교육 10년으로 선포한 것은 적극적 예방조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The United Nations,p.17) 인권교육에서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여성에게도 존경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폭력이나 포르노, 가정폭력이 성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의 문제이고 남성의 입장에서 규정되고(정조문제) 여성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비하하거나 함부로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심영희)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성격이해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은 특별히 사법,법률,의료,사회,교육,경찰,검찰,판사, 공무원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데 관여하게 될 모든 인자들,그리고 분쟁지역에 있는 경찰,군인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남성들이 힘의 남용을 막고 희생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일 ,성폭력의 성격을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평화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평화능력을 신장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를 훈련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훈련도 포함시켜야 한다.

무력분쟁상황하에서 여성의 인권침해는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시키는 등의 국제법이해교육등 법률문해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제반 예방장치들의 구축

교육과 함께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퇴치할 구체적 사회장치와 제도들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의 낮은 지위를 영속시키는 전통, 관습, 문화, 관행을 해체할 수 있는 법률, 정보,행정, 예산, 여성경찰의 확보, 국가인권기구설립(신혜수,14), 모든 분야에 성적 관점의 도입방안, 정보공급,미디어 통제, 폭력적 가족구조의 변혁 방안 등의 장치와 함께 취약집단의 보호책 등을 구축해야 한다.

3) 폭력관련법의 개정과 법률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이 1998년 1월부터 시행)을 다시 개정하는 일도 남아 있는 과제다.

성폭력의 정의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는 일, 성희롱 조항을 명시하는 일,친고죄의 완전폐지와 제3자의 고소,고발권 인정, 고소기간의 폐지,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불고지죄 도입,피해자 사생활보호방안의 확대, 피해자의료비절감조치, 아내강간과 데이트강간 명시 등이 포함되는 법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들이 이법들의 존재와 이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광범하게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TV공익광고를 통해 폭력관련법률의 존재와 위기전화 1366 사용안내를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공무원, 경찰, 검찰에 대한 교육을 필수화하는 일과 학교, 직장에서 성교육, 법률문해교육을 의무화하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5) 여성의 정치,경제적 능력의 신장과 평등한 참여 방안의 강구

공적영역에서나 사적영역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 정치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참여기회도 확보해야 한다. 노동분야와 권력구조에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분쟁해결에의 여성의 참여, 통일,외무,국방분야에의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6) 평화가 있는 대안공동체의 모색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원적으로 현대를 관류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끊임없이 탐욕, 무한 경쟁, 성냄, 갈등, 폭력, 자연파괴, 약자들의 빈곤 등을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질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이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공동체의 모색은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장기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 파라다임을 해체하는 작업, 인권과 민주적 가치, 정의, 모든 생명체의 어울림, 돌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생태학적 사회공동체를 모색하는 일, 나아가서 새로운 인간성(우월감과 열등감의 극복을 넘어선어떤 새로운 인간성?)을 형성해나가는 작업들과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창한 작업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작업은 이미 지구촌 여기 저기서 작은 싹을 보이기 시작했다.

맺는 말

오랫동안 여성들은 역사의 희생자, 피해자들로 살아왔다. 오늘 여성들의 인권현실 또한 매우 어둡과 잔인한 상태여서 여성들은 여전히 가장 큰 피해집단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피해자, 희생자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여성들의 모습과 힘이 있음을 발견된다. 오늘 정신대 할머니들은 더 이상 희생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들은 역사의 피해자 자리에서 나와 세상을 바꾸는 변혁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력해 보이기만 했던 여성들은 그들의 작은 힘을 모아 단체를 만들고, 여성의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하고, 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민주화의 지렛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고 힘을 행사해 왔다. 여성들은 이제 사회를 민주화시키고 사회 약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인권의 대변자, 평화의 옹호자로

발돋음하고 있다. 오늘 경제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는 여성들의 가치와 힘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의 타개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이들과 제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여성들의 곤경뿐 아니라 여성들의 힘을 함께 발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세상의 모든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엔여성/장성자옮김(1993), [2000년을 향한 도전],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1995), [제4차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 Shadow Repot.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

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전문상담 교육자료집]

————(1997), [나눔터]

한국여성의 전화(1991),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당인 초청 간담회 자료집]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여성의 전화

이문자(1995), '교회현장의 실태와 신앙문제' [성폭력과 기독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정진성((1998), '최근 아시아의 무력갈등과 여성폭력의 피해-한국의 경우' [아시아의 여성인권:무력갈등과 성폭력]

——(1996), '정신대피해와 인권회복운동' [사상], 96 겨울호.

심영희( ), '권력.성:몸의 권리와 성 관련법의 개선안' [ ]

신혜수(1998),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Cho Hyoung(1997), 'Control, Reproductive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n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3 No.1

M. Okazawa-Rey(1997), 'Amerasin Children in GI Tow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3 No.1

The United Nations: 'Working at the Grassroots?', [Women in Action] No.2, 1997

폭력으로 말하기/드러내기
-여성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편집실

앞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폭력'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상적 영역에서부터 사회적 영역 그리고 국가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개괄한 후 우리는 몇 가지 의문들에 부딪히게 된다.

과연, "왜" 이와 같은 형태의 폭력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폭력들이 유독 '여성의 몸'에 집중되는 즉 '폭력이 성별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와 같은 폭력들에 대해 그다지도 무심한가.....

1. 남성 섹슈얼리티의 폭력성??

성의 정치성 즉 섹슈얼리티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대두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적인 것의 정치성'이라는 유명한 구호를 내걸고 '여성억압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뿌리들'을 탐색하고 '전복'하고자 했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목했던 '남성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는 비록 많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억압의 경험들을 잘 설명해 주는 틀거리라 생각된다. 즉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모종의 '성적인 폭력'들을 경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험들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즉 '정도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연속적인 폭력성'의 개

념을 도출해 내게 된다.

즉, 남성들은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녀들의 '몸'을 통제하며 그것은 '성적 폭력'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며 이는 가벼운(?) 언어폭력에서부터 강간이나 구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던져지는 농담이나 속담과 같은 '문화' 속에 담겨 있는 '남성중심적인 관점'들은 얼핏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 말 그대로 '농담'인 듯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그와 같은 '상징'이나 '문화'들은 그것이 어떤 '물적인 기제들'(예를 들어 부부싸움의 상황이라든지 전쟁 등의 무력분쟁의 상황에서)을 확보하는 순간 그대로 '현실화' 된다. 이는 이후에 나오는 마리아 올루직의 '테러의 체현'이라는 글 속에서 잘 분석되고 있다.

아무튼, 앞서 말한 일련의 의문들 가운데 전자의 것, 즉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는가, 혹은 왜 '폭력은 성별성을 띠고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급진주의자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남성 섹슈얼리티의 폭력성'이라는 요인으로 귀결될 듯하다. 물론 이같은 결론이 남성의 생물학적인 공격성이나 폭력성으로까지 치닫게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급진주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이견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며, 급진주의 외의 다른 다양한 페미니즘 시각들에서는 또 다른 시각들은 보여주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생물학적인/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며, 따라서 폭력이 성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학습된 남성문화의 소산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즉, 남자다운 남자(Macho)로 길러진 남성들은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그 집단정체성의 핵심은 '타자(여성이나 힘이 약한 남성)에 대한 (성적인/신체적인) 지배력'으로 집약될 수 있다. 흔히들 남성집단에서 성적인 능력이 그 개인의 능력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신체적인 우위가 곧 사회적인 위계질서와 연결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며 어쩌면 '보편적'으로 혹은 '간문화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남성문화'가 일상에서부터 사회적 영역 및 국가적 영역에 이

르기까지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포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어두운 길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또 어느 평범한 집에서는 아내구타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해마다 수많은 여아들이 성감별로 낙태되고 있으며, 포르노나 매매춘과 같은 성산업은 날로 번창하기만 한다. 그리고 또한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쟁에서는 항상 여성들이 집단적인 성폭력의 희생자들이 되곤 한다.

과연.... 왜 그런 것인가....
그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이미, 너무도 많은 말들을 뱉어버린 것을 조금은 후회하며, 이제 정말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두 번째의 의문에 대한 나름의 결론으로 가고자 한다.

2. 왜, '폭력'은 '폭력'으로 말해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성폭력을 '낭만적인 남녀관계'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목소리들을 만나게 된다.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단지 그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여성에게 그다지 해롭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들....
혹은,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을 충동질하는 모종의 행위를 여성이 했을 것이라는 의심에 찬 눈초리도 있다. 밤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 다녔다거나, 짧은 옷을 입고 다녔다거나, 혹은 죽지 않을만큼의 강경한 거부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
과연, '성폭력'은 '폭력'이 아닌 하나의 '낭만적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일까, 혹은 서로가 은연중에 합의한 하나의 '관계'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폭력'이 아닌 무언가로 미화해 버리는 기제들은 곳곳에

숨어 있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 낭만화/성애화 해 버리는 것, 의사소통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남성집단의 명예와 수치심'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도 있다.
이제 이들에 대해 조금씩만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사 영역의 분리

첫째 부분은 '공/사 영역의 분리'라는 근대적인 사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잘 알다시피 공/사 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일어난 것은 소위 말하는 '근대'가 시작되면서부터이며 이는 노동시장과 가정이 분리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성별분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작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시장으로 편입된 남성들과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생활공간이던 '가정'이라 이름 붙여진 영역에 남겨진 여성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근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그 '임노동자'마저 되지 못한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공/사 영역의 분리는 사적영역으로 치부되는 '가정'의 문제를 비가시화, 비정치화, 몰역사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가 흔히 오래된 서구 영화나 고전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구의 이상적인 가정이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가장과 그 가장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한 명의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3,4명 정도의 아이들(물론 여자아이들보다는 사내아이들이 더 많은 구성이 전형적이다.)로 이루어진 '안락하고 행복한', 'sweet home'의 이미지다.
전형적인 이성애적 일부일처제 모델에 입각한 가정인 셈이다.

그러나, '가정'은 내부의 모순없이 하나의 완벽한 '완결된 조직체'이 아닐뿐더러,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가정' 혹은 '가족'이

라는 하나의 이름 속에는 사실상 서로 이질적인 이해와 요구들을 갖고 충돌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이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임금을 벌어 오는) 남성에 비하여 적은 권력을 지니게 되고, 이와 같이 경제력에 따라 형성되는 모종의 '권력관계'는 항상 균형적인/기능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같은 '균열들'을 봉합하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몫은 항상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려져 왔었다는 사실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사회는 '하나의 완결되고 안정된 가족'에 대한 신화와 집착이 더욱 강해, 그같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가족은 사회적인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된다.

아무튼, '가족'을 이상시하는 '가족주의적' 성격은 공/사 영역의 분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노동시장과 가정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그으며 둘 사이의 이분법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한 근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사실이다.
이제, 자본주의적인 '냉엄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노동시장과 '배려와 풍요로움이 존재하는 공동체'인 가정 사이에는 이중적인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이중적'인 위계질서라 함은, 분명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가정/가족이 갖는 의미를 극대화하고 찬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 이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여성의 노동인 가사노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보수의 보살핌 노동으로 전락하고 그에 대한 가치는 일상적으로는 '없는 것'(가사노동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나, 대가제공은 필요없다는 생각)으로 치부된다. 물론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역설하는 광고들이 매체에서 난무하고 결국 기존의 직장여성들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제로 충실하게 작동하지만 말이다. 또한, 여성은 항상 '헌신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봉합하고 최대한 '외부로 표출되어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담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적 일부일처제적 가족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엄격한 공/사의 분리와 더불어 진행된 가정에 대한 신화 즉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여성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제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공/사 영역의 분리는 결과적으로 아내구타나 아동학대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가족 내부의 '사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나, 아내구타의 경우 사회적인 담론화를 이루어내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었음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는 가벼운 '부부싸움' 정도로 묘사되고 그래서 '남들이 간섭할 수 없는 관계'로 치부된다. 관계법이 개정되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인식은 가족 내부의 문제를 그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외부에서 그 울타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한다.

아내구타, 성폭력, 매매춘, 포르노... 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 즉 '공적 영역에서의 담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생각 외로 가까운 시기다. 한국 사회에서는 80년대부터 매춘관광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90년대 이후 여성운동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아내구타와 성폭력에 대한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법제정 투쟁이 진행되었었다. 그에 비하여 매매춘이나 포르노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도덕주의적인 개탄의 목소리들은 높으나, 그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분석틀'은 아직 정교화되지 못했거나, 사회에서 소통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통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그것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화(無化)되

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적인 문제'라 함은 어떤 개인과 다른 개인 사이의 관계 문제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뜻이며, 이때의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 볼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은 '폭력'으로 말해지지 않고 하나의 '있을 만한 관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서 우리는 '성폭력'을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남성의 성적 괴롭힘을 여성에 대한 '호감도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그같은 행위를 하나의 '의사소통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즐겁게 웃어 넘기기조차 한다.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폭력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행동을 했다고 변명하며, 이같은 언설은 다른 이들에게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낭만적인 이성애적 연애 각본'이 통용되고 있는 근대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낭만적인' 일로 치부되고 그래서, 그 사이의 권력관계와 억압의 현실들은 '성애화'되어 버린다.

요약하자면 '근대적 발명품' 중의 하나인 '공/사 영역의 엄격한 분리'는 여성을 사적 영역에 고립시킴으로 여성의 영역을 가정으로 한정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가정'이라는 영역 자체를 사회와는 분리된 '고립되고 완결된'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로 설정해 두고 그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인 간섭이나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혹은 그와 유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관계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억압들은 '폭력'으로 말해지기 보다는 한명의 남성과 한명의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관계'의 일부로 환원되어 '사적영역 존중(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논리와 결부되어 타자가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고 만다.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모종의 '낭만적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 남성이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되고 있다. 성폭력은 분명 하나의 '폭력'임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드러나고 이를 담론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기보다는 일상의 즐거운 '놀이' 정도로 가

법게 치부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술자리에서 난무하는 수많은 남성 중심적인 '놀이 문화들' 즉 음란가요, 추근거림...등의 행위들은 그들 나름의 '문화'와 '관습'으로 자리잡아 이미 그 '정당성'을 확보해 버린지 오래다.

공/사 영역을 해체하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사적 영역에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이 그 사적인 영역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무수한 폭력들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매맞는 아내들의 문제를 한 명의 병리적인 남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남성들의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형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킬 때 여성들의 경험은 드러날 수 있다.

2> 권위주의 문화 / 군사주의 문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낭만적인 남녀관계'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는 기제들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북어와 마누라는...'이라는 속담 속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들은 단지 무력한 '언어'나 즐거운 '농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상징과 언어들은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물적기제가 갖추어지면 현실화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언어나 상징, 문화 등은 결코 허구가 아니며 그 자체가 독자적인 힘을 갖는 하나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권위주의 문화는 한국사회에서는 특히나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위 '고도압축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친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된다. 한 국가의 집단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형성은 그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간의 군사독재와 강제적인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한국인들의 경험에는 모종의 군사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활습관과 사고방식들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인 약자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강자들의 태도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

남학생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신체적인 우위에 따라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남성성'을 획득한다. 이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며 앞서 말한 성폭력이라든지, 아내구타, 매매춘, 포르노 등의 사례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 혼전강간으로 결혼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남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남성집단의 상징적 명예저장소로서의 여성의 몸

앞서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무지'의 결과, 즉 '폭력'을 '폭력'이 아닌 '일종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낭만화하고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식적인 담론화와 피해자의 시각에서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이 어렵기는 했지만, 일단 시작된 후로는 법제정이나 사회적인 관심 환기 등에서 크게 '왜곡'되는 상황은 겪지 않았던 듯 하다.

'왜곡'이 일어난다 함은, 동일한 경험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졌지만, 그 '폭력'을 해석하는 틀이 다르다는 뜻이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을 피해 여성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그 경험들에 방점을 찍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여성들의 인권과는 별개로 그 여성들이 소속된 집단 즉 남성집단의 명예에 대한 손상으로 환원시키는 시각이 있다. 전쟁강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무력분쟁시에 일어나는 집단적인 성폭력들은 항상 적대집단 남성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전쟁 시기에 여성의 몸은 남성집단들 사이의 상징적 싸움터로 변형된다. 그리하여, 전쟁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부녀자 강간'과 같은 것들이 정규 작전 명령에 포함되기까지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가부장적 공동체에서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는 그 집단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되며, 또한 그 재산을 소유한 남성의 명예와 직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대집단 남성들의 아내나 딸들

을 강간하고 죽이는 것은 그들의 명예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동시에 그 가해남성의 호전성과 정복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기제가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군위안부 문제나 기지촌여성들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담론의 틀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처녀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당하고 말았다'는 성폭력의 신화가 존재하듯이 군위안부 문제 역시 '순진한 처녀가 강제로 납치당해, 온갖 성적 학대들을 당했다'는 정형화된 피해자 상이 존재한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정형화된 틀에 부합하는 경험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 이야기되여야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순결한 피해자상'은 조금 더 스토리를 전개해 본다면 '그리하여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몸을 던졌다...'는 식의 비극적인 결말을 전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못했으며 이는 스스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서 발길을 끊은 경우도 있고, 찾아갔으나 가족과 마을사람들이 받아 들여주지 않았던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청나라에서 돌아온 '환향녀'들이 모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타국 남성들의 지배권 아래 있었던 여성들은 '수치의 상징'이 된다.

이는 어쩌면, 남성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군위안부 문제나 기지촌 여성들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학들은 필연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경향'들을 발동시키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남성 집단들 사이의 주도권 싸움에서 여성의 몸이 하나의 기표로 떠다니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여성의 몸을 지배하는 남성집단이 상대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그 집단의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몸은 재생산 기능과 관련되어 '땅'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전쟁 시기에 여성의 몸을 정복하는 것은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영토를 정복하는 일종의 '상징적 의례'로 통용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논리들은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 내기를 막고 있다.

3. 목소리내기.

이제,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남성중심적인 담론들과 현실 속에 갇혀 이야기 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혹은 있으나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치부된 '여성에 대한 폭력'들은 이제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갖지 못했다. 소통할 매체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 되며, 그것은 곧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이다. 여성 한 명 한 명이 일상에서부터 겪는 미미한 억압들에서부터 시작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재구성해 내어야 한다.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지점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은 갖는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들어줄 때'에만 가능하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는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사례들

1. 아내구타 (한울타리 이김보명)

아내 구타의 실상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학력과 무관하다.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가 6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구타는 결혼 초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이루어지며 강도가 높아진다. 구타핑계는 남편에게 말대꾸한다, 또는 대꾸하지 않는다, 남편을 무시한다, 살림을 잘 하지 못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구타당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실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래의 사례들을 가지고 구타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아래의 내용은 내담자의 인권을 위하여 성명, 신분, 직업을 변경하였음).

사례 1) 지속적인 구타와 장성한 아들과의 관계

▶내담자 : 여(55세), 남편(무직), 자녀 3명, 결혼생활 30년 내담자는 결혼 초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궁핍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며, 그 때부터 시집올 때 해온 것이 무엇이냐며 구타하기 시작해서 장날이면 장에서 술 마시고 와서 술이 깰 때까지 쫓아다니며 구타했다. 그래도 아들을 바로 출산했고, 이혼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했으나 나중에는 항상 술을 마시고 주벽이 강화되었다. 하루는 밭에 뿌리기 위한 제초제를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벌려서 입에 부어넣기도 했다(내담자 기절, 동네사람이 병원으로 싣고 가서 살아남), 또 도박이 심해져서 이를 저지하자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기도 했다. 아이들도 구타했는데(이유는 아이들이 아빠 오시기 전에 잠잔다고 구타, 무서워서 말못하면 대답 안한다고 구타 등), 나중에는 큰 아이는 아빠만 보면 몸이 경직되어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남편이 빚을 많이 져서 빚갚기

위해서 광주 식당에서 근무 시작하고 남편은 시골에서 시어머니와 기거하며 매일 술 마셨다. 그런데 내담자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께 주벽을 부리기 시작하여 시어머니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시동생에게 피신해서 살고 계신다. 장성한 큰 아이는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싸움, 방황,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다른 형제는 엄마와 같이 사는 기간이 길어서인지 성실하고 착하게 성장했다. 그런데 셋째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행패 부리고 내담자 구타했다. 이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거세게 반항, 달려들었고 내담자는 아들의 눈에서 살의를 느꼈다 그 후, 내담자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집을 나갔고, 남편은 날마다 술마시고 내담자 직장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직장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나중에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119가 출동해서 파출소에서 연락 오기도 했다. 내담자는 지금도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주벽만 부리지 않는다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남편은 술은 안 마실 수 없다고 한다. 내담자 심정은 아픈 사람 팽개치고 집 나와 있는 것 죄책감 갖고 있고 극도의 불안증세와 언어장애, 두통으로 정신과 치료(동생 부담)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례 2) 외도와 의처증이 겹친 경우의 예

▶내담자 : 여(42세), 남편(47세, 운전기사)남편은 결혼 전부터 여자관계가 복잡했고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가 항상 남편의 주위에 있었으며 상대 바뀌가며 외도를 지속하며 계속해서 내담자를 의심하며 구타했다. 누구를 만나고 이제 오느냐며 구타하고, 내담자가 남편의 외도문제 삼을 때도 구타했다. 유부녀와 관계맺고 상대 남편에게 들키자 내담자가 사정해서 무사히 일을 처리해서 한시름 왔을 때 남편은 또 다시 그 유부녀를 만나기 시작했고, 내담자가 애원하며 만나지 말 것을 호소 하니까, '너도 그 남편 한 번 만나봐라, 세상사는 재미가 난다'며 약을 올렸다.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네 대신 내가 만나보겠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며 전화했다. 만나서 노래방 가고, 내담자 불러내서 아무 이유 모르고 나갔다가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붙들림. 그 후에는 술

만 마시면 어떤 관계였느냐며 구타하고, 온 들판을 질질 끌고 다니며 발로 차고, 때리고, 웅덩이에 처박아 놓으며 구타했다. 견디지 못해서 쉼터에 피신을 요구했다. 내담자는 이혼은 원하지 않으며 자식들 때문에 쉼터에서 조금 쉬었다가 돌아가겠다고 했다(상담소를 방문할 때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어 있었으며, 이야기 도중 아이들 생각에 계속 울고 있었다. 날씨가 흐리면 전신이 아파서 누워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례 3) 이혼, 그후의 지속적인 구타와 협박

▶내담자 여(40세, 학원강사), 남편(45세, 사업), 자녀 2명결혼 후 남편은 이사업 저사업 손대는 것마다 실패했고, 실패 할 때마다, 내담자를 탓하며 구타했고 모든 빚을 내담자에게 떠안겼다. 그리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며 식구들을 괴롭혔다. 이혼을 요구 하니까 남편은 설마 이혼하랴 생각했던지 이혼에 응했고. 막상 이혼이 성립되자 그 뒷날 이혼 무효로 하자며 집을 나가지 않고 행패 부리기 시작했다, 가재도구를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 '너의 친정식구들 불질러 죽여 버리겠다'등 온갖 협박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현재도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례 4) 이혼 후회하는 아내의 예

▶내담자 : 여(40세, 주부), 남편(47세, 사업), 자녀 2명

결혼 후 남편은 조그만 갈등만 생겨도 가출을 해서 7-10일 정도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고는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밖에서 생활하고 한달에 일주일 정도만 집에 기거하게 되었고 최근에도 20여일 만에 집에 들어왔다. 남편이 내담자의 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내담자는 남편이 무서워서 피했으나 그 후에 또 집으로 망치를 들고 찾아와서 내담자는 무서워서 피하려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잡히게 되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망치를 휘둘렀다(아이들 멍이 듦). 내담자가 등을 망치로 세게 구타당하여 앞으로 거꾸러지니까 다리를 치켜들어서 내담자의 다리성문을 망치로 구타했다. 진단서가 11개월이 나오고 병원에 입원중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청구서 받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서

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남편은 태도가 돌변해서 매우 온순하고 착하게 행동하며 내담자를 회유하며 이혼도장만 찍어주면 이혼신고를 하지않고 재미있게 살자고 해서 합의이혼에 응했으나 남편은 그 이튿날 호적을 정리해버렸다. 지금도 내담자는 이혼철회하고 싶어서 이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다.

사례 5) 구타로 인한 남편 살해사건
▶내담자 : 여(52세), 남편(55세, 노동), 자녀 2명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구타가 심했다. 매일 술을 마시고 구타하였고 또한 몇 차례의 가출과 귀가 되풀이하였다. 내담자는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고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부딪혔으며 남편이 휘두른 몽둥이에 머리를 많이 다쳤다. 그로 인해서 정신이 맑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며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이기지 못했다(귀신 들렸다고 굿을 하기도 함). 사건 당일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구타하기 시작하며 폭언이 이어졌고 내담자는 견디기가 힘들어지자 옆에 있던 재떨이를 던져 멍해있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했다. 현재 수감되어 있으며, 간수의 말에 의하면 수감생활 중에도 날씨가 흐리면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례 6) 구타로 인한 아내 살해사건
-내담자 : 여(60대), 남편(70대)
내담자는 초혼이며 남편은 재혼이다. 내담자는 전실자식을 키우며 내담자 자식을 더 낳아서 키웠다. 남편은 평생토록 구타와 외도 일삼았고 그뿐만 아니라 월급을 한 번도 내담자에게 가져다주지 않았다. 내담자는 품빵 장사, 포장마차, 막일 등 하면서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그러나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담자가 돈이 없어 못 주니까 구타를 일삼았다. 그리고 결혼한 아들을 회유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받아서 돈을 써버렸다. 아파트 대부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을 칼로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구타를 당하는 아내들은 우울증, 무기력증, 심한 공포, 불안에 시달리며, 언젠가는 남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화불량, 두통, 고립감을 호소한다. 그리고, 구타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감을 상실해서 남편에게 더욱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여아 낙태 / 강제 낙태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 최경호)

◈실태
주부 이 모씨(34.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간신히 득남하는데 성공했다. 심각한 갈등 끝에 한 차례의 여아 임신 중절 수술을 거쳐 다시 임신한 뒤 두 차례의 성별 검사를 통해 태아가 남성이란 사실을 확인한 후 얻은 결실이었다. 이미 딸만 2명을 낳았던 이씨는 '대를 이을 남자를 얻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와 장남인 남편의 집요한 설득에 어쩔 수없이 성별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다른 주부 김 모씨(32.서울 강남구)는 별다른 고민 없이 태아 성별 검사를 받고 아들을 낳은 경우. 남편과 두 자녀만 두기로 약속했는데 첫 번째가 딸이어서 두 번째 임신 때는 미리 성별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아들로 판정돼 여아 임신 중절은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 김씨는 "친구 몇 명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성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를 소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검사는 보편화돼 있어 별로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딸만 4명을 둔 송 모씨(41.서울 송파구)는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 등을 찾아다니며 체질 개선제를 복용. 5번째로 임신했으나 다시 여아로 판정돼 임신 5개월째 중절 수술을 받았다가 수개월 동안 거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성비 불균형, 실태와 문제점 中

주부 이 모씨(35.경기 고양시)는 올해 초 아들을 낳았다. 한 딸의 어머니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씨는 지난 3년간 서울 강남 ㅅ산부인과에 다녔다. 병원장은 아들을 낳을 확률은 90%라면서 먼저 위험수당 8백 만원을 줄 것을 요

구했다. 시술방법은 간단했다. 배란기 측정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간에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하루는 오늘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가 좋은 시간이라는 병원장의 말에 남편 유 모씨(37.회사원)를 불러내 청소도 끝나지 않은 여관방에서 부부관계를 가졌다. 그러고도 두 번이나 여아를 임신했고 그때마다 낙태 수술을 받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아들을 낳기까지 병원비로 2천여 만원이 들었다. 아들에게는 이천만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내 신앙조차도 남아선호라는 거대한 관습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다."고 털어놓았다...

-경향신문 99년 4월 13일자 中

우리 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전체 여자 태아의 9%에 해당하는 3만 명이 모태 속에서 사망한다고 한다. 자연적인 성비는 여대 남의 비율이 100:105지만, 범띠 해였던 지난 98년 대구 지역의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7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97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셋째 자녀의 출생 성비는 134, 넷째는 155.9였다. 추측컨대 둘째나 셋째 아이까지 딸을 낳은 여성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들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남아 선호 관습이 자아낸 성비 불균형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인구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싫든 좋든 남녀평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여남의 비율이 1:2, 심지어는 1:3에 이를 만큼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이에 대한 시각, 그리고 대책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 혹은 가부장적 가족 유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낙태된 여아의 인권이나 여성의 건강 때문에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남성들이 장가를 못 가고, 나아가 신부를 수입해오게 되면 '민족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은 현재 어린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는 2010~2020년에 결혼 연령 파괴, 외국 여성과의 결혼 증대, 독신 남성 증가, 성범죄 및 자살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장 인터뷰 中

위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철저하게 살아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곳에도 남아선호 관습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상황,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여성으로 차별 받는 여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다.

'여아 낙태'는 가부장제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신성시되는 '모성'이란 개념에도 전면적으로 모순되는 현상이다. 결국 '모성의 신성함'도 그것이 '아들의 어머니'일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성비 불균형의 문제, 즉 '여아 낙태' 문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성으로서 차별 받는 여아의 인권 문제로,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하의 남아 선호 관습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3. 무력상황시 성폭력 (인문대 강지영)

(정신대 사례: 정신대 폭력 증언 중에서):

· 탈출을 시도하거나 반항하는 여자가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긴 후 거꾸로 매달고 물을 먹이고 등에 채찍질을 가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군도로 여자들의 목을 베거나 생식기에 대고 총을 난사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 ... 반항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때리거나 입속에 넝마조각을 틀어넣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나의 음부에 성냥개비를 꽂아 넣었고, 음부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조선소녀가 왜 우리가 매일 그토록 많은 남자들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항했다. 그녀의 반항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당시 일본군 중대장인 야마모토는 그녀를 칼로 두들겨 패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군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손과 다리를 묶어서 못이 박힌 판 위에서 그녀를 굴렸다. 못들이 그녀의 피와 살점으로 뒤덮였고, 마

침내 그녀는 목이 잘렸다.

· 한 조선 소녀가 너무 자주 강간을 당해서 성병에 걸렸다. 그 결과 50여명의 일본군들이 성병에 감염되었다. 병의 전염을 막고 그 소녀를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녀의 음부에 찔러넣었다.

· 아마도 그 주둔군 막사에 있던 소녀들 중 반 이상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두 번 도망칠 시도를 했다. 두 번 모두 실패했고, 그 때마다 더욱 심하게 고문을 당했다. 그때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직까지 그 흉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옷을 벗기고 입안, 가슴, 배 등에 문신을 새겼다. 나는 기절했다.

(미군 범죄 사례 중에서)

· 빨래터에서 미군에게 강간당한 후 총살당한 여성(57년 경기도 파주), 딸과 어머니가 한 자리에서 강간당한 사건(69년 충남 서천), 미군이 조종하는 군견에 온 몸을 물어뜯기고 폭행까지 당한 심씨(62년 경기도 평택), 미공군 폭격기가 잘못 투하한 폭탄에 맞아 즉사한 만삭의 여인(69년 경기도 화성), 팀스피리트 훈련 나온 미군들에게 임신한 채로 윤간당한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여성(86년 충북 제천), 미군에게 목이 잘려 숨진 여성(96년 경기도 동두천), 살해당한 후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여성(98년 경기도 의정부)

(전쟁강간 사례)

·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의 성폭력은 개인 단위의 능욕보다는 집단난행(윤간)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 동료군인들 앞에서 소녀를 끌어내어 강간하거나, 질 속에 자동윤활유 주입기를 박거나, 음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 등 여러 가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군대와 성폭력의 또 다른 양상은 군대 창녀의 증가로 나타났다.

· 구 유고슬로비아에서는 2만명 혹은 그 이상의 여성들이 전쟁의 처음 몇 달동안 집당강간을 당했다. 주된 가해자인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민간인에 대해 테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교도 여성들을 인종청소(genocide)라는 목적으로 강간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른바 인종청소는 성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남성은 모두 살해되었지만 여성은 집단으로 강간당했다.

→ 인종청소가 성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재생산 능력'으로만 전제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여성의 정체성은 '어떤 남성의 씨'를 가졌는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강간행위는 여성을 적을 재생산하는 몸으로 재현하여 상상적으로 자행된 적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테러이다.

· 보스니아의 '강간캠프'에서는 여성에게 불임수술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죄수 신분으로 낙태가 불가능할 때까지 임신 상태로 붙잡아 두었다. 특히 회교도 신자인 여성들을 강간할 때는 회교도에서 행해졌던 음모면도, 할례 등을 언급하면서(나이가 많은 회교도 여성들은 음모를 면도하고 할례를 한 경우가 많았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젊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음모를 면도하거나 칼로 몸을 가로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세르비아 병사가 회교도 피해자에게 할례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할례했다'는 단어 대신 '(껍질을)벗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흔히 과일의 껍질을 벗기는 데 쓰는 단어였다. 이 말은 회교도들의 성기가 불완전하고 손상되고 거세된 반면에 세르비아 병사의 성기는 완전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문의 '진정한' 대상이 드러난다.)

· 제주도의 4.3 사태 당시 토벌대에 의한 여성의 수난은 집단 강간과 반인륜적인 성폭력의 양태로 나타났다. 임신부와 출산하고 있던 부녀자를 빨갱이의 종자를 없애 버려야한다면서 총살하고, 대중 앞에서 연행자들 가운데 남녀를 지목하여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다 총살했다.

· 4.3사태 당시 토벌대의 잔혹한 고문 가운데 남성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 중 하나가 여성 피고문자를 나체의 상태에서 고문하는 성고문이다. 연행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쇠좆매로 때리거나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져대는 고문이 있는데, 이런 고문에 대한 증언에서 남자가 나체로 고문당했다는 증언은 없는 반면, 여자의 경우 나체로 고문당했다고 한다.
→ 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옷을 벗기고 고문하는가?

· ... 그들이 성관계를 맺으려는 순간 서청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아내와 남편 친구는 벌거벗긴 채 끌려나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성교를 해야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채찍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교를 했지요. 그후 서청은 그 여성의 질에 수류탄을 집어 넣고 안전핀 고리에 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뛰어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후 그녀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죠.
→ 왜 일반적인 살해방법을 쓰지 않고 굳이 여성의 몸을 폭파했는가?

· 보릿짚을 깔아놓은 방에서 출산 진통을 시작하던 동서에게 이른바 하귀특공대가 들이닥쳤다.(특공대란 4.3이후 경찰을 보조하기 위해 마을별로 구성된 청년조직을 뜻한다.) 특공대 소속 두명은 임산자 가족은 종자를 말려야 한다면서 마을 뒤쪽으로 동서를 끌고 갔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동서는 이미 열세군데를 철창에 찔려 숨을 거둔 뒤였다. 하문에는 나오다 만 아기가 걸려있었다.

전 역사를 통해 전쟁시 여성에 대한 강간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전쟁에는 강간이 뒤따르는 것'이라는 견해나 전쟁 시 강간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는 견해는 더욱더 전쟁강간을 합리화시킨다. 오랫동안 전쟁강간은 여성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된 남성 사회에 사는 병사들의 '동물적 욕정'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강간이 단순히 '주체할 수 없는 성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밝혀진 후, '전쟁 강간'도 '성욕'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전시 강간은 남성의 지배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약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연대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의식'에 가깝다. 사례들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시 강간은 종종 '관객'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병사의 공격이 특히 여성의 性에 향해 있는 것은 그것이 '적' 남성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모욕이며 자기 힘의 과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강간'은 상대국 남성에게 격렬한 분노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왜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일까. 그러한 이유로 집단 강간 등 국가나 민족 등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욱 드러나기 어려웠다. 왜 '개인의 고통'보다 '집단의 수치'가 더 문제시되는가?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의 명예훼손, 수치로 인식되어 온 것은 여성이 집단의 성원이 아니라 소유물, 교환물, 재산으로서 간주되어 왔음을 드러낸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여성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집단의 명예를 욕되게 한 더러운 여자가 된다. 여성의 순결성은 가부장적 공동체의 순결을 상징하고 여성의 모성은 공동체 정체성의 보루이기에 여성의 순결과 모성의 파괴는 공동체 전체의 수치이며 상실이 된다. 강간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여성은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제당한다. 남성은 여성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을 그 여성이 속한 집단 전체 혈통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다른 집단의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임신시켜 그 결과 '이방인'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대체로 혈통의 개념은 인종주의로 확대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범되고 강간당하고 임신되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지속된다.

· 스몰렌스크 시에서 독일군 사령부는 수백명의 여자들을 호텔에 몰아 넣은 뒤 장교들을 위한 유곽을 차렸다. 이 여인들은 가족과 어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한 뒤, 벌거벗긴 채 팔 또는 머리채를 잡힌 채 길거리로 질질 끌려서 호

텔까지 온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 사이공 정치범으로 몰린 여성들은 주로 성고문을 받았다. 질 속에 고무 막대기를 쑤셔박거나, 남편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거나, 성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옷을 벗기고 마구잡이로 구타를 당하는 것 등의 고문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

· ...그것은 분명히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지를 벌린 채 누워있었죠. 그리고 두 다리 사이에서는 제11연대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깃발은 그녀의 질 속에 박혀있었고, 그 깃발은 마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예스러운 어떤 훈장처럼 말이죠...(베트남 전쟁)

· 촌락에 진입해서 마을 사람들을 수색할 때 여자들은 모두 옷을 벗게끔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은 여자들이 몸 어디에도 아무 것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여자들의 질에 삽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간이라기보다는 수색의 한 과정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 ...중위는 그 여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녀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양 가슴을 군도로 그은 뒤 땅바닥에 큰 대자로 눕혀 질에다 삽을 쑤셔박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병들은 그녀의 질에서 삽을 끄집어낸후 나뭇가지를 쑤셔박았고 곧이어 한 사병이 총을 쏘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 ...두 명의 사병이 열 아홉 살쯤 되어보이는 꽤 예쁘장한 소녀를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은 채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이미 강간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한 행위는 SOP(표준적 작전활동의 절차)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그 소녀는 다른 부녀자들 사이에 밀쳐 넣어졌지요. 우리는 우선 그들의 가족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를 빙 둘러싼 다음에 총으로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4월 공개 세미나

주 제 : 무력갈등시 성폭력

관 련 자 료

1. 테러의 체현(Embodiment of Terror)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
   : 마리아 올루직 (Maria B. Olujic) 지음

2.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 제주 4.3을 중심으로
   : 김성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문화인류학)

3. 결혼 과정에서 드러나는 군 '위안부'의 경험

테러의 체현(Embodiment of Terror)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1)]

마리아 올루직 (Maria B. Olujic)

1. 요 약

폭력에 대한 연구(특히 전쟁시의 성적 강제)는 강간이 개별 몸에 대한 전쟁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강조한다. 전쟁이 훨씬 뚜렷하게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폭력(특별히 성별화된)을 이해함에 있어, "전쟁시", "평화시(일상)"라고 정의되어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화된 폭력은 단지 전쟁시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탈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의 근원은 평화시에 만들어진다. 일상의 상징들(상징적 대화들)이나 은유들은 평화시에 존재하는 권

1) 이 글은 1996년 계간 "의료 인류학(Medical Anthropology)" 이라는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원래 이 논문은 이성인권 캠프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 분과의 교재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현재 보스니아, 르완다, 동티모르 등의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강간등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일상성, 문화, 권력, 전쟁, 남성성 등이 문제로 분석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 분과의 윤정연 (전반부)과 정희진(후반부)이 나누어 했습니다.

력의 지배와 공격성의 유형을 보여준다. 전쟁시에, 이러한 몸에 대한 상징들과 그것의 부산물들은 공(식)적인 폭력을 합리화하고 해명하는데 사용된다. 그 상징들은 공적 폭력과 굴욕을 설명하고 의미와 하기 위해 작동된다. 이 연구는 일상의 권력의 통제와 공격서이 전쟁시에 어떻게 발현되는 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평화시에 개인의 몸(특별히 몸이 가지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은 일상적인 권력 통제와 공격성의 상징이 된다. 개별 몸의 은유들은 (평화시에 사회 질서의 무의식적 억압을 재현하는) 전쟁시에 의식적 실재가 된다. 개별 몸은 전쟁시에 사회적 몸으로 변형된다(집단 강간이나 인종청소, 혈통의 정화 등). 전쟁 후, 최종적으로 변형과 은유는 사회 안에서 사회를 방향 전환하고 원상복귀한다. 그리고 개인 몸은 다시 한 번 평화시에 수용되는 사회적 질서로써, 권력 통제와 공격의 초점이 된다.

동유럽의 붕괴는 군사적 분쟁의 폭발 때문이었다. 1990년에 시작된 전 유고 내전은 확실히 동구와 서구에 있는 적대적 분쟁 지역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을 드러낸다. 발칸에서의 새로운 양상의 폭력에 대한 해석은 많은 인류학적 관심을 촉발했다. 냉전의 끝은 2차 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보이지 않았던 폭력을 양산하면서, 오래 지정학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 유고에서의 공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시의 폭력 문화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평화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 둘은 뗄 수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Desharlans와 Kleinmen은, 문화적 관념이 폭력적 무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때는 문제적인 개념이 됨을 지적한다. 연구가들이 사회적 몸과 물리적 몸(구체적인 몸)이 교차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을 집합적 행위와 연결해야 한다(Desharlans and Kleinmen, 1994). 전 유고에서, 폭력의 동력, 의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 성별관계에 있어서의 폭력과 명예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화된 폭력은 전쟁시 폭력과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의 뿌리는 평화적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 행위로 성별화된 폭력의 사용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문화를 동시에 연구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성별화된 폭력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교란 도구로써 몸, 성, 명예에 대한 문화적 은유를 활용

한다. 전쟁 강간을 일탈로써 기술하는 연구자들의 작업과는 다르게, 나의 연구는 전쟁폭력이 이미 존재했던 사회 문화적 역학의 절정임을 보여준다. 정말로 전쟁 강간은, 남/동유럽 지역에서 평화시에 여성의 몸에 부착시킨 명예, 수치심,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없었다면, 여성에게 고통주기와 테러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앙유럽문화의 보편화된 명예/수치심에 대한 문화적 특징이 없었다면, 테러 정책뿐 아니라 전쟁 강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방법론과 연구 현장

1991년 12월에,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크로아티아로 갔고, 1993년 5월까지 과학부 소속으로 일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재직 기간은 매일 매일이 전쟁 상황으로 모든 면에서 대단히 어려웠다. 나는 1993년 여름까지 여성 폭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써 보스니아에서의 전쟁강간을 연구했다. 나의 방법론은 희생자-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준 구조적 인터뷰를 포함했다. 인터뷰는 전쟁전과 전쟁 기간 동안의 피조사자(연구대상)의 삶에 관한 인구학적 데이터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피조사자는 보건 관리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뿐 만 아니라,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여/남 피난민들을 포함했다. 이 통계를 위해, 나는 40명의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생애사를 통해 보충되었다.

덧붙여 면접 조사(1,060명의 정보 제공자)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전쟁과, 전쟁 강간, 희생자와 가해자에 관한 질문을 포함했다. 두 가지의 개방적 질문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성적 폭력의 원인에 대한 주체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데이터는 접전 그룹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없는 지역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경(경계)지역의 것이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회교문화는 외형적 차이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그룹의 민속은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지역민속 안에 지속적인 교차점과 장르로 남는다.

나는 처음으로 전쟁과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동시에 나는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였다. 나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류학자였지

만, 나의 조상과 역사는 이 갈등 지역과 연관이 있는 크로아티아人이었고 나에게도 크로아티아人으로서의 기대가 있었다. 덧붙여, 나의 데이터에는 고난의 생존자가 말한 무서운 이미지들과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이 있다.

3. 평화시의 일상적 공격성과 권력통제, 그리고 전쟁

전쟁에서의 폭력의 구현은, 일상 문화에서 성에 부착된 의미들로부터 나온다. 20세기말에 이르러서도, 평화시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는, 남동 유럽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용이한 의미를 만드는 것을 지속한다. 전쟁에서 이성의 명예(정조)에 대한 침해는 한 민족의 남성에 대한 또 다른 민족 남성의 무기가 된다. 이 역할은 남동 유럽에서 슬라브 민족들의 복잡한 전통적인 문화에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가부장 체제의 중심은 Zadruga라 불리는 확장된 가족이다.

여성들은 남편의 가족들과 결혼했다. 따라서 그녀들은 성적 대상, 어머니, 노동자로 가치 평가되었고 ,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Zadruga)의 외부자였다. 이러한 설명은 많은 지중해 연안 주민들에게는 친숙하다: 엄격한 위계에 의한 명예와 혈연의 관습은 일상적 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Zadruga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지속된 관습은 일상적 규범과 일관성을 규율한다. Zadruga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지속된다.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여성의 처녀성, 순결, 혼인이 최고의 미덕이며, 출산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과, 이에 따른 명예/수치심의 이중 규범이다. 여성에게 있어, 명예와 수치심은 도덕성의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담긴 마을의 병정을 대표한다. 전 유고에서, 성적 습관에 관한 전통적 가치 평가는 경제적 변화나 공산주의하의 국가 정책이나, 남성들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유고 전쟁동안,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적 고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도 군사정책의 하나로 성적 폭력을 사용하여 고발된 군 지도층에 대한 전범 재판이 헤이그에서 진행중이다.

성적 강제에 대해 진행되는 조사가, 개별 여성에 대한 범죄로써 강간을 취급

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전쟁에서 강간은 공포의 전략으로서 사용되었다. (유태인에 대한 나치의 공포, 중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강간)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서 강간은, 유고 전쟁에서처럼 대단한 명성을 갖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사회 과학에서 연구되지도 않았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의 상황은, 남성들의, 다른 그룹과의 갈등적 맥락에서의, 강간을 연구할 독특한 기회를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강간 행위는 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편, 오빠, 아버지와 희생자의 아들에게 굴욕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여자를 보호하지 못한 남자들의 무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굴욕은 명예/수치심에 대한 복잡성이 존재하고, 이성의 순결이 가족과 공동체 명예의 핵심이 되는 발칸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남성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한다. 반면에, 여성의 의무는 그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수치심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식적인 인정은 그들의 영혼, 혈통, 명예를 상실한 남자들의 공식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고문으로 인한 고통의 정치적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레인 스캐어라는, 국가의 물신화된 상징인 고문의 도구가 된 몸(고문을 당한)으로부터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적 가능성의 이탈과 이전에 근거하여, 고문의 과정에서의 국가 헤게모니 생성을 정의한다. 푸코처럼, 스캐어리는 국가에 의해 수행된 권력통제의 양식으로써 몸의 다양성을 본다. 세 민족 사이에 공유된 문화적 의미들 때문에, 유고에서의 성적 폭력은 고문의 무기로써 특히 중요하다.

전쟁에서 개인의 몸은 그들 그룹에 대한 사회적 몸의 은유적 재현이 된다. 개인의 몸을 살인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은 그의 국가를 살인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깨끗함이나 더러움의 문화적 관념이 개입한 전쟁 강간은 섹슈얼리티와 민족적 제휴와 연관되었다.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을 통해, 침략자들은 아버지들(침략자인)의 그룹에 속한 민족으로 깨끗한 아이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침범 당한 집단의 피를 정화할 수 있다.

평화시에 성별 상호작용은 노래, 농담과 이야기들 안에 묘사된다. Ganga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민속 노래의 형태는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특정

Ganga의 맥락은 말의 또 다른 뜻을 갖는다(ploughing(경작하기)은 성교를 의미하고; 덥수룩한 털은 vagina; 총은 페니스 등등).

강가는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그리고 때로는 함께 불려진다. 강가가 남/여 모두에 의해서 불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각 성 모두에게 중요하게 의미되는 장르로 분석될 수 있다. 강가는 또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과 배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여성을 노래하진 않지만, 그것들의 주요한 초점은 여성이다. 특별히 여성의 섹슈얼리티, 남성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정력과 남성성에 관한 노래를 한다. 남성들은 섹스를 원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강함에 비해 위선적으로 묘사된다. 강가에서 남성들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여, 성적 대상으로써 여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에 사용되는 언어...

"나는 그녀를 (음모를) 면도하고 자른다. 나는 나의 (여인을) 면도하고 자른다. 옥수수 죽이 끓고 있는 얼린 난로 위에서..."

여기서, 남성들은 난로 위에서 여성의 음모를 면도하고 자름을 통해 그들의 남성다운 권력 통제를 나타낸다. 난로 위의 여성의 위치는 그들이 성적인 '뜨거움'이나 삽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상징한다. 그 노랫말은 또한 혼합된 옥수수 죽에서 성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좋은 옥수수 죽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로 세심하게 젓는 것이다. 옥수수 죽이 적절히 요리되지 않는다면, 음식으로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손님에게 대접할 수 없다.

많은 민속 음악들은 옥수수 죽 만들기의 과정과 같은 은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피는 옥수수 죽이 아니다' 같은 일상적 표현은 마치 그들이 옥수수 죽처럼 민족 그룹간에 함께 섞이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유사한 대비로, 같은 표현이 영어 속담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사용된다. 피와 옥수수 죽처럼 걸쭉하고 응고된 상태인 반면에, 여성의 피는 잘못 만들어진 옥수수 죽처럼 묽고 부드럽다. 여성의 피는 결혼을 해서, 그들의 친족을 떠나왔기 때문에 묽고, 반면에 남성의 피는 친족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있고, 자식으로서의 과정

을 거쳤기 때문에 걸쭉하고 덩어리진 채로 있다. 이것이 왜 딸들이 '이질적 뼈대'나 '이질적인 운명'인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피는 옥수수 죽이 아니다'와 '피는 물이 아니다'의 관련은 순순한 혈통이 중요성 뿐 만 아니라, 남성의 우월한 피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대재앙의 상황에 관한 민요에서 영웅들은 그들의 혈족에게 편지를 썼고, 격조하여 피눈물을 적셨다. 피는 많은 '의례'에서 사용되었는데, '결의형제'의 의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부터, 비탄의 표현으로써 피가 나올 때까지 특정 사람의 얼굴을 할퀴는 것까지 있다. 잘못된 행위는 위법자의 혈족의 일원을 죽이는 피의 응징을 받았다. 덧붙여, 한 가족에서 맨 첫 신부는 '나는 나의 피를 너보다 전에 여기에 뿌렸다'는 말로 나중의 신부에게 서열을 주장할 것이다. '피 처녀(blood virgins)'에 대한 보증은 그들의 결혼식 밤에 피를 흘림으로써 믿게 된다.

앞서 인용문에서 음모의 면도와 자르는 이미지는 유사하게 복잡한 상징적 예이다. 남성 제공자는 그 인용문을 '남성은 그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했다. '그는 그가 병아리가 아니라 사내다운 놈임을 다른 남자에게 자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면도와 'cut'이라는 단어는 현재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기관총의 불꽃이 적을 면도(shave)한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털을 면도하는 것은 (특히 여성의 털) 또한 정조를 더럽힘에 대한 탄식으로 사용되었다. 2차 대전 동안에 게릴라들은 여자가 스파이라면 그녀의 머리를 면도했다.

결론적으로 면도하는 것은 소년의 머리 자르기 의식의 중요성 때문에, 회교도 지역에서 남성이 되는 나이와 할례 의식과 연관된다. 모든 것에서 cutting과 shaving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내포하며, 특히 성적 권력을 상징한다.

4. 섹슈얼리티, 구혼, 재생산

비록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유럽 문화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지만, 조크, 노

래, 격언과 기타 민요 등을 통해 여/남에 대한 광범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볼 수 있다. 강가에서 은유적 언어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사용되듯이, 성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다른 민요에서도 여성이 성적이고 성적자들이 욕정적이라는 아이디어들이 표현된다.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성적인 힘고, 강함이고 자랑스러움이다.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여성의 성적 통제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전쟁 강간을 굴욕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남성 인터뷰자의 생애사는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몰두를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인터뷰는 그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지와 서로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연하고, 다양한 사내다움과 성적 용감함에 대한 전시에서 보여진다.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남성다움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서로 상상 속에서와 실제의 성적 사건들을 자랑한다. 다른 세대의 남성 피조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적 게임"을 가지고 있다. 10대들은 소를 치는 동안에 숲에서 놀면서, 그룹으로 모였을 때 누가 더 오줌을 멀리 보내는지 보이기 위해 경쟁한다. 또한 누가 더 긴 페니스를 가졌는지 경쟁한다. "지배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평가 기술을 고안한다"고 피조사자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의 간격, 손가락의 두께와 넓이, 엄지손가락의 길이 또는 손바닥의 넓이 등. 남자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이러한 행위를 공격적인 것으로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그들 중 누가 가장 신체적으로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게임으로써의 경쟁으로 본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요일에는 일상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물론 우리는 교회로 가기 위해 마을로부터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도 알았고, 여자들이 옷을 입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는 지도 알았다. 이것은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 위한 최고의 기회였다. 다른 방법은 여자가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 아래에서 치마 밑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은 여자가 서있거나 어떤 노동을 할 때 마루에 유리 조각을 놓는 것이다."

평가의 척도는 또한 여성의 성적인 경험을 평가하는데서 나타난다. 남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방식들을 나에게 말했는데, 여자가 만일 처녀라면 여자는 잠자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의 순결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은 그녀의 가슴이다. 그녀가 부드러운 가슴을 가졌다면, 다른 말로 "늘어짐hanging" 이라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못쓰게 만들었다(상처를 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방식은 그녀의 오줌 누는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녀가 오줌을 넓게 싼다면, 그녀는 처녀다(Pearced)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과 상징 또는 강간 놀이는 역사적으로 남유럽에서 몇몇 결혼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과거에 납치에 의한 결혼은 여성이나 그녀의 남성 혈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납치"는 그녀 부모의 찬성 없이 젊은 커플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도망의 형태가 되었다. 이 주제는 또한 "Chasing" 이라고 불리는 구애의 형태 안에서도 작용한다. 그것은 2차 대전 후에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에 10대였던 젊은이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들은 여자를 쫓아가서, 그녀를 넘어뜨리고 그녀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녀를 마루 위에 눕히고, 그녀를 굴린 다음에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음모를 잡아당긴다. 만약에 그것이 많은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반면에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 남자를 희생자로부터 떨어뜨린다. 나는 여자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들었는데, 남자들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닌다. 종종 공격당한 여성은 그 남자가 더 진전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했다. 강간 행위, 이것은 공식적으로 남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이다.

역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젊은 남자의 관심을 끌었다면, 그녀의 명예는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녀의 모든 가족의 명예에 상처를 주게 된다. 어린 소녀들은 종종 공공연하게 그들 자신을 보호하도록 얘기된다. 예를 들면, 엄마들은 불장난을 할 것 같은 딸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모욕을 준다. 아래의 예들이 냉정해지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네가 욕정이 생긴다면, 집게발이나 주걱을 달구어서 너에게 대라, 네가 불에 탄다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신은 또한 결혼에 있어 처녀성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혼식 후에, 첫날밤에 시트에 묻는 혈흔은 전통적으로 처녀성에 대한 증거로 전시된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이 동물 피를 사용한다든지, 빨간 페인트를 묻힌다든지 하는 등의 수많은 얘기들에서 묘사된다.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우스개 소리가 있다. 밖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녀는 페인트의 색깔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우연히도 시트에 녹색을 뿌렸다. 이른 아침에 걷고 있던 두 수녀가 맨 처음에 널려있는 이 시트를 보았다. 한 수녀가 다른 수녀에게 말을 했다. "Oh, My God! 불쌍한 여인이여, 이 남자는 방광의 부레(담즙)에 삽입했구나!"

그러나 처녀의 피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면, 월경혈은 더러운 피로 얘기된다. 만약 기형아가 태어난다면(납작한 성기를 가진), 그것은 여자보다 더러운 피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중요성과 가치는 여성의 순결성, 일부일처제, 재생산에 주어진다. 그것은 현재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전쟁에서 왜 여성이 친척과 혈족에 의해 비판의 표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공격과 폭력은 전통적인 명예, 수치심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치적인 과정과, 재산에 대한 통제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 방식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명예가 남성의 명예이며, 곧 국가의 명예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5. 공포가 만들어지는 방식 혹은 문화 (전쟁시의 경우)

공포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미리 계획된 1990년 여름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공포의 전술에서 시작된 이벤트의 연속이었다. 즉 거리의 바리케이드, 마을과 시민들 머리 위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유고슬라비아 민중군(軍) 헬리콥터와 폭탄들, 대학살과 절정에 달한 전투과정에서 개개인들에게 행해진 체포와 고문들은 이미 공포의 전주곡이었다.

1990~1991년 사이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공통적 형태

의 테러는 소수민들(Minority citizens)을 선별하고 검거하는 것이었다. 개인들은 그들이 지역 경찰이나 혹은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잡혀가지 않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에 의지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살해되었다. 1991년 여름 끝에는 탱크, 대포, 폭탄, 미사일로 중무장한 포병대와 함께 암살이 시작되었다. 1992년 봄, 전쟁은 더욱 잔인해졌고 그러한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전투상황이 그러하다.

Ganga 민요는 크로아티아 국경지대에서 불려진 전형적인 경우다. 전쟁 초반부터 농담과 같이 강가 민요는 대중적으로 널리 불려졌다.

(1) 내 작은 아가, 엄마의 사랑스러운 아가야,
빨리, 폭격기가 있는 내 밑으로 숨으렴 어서.

(2) 만일 하늘의 모든 별들이 부드러운 딜(pussies, 여성의 음부)이라면 ,
남자들은 모두 비행사가 될거야.

이는 성적인 내용, 특히 폭력적인 공격을 성적인 행동으로 비유한 것이 분명하다. 보스니아에서 전쟁 전야에, 크로아티아에서는 이러한 농담이 맹렬히 퍼져나갔다. 이 농담은 (이후 발생할)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안을 드러낸다. 전투가 반발하기 전, 다음과 같은 농담이 대중화되었다. '하소(Haso)가 그의 아내 파타(Fata)에게 말했다. "탱크가 보스니아로 몰려오고 있으니, 그들을 막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가 길바닥에 드러누워야지!" 그랬더니 파타가 대답하기를 "아뇨, 나는 보병을 기다리고 있는 걸요."' 하소가 파타에게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여 탱크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녀의 대답은 보병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담은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병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섹슈얼리티가 병사의 무기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부정한다.

다음의 두 번째 농담은, 전쟁하에서 강간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알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파타에게 하소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파타는 "저격수가 나를 가졌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농담은 성적, 호전적인 이미지와 신체적 상징적인 경험으로서 강간의 심각성을 무화시켜 버린다. 이러한 농담에서 여성은, 원래 그녀들을 소유한 남성들과 그 남성의 적군 모두에게 군사적, 정치적 표적의 매개물로서 묘사된다.

6. 前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 강간

前 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강간과 성적인 고문의 희생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2년 9월말에 보스니아 정부에 의해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15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대략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분리 수용되었다. 남녀 모두 이 캠프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여겨지며, 그 고문에는 강간과 성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고문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그들의 여자 친척들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만 했다. 같은 보고서는 최소한 14,000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고 보고한다. 이중 2,000명은 7~10세의 소녀들이며, 18~35세가 8,000명, 35~50세가 3,000명, 50세 이상이 1,000명이다.

1992년 유럽 공동체(EC)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보스니아-세르비아 병사들은 20,000명의 여성들(주로 회교도들)을 강간했다고 한다. 강간은 전쟁 중 공격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이며 의도적인 학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쟁 강간은 "인종 청소"의 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보스니아 내무부는 강간 피해자를 50,000명으로 잡고 있다. 보고된 강간 케이스들은 다양해서, 강간이 인종 말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에서 발생한 수많은 대량 강간은 보스니아 정부가 "강간 캠프"라고 명명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정복된 여성들은 세르비아 병사에 의해 강제로 붙잡힌 상태에서 강간당했다. 많은 여성들이 두 가지 잔인한 운명 앞에 직면해야만 했는데, 살아남기 위해 강간과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하거나 즉각 살해되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강간 캠프의 이름과 장소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구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으나, 새로운 상황은 잔인했다. 강간 캠프는 종종 전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의 상황과 같았다. 강간 캠프의 이름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상징했다. '요정의 긴 머리'같은 이름이나 '커피하우스 쏘냐'같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예전에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시적인 거리를 상징하거나 휴식, 즐거움을 상징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최근 이들 캠프의 의미는 쉬는 장소라기보다는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려는 여성들의 사창가가 되었다. 캠프 이름이 갖는 상징은 캠프의 강제적인 성격을 은폐시키고, 여성 스스로가 그런 희생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은 레이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같은 영어식 캠프 이름이 현대 서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름은 서구의 성적인 난잡함, 방임주의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캠프는, 세르비아 남자가 처벌받지 않고 어떠한 종류의 성적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성적 학대의 면허증을 제공했다. 여성들에게는 이곳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이었다. 많은 캠프에서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권총으로, 윤간 후 과다 출혈로, 혹은 수치심에 택한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강간이 회교도 병사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병사에 의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들은 "미리 계획된 강간 캠프와 여성들은 그들이 임신할 때까지는 감금하지 않은" 개인적 사례일 뿐이라고 한 남성 응답자가 말했다.

잔학행위들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몇몇 세르비아 병사들은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임무를 명령받은 증거가 있다. 정치적 수단으로서 고의로 강간하는 것은,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임신시키는 인종 강간(다른 인종의 여성에게 강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게는 6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는 여성에게 강간한 것이다.

남자 가족들 앞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는 시도는 강간이 모멸, 수치심으로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비록 강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성 죄수들에게 서로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형제간 부자간의 오랄 섹스와 같은 강요된 성적 잔학행위에 관한 기록도 있다. 좀더 흔한 경우로

는 남성 친척간에 서로를 고문하게 하는 예들이 있다. 다음은 회교도 남성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들의 두 번째 심문은, 그들이(세르비아 병사들) 우리(죄수들)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중에 가족이 있느냐고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 병사가 "서로 때리고 싸워라."고 말했고 그들은 서로 손바닥으로 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만족스럽지 않아. 왜 그럴까? 피가 안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병사는 다시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 피가 안 나잖아.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병사들은 아들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게나 죄수 중의 한 사람을 불러 "니 이름이 뭐냐?" 고 묻고 죄수가 이름을 말하니까 그 병사는 "그래, 니가 그 사람이야. 니 에미 fucker. 여기서 죽어봐.(자살해봐)"라고 말했어요. 다섯 명의 병사가 그의 머리위로 점프하니까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귀를 잘랐어요... 그는 계속 비명을 질렀고, 피가 우리 모두에게 튀었는데도 그들은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웃고 즐겼어요... 거기 있던 우리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나무 바닥에 흥건한 피를 (혀로) 핥았어요...

여성에게는 불임 수술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죄수 신분으로 낙태가 불가능할 때까지 임신 상태로 붙잡아 두었다. 강간당한 여성들과 그녀의 아이들은 계속 폭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다. 다음의 긴 인용문은 19세의 여성 '사넬라(가명)'로부터 들은 것이다.

네 명의 세르비아 병사가 내게 물었어요. 남자가 있었던 적이 있냐고요. 나는, 결혼할 때까지 연애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병사들이 말하기를, "너는 회교도가 아니라 스파이다. 회교도들은 거기랑 아래를 면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와 나이든 여성들은 그랬지만, 그것은 관습의 일부일 뿐이고 젊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고 강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더니 한 병사가 나를 붙잡아 내팽개치더니 아래를 벗기고 음모를 보더니 "봐라, 너는 회교도가 아니지, 니가 회교도라면 음모가 있어야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회교도가 아니다, 니가 누군지 밝혀라." "나는 회교도입니다. 신에게 맹세합니다. 어머니에게

명세합니다. 회교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넌 회교도가 아니야." "예, 저는 회교도입니다."라는 식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칼을 꺼내더니 나에게 던지고 난 후 나를 마루바닥에 눕혀 고정시키더니 도와달라며 다른 병사를 불렀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밀어버려(면도해 버려)!" "잘라버려"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들은 면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어의치 않았는지 털을 뽑고 칼로 내 몸을 가로지르고...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두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 한 사람이 내 위에 올라타고 내 다리를 올려서 나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두꺼운 천을 내 입에 쑤셔 넣고 내가 소리치지 못하게 한 다음, 언제나 와서 내 털을 뽑았어요. 내 몸을 확 잡아당기고 나서, 나를 발로 차면서 더 세게 털을 뽑는 거예요. 후에 내가 본 것은 붉게 피멍들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내 몸이었어요... 매일 밤 그랬어요...

네 명의 세르비아 "영웅적인 병사"에 의해 자행된 고문의 자세한 묘사는 계속된다. 칼로 그녀의 유방을 그었고, 그들은 (그녀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일어나서 빙빙 돌고, 앉아라, 일어나라, 누워라,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면서 처음에 자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출 수 있게 지혈할 것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증거야. 너는 그걸 느낄 거야. 넌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자, 이제" 그 병사가 말했다. "너는 음모가 없으니 진짜 아름다운 회교도야. 이제 진정한/완전한... 그리고 너는 내가 그렇게 할거라는 걸 잘 알지?" 나는 그들의 위협에 벌벌 떨었어요. 나는 또 천천히 잘려졌어요. 그래서 진정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어떤지, 얼마나 느끼는지...

사넬라는 같은 날 모든 남자에게 당한 더 심한 고문과 구타, 오랄섹스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로 차디찬 나뭇가지 위에 뉘여 졌고 네 명의 병사들에게 차례로 강간당했다. 그 중 한 병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잔말 말고 누워. 입 닥쳐! 그래서 너 정말 남자랑 자본 적 없어? 있다고? 음, 이제 넌 남자,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보게 될꺼야" 그리고 안 벗겨진 네 것...(회교도의 할례 의식과 관련된 말)" 사넬라는 고문과 강

간 후에도 살아남았고 죄수 교환으로 풀려났다. 그녀는 임신 능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크로아티아의 망명자 캠프에서 살고 있다.

세르비아 병사가 회교도 피해자에게 한 할례에 대한 언급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할례했다'라는 말 대신에 그는 '(껍질을)벗기다'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좀 더 흔하게는 바나나와 같은 과일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된다. 이 말의 함의는 회교도들의 페닉스는 기형적이며, 불완전하다고, 손상되고, 거세된 반면에 세르비아 병사의 성기는 완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세르비아 병사의 잔인한 조롱은 그가 사넬라에게 임박한 강간이 학대 행위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모욕을 통해, 그는 고문의 진짜 대상을 분명히 했다. 그의 고문 대상은 사넬라가 아니라, 자기 여자의 순결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그녀의 약혼자 남성이다. 사넬라의 설명은 Ganga 노래를 상기시킨다. 여기서 자르고 면도하는 행위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가 된다.

클라우스 웨벨라이트에 따르면 , 고문의 효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희생자를 파괴하는 것, 희생자가 '위협'적인 존재로 구형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문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피해자)이 죽음으로써 가능하다. 고문하는 사람은 고문당하는 사람의 몸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몸을 얻는다.

몸이 남성의 여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각 인종들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병사가 사넬라의 몸을 전형적인 회교도로 만들기 위해 "자르고 면도하고"하는 증언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그녀의 육체에 "인종성(Ethnicity)"을 각인했다. 인종성의 각인은,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 다른 피를 가졌다고 믿는 영역의 긴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다름은 신체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다. 여기서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불임이 되거나 다른 민족의 멍청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공포를 강하게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항상 침략자의 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7. 전쟁 문화의 변형

강간의 정치적 이용은 전쟁의 진행과 궤를 같이 한다. 1991년 크로아티아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이 처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그 사안 전반에 대해 침묵했다. 1992년 봄, 나는 크로아티아 병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크로아티아 윤리위원회에서 임신한 크로아티아 여성과 너무 늦어 태아를 낙태할 수 없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말해 준 이 정보는 "일급비밀"로서 언론에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을 때도, 아니 사태가 더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첫째는 크로아티아의 크리스찬 여성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문제 발생 만큼이나 간단하지 않다. 크로아티아 여성들이 당한 전쟁 강간에 대한 침묵하는 것은 크로아티아 남성들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크로아티아 남성들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 여성, 회교도 여성이 모두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보다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전쟁 강간이 더 규모가 크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회교도 여성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단순하게 척도화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잔학상의 실재를 숨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보스니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공식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표명했다. 세르비아 군인에 의해 보스니아 강간 캠프에서 대규모의 강간을 당한 보스니아 피해 여성들은 보스니아 정부가 서구의 군사 개입을 설득, 유인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다.

보스니아가 전쟁 강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덕분에, 희생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사회의 문제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불명예로 묘사한다. 여성들은 침묵의 벽 뒤에 숨게 되고, 공적인 수치심으로부터 그들의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마지못해 얘기한다.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독신 여성이나 기혼 여성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순결의식

이나 결혼의 신성함 등에 대해 자유롭고 그들을 부끄러워할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혼한 여성들도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은 후로는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수치심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큰 것이다. 평화시에도 너무 섹스를 밝힌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섹슈얼리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한다고 여겨졌다. 명예와 수치심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성교 동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일단, 여성 개인의 몸에 (남성의 성기가) 관통이 되면, 그녀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을 입게 된다.

수많은 증언을 통해, 일부 여성들은 그들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수치심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이 "월경혈"은 세르비아 병사가 강간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예로서 증명된다. 몇몇 증언들을 들어보면 여성들은 잡히거나 강간당할 때, "생리중이라 안돼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간에 의한 임신은 인종 정체성의 결정적 위기를 나타낸다. 강간당한 여성은 강간으로 인해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Chetniks(세르비아 극단론자)로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증오 때문에 그 아이를 상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임신은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초래한다. 크로아티아계 카톨릭 교회, Cardinal Kuharic의 지도자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반면, 이집트 출신의 회교 지도자는 보스니아 회교도 공직자들에게 임신 4개월 후에 낙태하는 종교적 법령을 통과시킬 것을 재촉했다.

평화시와 전쟁시, 두 시기 모두 여성들의 몸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를 이동한다. 한편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들의 명예를 상징적 저장소(용기)이며, 남성 경쟁의 상징적인 영역이다. 그들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다른 남성 집단의 여성들의 몸을 침범(강간, 납치) 함으로서 남성성을 경쟁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 개인의 몸은 혈통(가계)의 축소판이다. 이 혈통 그 자체는 하나의 몸으로 인식된다. 그것의 약점은 몸의 구멍이라는 데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을 전체 혈통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명예 콤플렉스 근저에는 다른 집단의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임신시킬 것에 대한 공포와 그 결과 "이방인"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러한 혈통 경쟁 속에서는 지속적인 피해 혈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을 강간하고 세르비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이 명예 콤플렉스의 아래 놓여있는 무의식적 공포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군인들이 했던 행동은, 그들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은 공포가, 실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의 표현이다.

대체로 혈통의 개념은 인종주의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크로아티아人들은 세르비아, 회교도 혈통에 대항하여 하나의 혈통이 되어간다. 이러한 혈통의 상징적인 몸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가 된다. 인종 청소는 그들이 국가 영토를 "처녀지"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침략의 강간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범되고 강간당하고 임신되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지속된다. 개개인 여성에 대한 강간은 더 큰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의 축소판이다.

전쟁 무기로서 강간이 사용되는 것은 일탈이 아니다. 평화시의 (일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전쟁시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 지역(로컬)에서의 전쟁 강간의 기원과 성적인 고문의 독특한 동기는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든, 개인 병사에 의해 저질러지든 변명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 성적인 고문은 (고문으로 인해 이미) 파괴되고, 극도의 분노로 뿌리 뽑힌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모든 전쟁과 대학살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환타지에서 나온 집단적인 행위에서 구축되어진다. 이러한 비극은 실제로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들의 삶은 분열되고 (찢겨지고) 파괴되는 고통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나서 집단적인 환상으로 은폐된다.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 제주 4.3을 중심으로

김성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문화인류학)

1. 제주 4.3 - 인종말살과 성폭력
2. 빨갱이의 몸 - 반공국가의 모태
3. 국가와 주민 - 화간(和姦) 관계
4. 여성의 몸 - 성적환상과 반공폭력의 스펙터클
5. 고통받는 몸과 가부장제 폭력

1. 제주 4.3 - 인종 말살과 성폭력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에 즈음해서도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 4.3의 진상 규명은 아직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는 4.3을 좌우익의 이념 갈등의 산물이며 반공국가 체제에 대한 반란으

로 보는 공식적 해석과, 미군정과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우익단체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주 민중의 저항으로 보는 비공식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주도 사태를 '공산 폭동'으로 보는 공식적 입장이나 '민중 항쟁'으로 보는 비공식적 입장 모두 4.3의 피해를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4.3의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유형의 권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주민들로서, 사상이나 행동의 측면에서 폭력과 대응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한 '무고한' 희생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고한 희생자들은 4.3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담론 정치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한다. 이들은 좌우익의 갈등이나 국가와 민중의 갈등과 같은 권력의 위계 관계의 구조 밖에 위치하는 타자이다. 이들의 비가시성은 4.3에 관한 담론정치에서 대립적 권력구도의 경계를 만드는 기호로써 사용되었을 뿐이다. 어떻게 이들의 무고한 죽음을 가시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단지 대량 양민 학살의 실상을 밝히는 것 이상의 구조적 설명이 필요하다.

4.3 양민 학살은 1948년 11월 중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군경에 의한 초토화 작전 시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제주도 사태는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단순한 지방의 공산폭동 사건 이상으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강경 진압되었다. 해안선에서 5km 지점부터 적성지역으로 선포되어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중산간 지역의 130개 마을이 불태워지고 남녀노소 없이 대부분의 주민이 '빨갱이' 혹은 '폭도가족'이라는 혐의를 받고 무차별 학살당하였다. 양민학살을 정당화한 계엄령은 피해자들에게는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제도'였고, 실제로 가해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계엄령'이라고 외치고 다녔다. 또한 토벌대에 의한 제주도민의 수난은 집단적 성폭력의 양태로 나타났다. 겁탈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신부와 출산중인 부녀자를 총살하거나, 한 마을 사람들을 나체로 집결시켜놓고 가족 관계를 불문하고 남녀를 지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다가 총살하는 반인륜적이고 도착적인 행위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집단적 성폭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註4)

제주도 주민의 대량 학살과 집단 성폭행은 '빨갱이'에 대한 증오의 산물이었다. 4.3 당시 '빨갱이 소탕', '공비토벌'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한 가혹 행위자의 모토는 '빨갱이를 뿌리뽑고, 그 종자를 말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라 잡초와 같은 열등한 인종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4.3 당시의 '빨갱이 소탕'은 나찌의 계획적인 유태인 말살과 같은 인종 말살이라 할 수 있다. 반공주의를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중심 가치로 하는 반공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빨갱이 섬'으로 주목받은 제주도의 주민은 국가 정체성을 오염시키는 열등한 인종의 위치에 놓인 것이다. 4.3 이후에도 '빨갱이', '폭도'라는 낙인은 생존 가족이나 친족에게 유산으로 남아 연좌제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4.3 당시 행해진 집단적 성폭력은 제주도민들을 빨갱이 인종을 재생산하는 '빨갱이의 몸'으로 대상화하여 자행된 테러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전체는 '빨갱이 인종의 몸'을 상징하고 또한 빨갱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는 '여성화된 몸'으로서 반공폭력과 성폭력의 이중적 희생자가 된 것이다. 더욱이 4.3의 여성 피해자는 이러한 폭력이 행사되는 가시적 실체로서 일상의 가부장제 폭력과 함께 3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주민을 빨갱이로 '인종화'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국가폭력의 '성정치의 기술(Technology of sexual politics)'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주 4.3의 무고한 희생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가 폭력의 성정치의 기술은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장소로서, 또한 폭력의 정치적 자원으로서 주민의 몸을 '여성의 몸' 혹은 '여성화된 몸'으로 기표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빨갱이 소탕'을 위한 고문 사례와 여성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빨갱이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성적 폭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달리 말하면 빨갱이로 명명된 제주도 주민의 인종적 타자성과 성적 타자성이 어떻게 국가폭력의 구조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이 글은 전시체제에 자행되는 인종말살 같은 주민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 폭력이 일상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제 폭력과 어떻게 동치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2. 빨갱이의 몸 - 반공국가의 모태

빨갱이에 대한 증오는 4.3의 경우처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을 합리화하고 지난 50년간 좌경분자 혹은 반체제 인사에 대한 고문과 테러, 살해 등으로 실천되어 왔으며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덕적 반공주의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정초로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국가폭력의 정당화는 푸코(M. Foucault)의 이른바 근대국가의 '생체통제정치(Bio-politics)'와 '죽음의 정치(Thanato-politics)'의 이율배반적 특성에서 연원한다. 여기서 죽음의 정치는 국가가 주민의 삶을 관리하고 조직하기 위한 생체통제정치의 일면이며 또한 주민에 대한 국가 폭력과 살상은 이러한 생체통제정치의 논리에 의해 합리화된다. 주민의 삶을 떠맡는 것이 임무인 국가 권력은 지속적인 조절과 교정의 기제로서 반공주의를 규준으로 주민의 자격을 정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규준화를 시행한다. 빨갱이에 대한 증오와 학살은 이러한 규준화를 추구하는 반공국가의 권력 기술 체계의 실천이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체통제정치로써 합리화된다. 제주 4.3의 대량 양민학살은 반공주의 규준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며 하나의 독립적 사회체로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즉 국가가 생명체로서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을 학살하는 모순은 근대성의 형해적(形骸的)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주민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국가에서 '주민의 몸'은 이러한 생체통제정치의 근본적인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된다. 근대국가에서 '주민의 몸'은 삶과 죽음이 혼융하는 '국가의 몸'으로 통합하는 정치기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정치의 목표는 국가 자체를 강화하는 일이다. 나찌의 유태인 말살정책이나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의 인종청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체제 안에서도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주민집단은 이러한 생체통제정치의 대상이 된다. 반공국가의 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빨갱이 소탕을 위한 장소로 선택되었고, 4.3이 성공적으로 진압됨으로써 고문과 살육으로 참혹하게 희생당한 '제주도 주민의 몸'은 역설적으로 반공국가의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모태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혈이 낭자한 상처받은 모태였다. 왜 빨갱이를 없애버려야 했는가? 국가의 공적 권력이 수행하는 파괴적 힘은 생산적 힘으로 변신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보전한다. 나찌의 유태인 말살이 독일민족의

피를 정화하기 위한 생물학적 규제였고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위한 정치기술이었다면, 마찬가지로 4.3 당시의 빨갱이 소탕은 반공국가 건국과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 지배와 통제의 정치기술이었다. 4.3 당시 '빨갱이 사냥'의 선봉대로 제주도에 파견된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는 붉게 물들었다"라고 제주도에 온 이유를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는 붉게 물든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되었다. 4.3이 발발하자 빨갱이가 사태를 유발했다고 예단하고 수 백명의 서북청년단원들을 대거 파견하여 토벌작전의 선두에 서게 한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소멸해야 한다"고 호언한 바 있다. 초토화 작전을 지휘한 9연대 박진경 대령은 "제주 백성이 아니라도 나라가 된다"며 빨갱이에 대한 인종청소를 감행했다. 그것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에서 새로운 '반공의 섬'으로 개조하려는 반공질서 창조의 기획이었다. 4.3의 대량학살은 이미 '죽음의 몸'으로 예정된 '빨갱이의 몸'에 대한 죽음의 정치이며 동시에 '국가의 몸'을 살리는 생명의 정치기술이었다. 이러한 대량학살의 길을 통해 반공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질서가 창조된 것이다.

3. 국가와 주민—화간(和姦) 관계

국가에 의한 반공폭력은 주민을 국가의 통치이념에 순응하는 '양순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정치기술이다. '빨갱이의 몸'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정복의 욕망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장소이며, 반공정치의 폭력을 행사하는 스펙터클이다. 또한 그 몸의 육체성은 빨갱이를 정복하고 굴욕감을 주고자 하는 폭력행위자에게 국가질서의 정화를 위한 정치적 투쟁의 강력한 자원이 된다. 토벌대나 서청이 빨갱이 혐의자를 장작 또는 쇠좆매로 개패듯이 팰 때 그 사람의 몸은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빨갱이라는 '인종적 몸'이 되는 것이다. "죽창을 휘두르며 투우사처럼 용감하게 좌익 아지트를 까부수는" 서청의 행위에서 폭력 자체의 쾌락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몸에 가해진 고문과 폭력의 직접적 경험은 그 피해자에게 폭력의 주체인 국가 강제력에 대한 '자포자기적 순응'을

유도한다. 4.3의 생존자들이 지금까지 "4.3을 짊어지고 살았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다른 사람처럼 쉽게 잊어버렸을 텐데"라고 증언하는 것은 폭력의 경험 자체를 망각하고자 하는 자포자기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몸이 굼주리고 절개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고통과 자포자기적 순응은, 상호반사적으로 폭력행위자에게는 빨갱이에 대한 공포를 정복하고 삶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의 자원이 된다.

죽음의 정복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러한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작가 현기영(玄基榮)은 '화간 관계'로 묘사했다. 현기영은 1978년 4.3의 진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소설 '순이 삼촌' 때문에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받은 경험을 "내 몸이 잉크빛으로 물들었"다고 증언했다. 매맞는 신체적 고통보다 '빨갱이 작가'라는 명명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더 컸다고 진술한 그는 고문의 상처로 인해 그후 9년간 침묵하다가 1987년 처음으로 당시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고문 체험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시점에서 현기영은 그 경험을 "똥개처럼 기었다"고 묘사하고 고문자와 피고문자의 굴욕적인 관계를 '화간 관계'로 표현했다. 고문자가 3일간이나 때리고 나서 무표정하고 냉담한 태도로 "사회에 나가거든 술이나 한잔하자"며 위로할 때, 피고문자인 그는 자신의 고통이 고문자의 유혹에 의해 "없었던 것처럼" 무화되는 절대적인 패배감과 무력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고문자는 "고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반드시 상처가 아문 다음에 피고문자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고문의 흔적이 없어진 피고문자는 자기 체험의 진위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게 되며, 더욱이 고문의 굴욕적 경험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문 경험 자체에 대하여 침묵하게 된다. 피고문자에게 고문의 사실을 잊도록 강제하는 이러한 고문자의 폭력은 피고문자의 몸을 '양순한 몸'으로 만드는 성폭력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4. 여성의 몸 - 성적환상과 반공폭력의 스펙터클

이른바 '빨갱이 작가' 현기영의 몸에 가해진 폭력의 고통과 자포자기적 순응

은 4.3 당시 강간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과 유사하다. '빨갱이년' 혹은 '빨갱이 가족'이라 하여 남편이나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대신 무고하게 학살당하고 고문과 강간을 당했지만, 그러한 피해와 고통의 경험조차도 침묵해야 하는 여성 피해자의 양상은 남성의 경우와 다르게 가부장제 성폭력의 양상이 부가되어 참혹성이 두드러진다. 빨갱이에 대한 증오와 남성의 성적 판타지가 교차하는 국가폭력의 정치기술은 '여성의 몸'을 '빨갱이의 몸'으로 재현하는 데서 나타난다. 여성 피해자의 몸은 빨갱이의 위협을 성적 기호로 각인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한 공포를 재현하는 장소가 된다. 달리 말하면 빨갱이 혐의가 있는 여성의 몸은 반공과 용공의 차이가 각인되는 몸이며 스펙터클인 것이다.

현기영이나 제주 여성의 경험은 국가폭력의 대상이 여성화되고 성화된 몸으로 기표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몸이 가진 생물학적 육체성에서 기인한다. 여성의 몸은 몸의 육체성, 즉 따뜻하고 흐르는 성질의 월경피와 생명 재생산의 자연적인 특질 때문에 양순한 몸의 중심적 은유로 사용된다. 제주도 주민이 여성화되고 성화된 몸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살펴보자. 빨갱이를 때려잡는 고문 방법 중에는 연행된 사람을 남녀 구분 없이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거나 불에 달군 쇠로 지져대는 고문이 있다. 왜 나체로 고문하는가? 채찍에 의해 살이 벗겨진 피고문자의 상처받은 몸은 고문자가 자신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폭력행위를 전시하는 '폭력의 몸', 또한 고문자의 성적 욕망이 각인되는 '성화된 몸'이다. 폭력의 몸이 성화된 몸으로 전환되는 실제 여성의 몸은 '빨갱이의 몸'이 갖는 여성성의 실체이며 또한 기표가 된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생명을 배태한 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폭력 행위자의 성적 환상이 실천하는 정치기술을 잘 보여준다. 하귀리에 사는 안인순(75세)의 동서(당시 21세)는 아이를 출산하는 도중에 우익 청년조직인 '하귀특공대'에 의해 학살당하였다. 아이를 출산하는 도중에 살해해야 할 다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의 몸은 생명을 배태한 몸으로 빨갱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임신한 '빨갱이의 몸'의 위험은 우선 빨간색 자체의 상징성과 생명을 배태한 몸, 그리고 출산하는 몸이 연상시키는

'피가 흐르는', '열린 몸'의 상징성에서 도출된다. 빨간색은 반역의 색이며 공산주의자의 색이다. 반공국가에서 정치적 금기의 색깔인 빨간색은 그것이 연상시키는 또 다른 이미지, 피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좀더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낸다. '빨갱이의 몸'은 흐르는 피에 의해 사회를 붉게 물들일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몸이며, 동시에 흐르고 침투하는 피의 성질과 결부되어 사회에 불온한 기운을 퍼뜨리는 선정적이고 매혹적인 몸이다. '빨갱이년'의 '열려진 몸'은 폭력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억압된 성적 욕망은 욕망의 대상을 고문하거나 살해함으로써 해소된다. '빨갱이년의 열린 몸'의 감염성과 선정성은 불온한 정치적인 위험으로 인식되어 안인순씨 동서를 서둘러 살해하도록 이끈 것이다. 임신한 '빨갱이의 몸'에 가한 폭력은 빨갱이 인종의 말살과 같다. 성적 욕망의 대상을 재빨리 제거함으로써 반공국가는 온전히 정화된 남성의 건강한 몸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빨갱이의 몸'에 대한 폭력은 인종화, 성화되어 나타난다. 간통하다 들킨 여성을 용공 혐의자들이 집결한 공공장소에 데려와 성행위를 강요하고 나서 국부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폭파시킨 사례라든지, 외딴 집에서 공포에 떨며 혼자 조용히 갓을 만들고 있던 입산자의 처를 집중 사격하여 사체의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사례는 '빨갱이의 몸'에 대한 가혹행위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발가벗기거나 굴욕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한 여성 개인의 몸은 빨갱이 주민집단의 '사회적 몸'을 상징한다. 간통한 여성 개인의 수치는 주민 집단 전체의 수치이며, 그녀의 몸을 폭파한 것은 수용 집단의 사회적 몸의 참혹한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여성의 국부 폭파 같은 잔혹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간통죄를 처벌하는 도덕적 응징이면서 동시에 주민 전체의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치적 기술이다.

이는 가해자의 비인도주의적 폭력을 피해자의 간통행위에 대한 정당한 폭력으로 의미를 전환함으로써 가해자들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다. 여기서 여성의 개인적 수치나 희생은 완전히 무시된다. 상처받은 여성의 몸은 가해자의 폭력의 몸에 귀속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 여성의

'고통받는 몸'의 비가시성 자체가 국가권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자원이 된다.

5. 고통받는 몸과 가부장제 폭력

제주도의회 4.3 피해신고실이 열린 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른바 폭도가족으로 낙인찍힌 경우 피해 신고를 꺼린다. 4.3의 피해에 관한 증언은 대부분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 제3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여성 피해자 가운데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 없다. 특히 강간을 비롯하여 성적 유린에 관한 증언은 주로 남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피해는 모두 간접 체험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침묵할 때 남성들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만이 공식화된 언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4.3 당시 보편화되었던 성고문의 방법은 여성을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쇠줏매로 때리는 것이었다.

토벌대의 경찰간부였던 김호겸은 특별수사대 대장 최난수의 이러한 만행을 목격한 사람으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김호겸의 증언 바로 다음에 제시된 직접적인 성고문 피해 여성의 증언에는 '나체' 부분이 빠져 있다. 김호겸이 여성을 '나체로 매달았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반면, 여성 증언자는 단순히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았으나 혐의가 없어 살아나온 사실을 강조한다. 생존의 사실에 비중을 두는 증언이다. 여성의 침묵과 남성의 증언 사이에는 성고문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여성이 고통을 당하는 자라면 남성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구경하는 객관자이다. 여성은 자신의 찢겨진 나체를 바라볼 수 없다. 나체의 고통을 느낄 뿐이다. 상처난 몸의 고통을 몸 안에 지닌다. 고통의 주체와 객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몸의 고통은 몸 그 자체로 밖에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것이 고통의 재현의 한계이다.

1998년 4월 1일 제주 4.3 50주년 기념 도민 해원상생굿에서 유족을 대표하여 4.3의 피해를 증언한 김양학(남, 58세)은 토산리 주민 157명의 집단학살에 덧붙여서 마을 여성들이 토벌대에 의해 9일간 당한 집단적 성적 학대에 대해 언급

했다. 직접 체험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증거 자료를 남기려고 김씨는 자신의 친구 어머니에게 접근하였으나, 그 사건에 대해 말만 꺼내면 혼절하는 바람에 실제로 직접 증언을 들은 적은 없다. 피해 여성들은 그 사건이 "너무 지긋지긋한 사건"이어서 "육신이 떨려 말하지 않으려 한다"고 김양학은 전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성 피해자가 혼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공포 때문이다. 몸 속에 갇혀 있는 고통은 고문이다.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스캐리(Elain Scarry)는 고통이 언어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고통의 원초적 자리는 상실되고, 즉 폭력의 객체로서 몸은 상실되거나 파괴되고 오히려 가해자인 폭력적 주체는 바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고통의 자리를 망의 자리로 환상화한다고 말한다. 여성의 성폭력 경험을 증언하는 남성의 이야기는 성폭력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적 사건으로 각본화하여 성폭력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위험이 있다. 앞서 제시한 간통 여성의 국부 폭파 같은 사례도 남성 목격자가 간접적으로 증언한 것이다. 이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너무 세밀하고 적나라한 성폭력 광경의 묘사'를 통해 남성 증언자는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피해 여성들이 이미 죽었거나 상처받은 몸 안에 갇힌 채 침묵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험을 '수치심' 없이 증언하는 남성의 언어는 가부장제 폭력의 행위가 된다. 그것은 피해자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도덕적 모욕감을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여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여성의 순결과 정조에 대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조와 모성은 공동체 정체성의 보루이며 여성의 몸은 가족이나 친족 같은 가부장제 집단의 사회체(social body)에 귀속되기 때문에, 여성의 수치와 모성의 파괴는 공동체 전체의 수치이며 상실이 된다. 집단 강간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침묵은 가부장제 사회를 수치에서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4.3의 전시상태에서 발생한 여성 피해는 평화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는 피해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고통받는 몸과 침묵으로 강제된 몸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여성

의 고통은 국가가 대표하는 남성의 성적 환상의 결과이다. 이제 여성의 몸에 기표화된 국가폭력의 성적 환상을 해체하기 위해서 여성은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말해야 한다. 피해자 여성 개개인이 경험에 대해 직접 말을 하는 것은 몸 안에 갇혀 있는 고통을 해방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여성의 몸에 각인된 집단체로서 국가가 가지는 권력의 경계를 지워버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제주 여성의 고통받는 몸을 가시화하는 것은 4.3의 무고한 희생을 가시화하는 첩경이다. 그것은 반공국가에서 '빨갱이'의 인종적 말살이 제주도 주민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과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제 폭력으로 실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4.3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은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 즉 인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4.3의 대량 학살과 성폭력을 자행한 폭력 행위자-직·간접적으로 폭력행위에 참여한 집단 혹은 개인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명령하고 정당화해주는 기구, 국가 자체-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그 책임은 희생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며 종국에는 무고한 희생의 진실을 알리고 배상하는 일이다. 그러한 일은 고통받는 몸에 대한 예의이며 우리 사회 인권신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결혼 과정에서 드러나는 군 '위안부'의 경험

일본군 성노예의 경험이 결혼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왜곡, 굴절되어 표출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피해자들이 갖는 현재의 자기 인식과 정체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는 일본군 성노예 정책의 비인도적인 면과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1. 떳떳하지 못한 몸

해방 후 성노예 경험을 가진 많은 여성들은 떳떳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 역시 성노예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특히 혼인 연령에 다다른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노예의 경험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귀국하고 부모님 곁에서 몇 년 있었다. 부모님에게는 중국에서 식모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도 혼자 산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를 시집 보내려고 성화였으나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가 위안부였는데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내가 위안부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공부도 하고 공장에도 취직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고향에 돌아온 지 1년만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왔다.

성노예 경험자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로 남는 것은 바로 순결 문제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특성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이란 순수 혈통으로 가문의 맥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 결과 순결의 상실은 여성의 인간적 가치 상실로 직결되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여성 자신의 가치와 정체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이란 곧 '처녀성' 유무에 따른 판단이다. '혼전 순결'을 잃은 여성은 정상적인 삶에서의 일탈자로 취급되며, 사회에서 일탈자는 곧 죄인이라는 등식이 동시에 성립한다. 대부분이 1920, 30년대 출신인 성노예 경험자들은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로서 '순결'을 여성의 도리와 덕목으로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내가 일본군들이랑 그렇게 한 것은 강제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내가 당연히 창피스럽고 죄스러운 느낌이 들지. 내가 옛날 일본에 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고 군인들한테 몸을 함부로 내줬다는 게.

그게 강제더라도, 내가 좋지 않았는데 그게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처녀가 아닌 것은 당연하지. 그건 나뿐이 아니고 다른 할머니들이 시집을 간다고 해도 양심에 가책이 돼요. 내가 그렇게 몸을 더럽게 굴렸는데 남자 보기도 창피스럽고 미안도 하고 안 그러겠어? 여자라면...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가치가 이미 내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으로 되돌아온 피해자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러한 죄책감을 더욱 강화하고, 성노예의 경험을 허용하지 않는 완고한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은 자기 인생에서 결혼을 더욱 먼 거리로 밀어놓게 한다.

임질에 걸려서 606호 맞아봤어. 그리고 그건 예비적을 놔야 된대. 팔에 그거 맞으면 냄새가 독한데 팍 쏘는 거 같아. 무지하게 독해. 그거 맞고 나면 얼굴에 열이 팍 올라. 그거 맞으면 애도 못 낳는대. 3번을 맞았어. 일 년에 한 계씩.

거기 갔다 온 여자는 아이를 못 가져. 그렇게 못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겠어.

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출산에 두고 있는 사회에서, 특히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당시 여성들 대부분에게 자신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생존의 방편이었던 사회에서, 성노예 경험자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은 전 생애에 대한 불안과 좌절이기도 한 것이다. 성노예 경험의 흔적인 성병은 결혼을 포기하게 하거나 결혼, 동거 후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나 동거의 경험은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기존 가족 질서에서 배제되어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준 결과 이상의 의미를 남기지 못한다.

결혼할 때 정신대 갔다 왔다는 걸 어머니가 이야기했지. 정신대에 근로자로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거야. 위안부로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도 이미 처녀가 아니라고 짐작했겠지. 성병을 옮겨 줬다고 때맞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런 걸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진찰을 받으니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죽었대. 꺼내 보니까 고추 달린 아인데 얼굴부터 몸 반쪽이 이미 썩어 있더라고. 그게 균 때문에 그렇대. 한 6~7개월 된 아이였지... 병 옮았다고 거기서 나를 두드리고 때도 실컷 얻어맞고 내가 울면서 보따리 싸 가지고 집으로 왔지.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 가장 유일한 생존 대안이 되고,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순결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성노예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은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한 것이다.

2. 정상적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서러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결혼이다. 이것이 성노예 경험자들이 남성들에게서 겪은 '지긋지긋'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희망했던 이유이다. 그리고 결혼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피해자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는 것을 피한다. 때문에 이들에게 '동거', '첩', '후처'의 형태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시집가는 건 생각도 못했지. 1.4후퇴 때 청주에서 17년 연상의 할아버지를 만나 동거인으로 살았지. 남자가 실어서 의가 좋지 않았어.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있어야 되겠기에 같이 살았지.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누구라도 의지해야 되니까. 그 할아버지는 6년 전에 74세로 죽었는데 이젠 그 아들을 수양아들로 여기며 의지하고 살고있지.

6·25 전에는 장사하다가 당시 부인은 이북 사리원에 있어 자식만 있는 사람을 만나 같이 살았어. 내가 이미 당당히 결혼 할 수 없는 몸인데 그냥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사람이 좋아 살았지. 내가 그 자식들 돌보고 가까운 곳에 따로 살고 있는 시부모 살림도 돕고 살았어.

의지할 대상으로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해준다. 그것은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것과도 별개의 것이다. 성적인 상대로서 필요한 남자의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증언대로 단지 '남자'라는 이유 하나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라는 존재는 '물건'의 소속처를 알려주는 주인의 의미를 갖는다.

3. 되살아나는 기억들

성노예의 경험의 중심은 군인들과의 '성행위'에 관한 부분이다. 때문에 귀국 후 이들이 경험하는 '성관계'는 많은 갈등과 고통을 빚게된다. 처나 첩이 되어 맺는 남성과의 고정적인 관계는 여성의 성적 소유권이 남성에게 전환됨을 의미한다. 피해자 여성에게 함께 사는 남성과의 성관계는 과거 경험과 맞물려 거부와 공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올 수 없으며, 또 성폭력의 경험은 성활동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게 만든다. 이는 성노예의 경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한다.

나를 아껴주고 처녀인가 아닌가로 별로 문제삼지 않아도, 같이 살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일본에서 놈들한테 당한 것 때문에 그게 지긋지긋 한거야. 같이 자긴 자는데 별 흥미가 없고 거기서 겪은 것이 떠오르고.

결혼을 했다는게 후회스럽고 왜 어머니를 나를 결혼시켰나하는 원망마저 들어. 마음적으로 결혼을 해도 거기서 당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와. 그러니깐 남자 달겨드는 것이 싫어 아주 싫어. 거기서 당하는 거 마냥 자다가도 깜짝 놀래지고. 아주 자다가 질겁을 하면 거기 생각이 나서 악을 쓰다시피 하지. 그러다 불안해 지고 엉겁이 무서워지는 거야. 거기서 겪은 공포증에 엉겁이 무서워지는거야. 같이 산 지 한 2년도 못가서 불안해지기 시작해. 입에 오기만 해도 내가 정신을 못차리고.

증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성노예 경험의 피해의식은 일상생활에서 강화된다. 성노예 경험으로 인한 분노, 슬픔, 수치감 등의 감정은 죄책감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죄책감은 단순한 침묵으로 위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불안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은 자책감마저 남겨놓게 된다.

난 결혼해서 하나도 재밌는거 없어. 겐히 공포증에 얼어만 했지. 남자하고 자는

거. 아휴. 밤이면 지옥같아.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것이 좋아. 결혼 안하고 살았으면 그 고통은 안 당했을 거 아냐. 또 그렇게 마음 좋이고 살지도 않지. 내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걸 말로 못하고. 싫은데도 억지로 상대해야 하잖아. 달겨드는데 어떻게 해. 그걸 내 맘 속에서 그냥 속이고 사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고. 죄 짓는 거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성윤리 중 하나는 아내는 자신의 욕구와 무관하게 남편의 성적 욕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하는 것을 아내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러움은 결국 환갑이 지난 나이에 후처의 자리로나마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게 하는 강한 요구가 되었다.

성노예의 경험은 결혼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그 생활에서 밀어내는 주요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

4. 불안한 생계

취업 사기로 위안소로 가게 된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성노예 경험자들의 귀국 후 생활은 생존의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었다. 도리어 성노예 경험으로 얻게 된 병은 생계를 더욱 어렵게 했다.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대인관계 기피증 등의 후유증은 직업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는 경제적 빈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했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같이 살아도 일 년씩은 나갔다가 생각나면 들어오고...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생활비는 내가 벌 짓 다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내가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놋그릇하고 스텐드하고도 바꾸고 이불 장수도 하고 갖은 장사 다 해봤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나은데 그렇게 고달픈데도 애 아버진데 어쩔 수 없지. 돈 벌면 뭐해.

돈도 안 갖다 주고.

함께 사는 남자에게서 받는 경제적 요구는 압박과 강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사례에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노예 경험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할 '죄값'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굴 탓해. 다 내가 죄 많은 탓이야. 그래도 그런 날 데리고 살았는데. 알 거 아냐. 내가 처녀 아닌거.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얌전히 있다가 결혼했으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강하며 살겠지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첩 살림하면서 남자한테 마누라한테 하듯이 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출산이 가능하여 아이를 낳았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 방편이라는 것이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노예 경험자들의 빈곤은 그들의 열악한 경제 상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인식, 가족 등 재충전할 공간의 부재, 운명론적인 체념적 경향들이 맞물려 낳은 실제적인 결과인 것이다.

5월 공개 세미나

주 제 : 한국 매매춘 실태

관 련 자 료

1.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 변리나

2. IMF이후 산업형 매매춘에 진입한 여성 사례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 매춘여성의 탈매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어려움
   : 정연순 (변호사, 열린 전화 자문위원)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변 리 나

1. 배경과 목적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매춘여성[2]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매춘 여성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매춘여성을 정형화시켜 한가지 모습, 즉 몸을 파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규정한다. 다만 매춘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유입동기의 자발성 여부에 의해 성폭력이나 가난 등에 의한 '타의에 의한 매춘'인가 혹은 스스로 매춘지역을 찾은 '자의에 의한 매춘'인가를 구분하는 정도일 것이다. 즉 팔자가 드센 불쌍한 매춘여성과, 쉽게 살려고 향락을 찾는 타락한 매춘여성이라는 또 다른 이분화이다. 이런 시각은 매매춘 문제를 유입 동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매매춘 문제의 근본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부 매춘과 직장여성 매춘은 자의에 의한 매춘, 즉 타락한 매춘여성으로 분류되어 매매춘 문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의 매춘 유입 동기와 매매춘 환경의 문제점을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형태의 매매춘이 있고 매춘여성이 처한 환경에 따라 문제점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매춘여성의 다양성 안에서 업소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몇 가지

2) 매매춘이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글에서 매춘(賣春)여성이란 성을 파는 여성을 말하며, 매춘(買春)남성이란 성을 사는 남성 즉 '손님'으로서의 남성을 의미한다.

로 나누어 구체적 생활 형태와 매춘여성의 억압 그리고 매춘여성이 갖고 있는 인식 등을 통해 매매춘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탈매춘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매춘여성들과 생활을 하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기초로 한다.

2.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가. 매매춘 유형의 다양성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매춘여성이란 술집 등의 유흥업소나 매매춘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춘여성은 그 여성이 어떤 유형의 업소에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는 상관없이 매춘여성(또는 창녀, 윤락여성)으로 불리워진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가 바라보는 매춘여성의 모습과 이름일 뿐 실제 매춘여성들은 다양한 매매춘 환경과 다양한 이름 그리고 생활 방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스스로를 '매춘여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매춘여성 스스로는 자신들을 차별화시켜, 룸싸롱이나 나이트 클럽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테스'(호스테스)나 '빠순이', 또는 '댄서'라고 말하고 매매춘 밀집 지역에서의 매춘여성들을 '창녀'라고 부른다. 한식집이나 요정에서 일하는 매춘여성들은 스스로를 '기생'이라고 부르며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오봉순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춘여성 집단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매춘여성 집단의 이름이 이렇듯 다양하다는 것은 곧 각각의 집단을 찾는 매춘 남성집단도 다양하며, 매매춘 구조를 둘러싼 착취의 형태와 구조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여성들이 이렇듯 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불리는 것은 매춘문화에도 다양성과 위계질서가 있음을 말해 준다. 전체적 매매춘 문화 안에서 매춘여성들은 이름이 다른 매춘여성과 권력 다툼을 하고 집단의식으로 차별화하고 있

으며 타 집단을 배척하는 경향도 있다.

한 여성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매춘을 하느냐는 그 여성의 미래를 바꿀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매춘을 구분할 때 여러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생활방식에 따라 간략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나. 매매춘 유형에 따른 매춘여성의 생활

매춘여성의 생활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숙소 생활을 하는 형태와 출퇴근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매춘여성이 숙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업주와의 채무관계와 잦은 지역 이동 때문이다. 업주(또는 소개소)와 채무관계가 있는 매춘여성은 상품적 가치에 의해 타 지역으로 매매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된 집을 갖지 못하고 업주가 마련해 주는 숙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숙소 생활이 지방일수록 더 많은 것은 매춘 남성이 적은 소도시에서 매춘여성은 쉽게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매춘 남성이 많은 지역으로 잦은 이동을 하며 수입을 늘리는 매춘여성이 있긴 하지만 소수이다. 돈을 모으기 위하여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다. 숙소 생활은 업주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출퇴근이 자유로운 생활 형태의 매춘여성은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경우인데 업주에 의해 가끔 지방으로 매매(賣買)되어 일을 다니며 숙소생활을 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매춘 생활을 하면서 숙소 생활과 자유로운 생활형태를 반복한다. 숙소생활을 한다는 것은 업주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숙소 생활을 거부한다.

1) 룸싸롱 /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의 경우 나이트클럽 직영으로 매춘여성들을 고용하는 경우와 멤버

(룸싸롱의 경우 웨이터나 큰마담)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

멤버는 투자되는 것 없이 이권이 많기 때문에 이권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그 지역의 건달들이 한다. 멤버는 월급제로 마담을 고용하고 마담은 매춘여성들을 고용한다.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은 빚이 있기 때문에 멤버는 사채업자를 마담과 연결을 시켜주어 매춘여성을 모으는데 이자는 월 10%가 대부분이다.

나이트클럽 매춘여성의 수입은 보통 월 200만 원 정도이다. 지출을 살펴보면, 매춘여성은 팁과 매매춘 수입의 10%를 멤버에게 주어야하고 한 달에 한 번 멤버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멤버에게 준다. 그리고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 숙소비로 2-30만 원을 준다. 마담의 경우 월급으로 멤버에게 1-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나이트클럽의 경우 지정된 의상은 특별히 없지만 마담과 멤버는 고액의 의상을 요구한다. 그 외 지각비와 결근비 등 많은 착취가 있음에도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닫힌 공간이 아닌 넓은 공간(나이트클럽 손님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남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고 육체적 서비스(남성이 술을 마시는 도중 매춘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춘남성의 대부분이 젊다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멤버는 매춘여성을 고용할 때 나이트클럽 특성상 키가 큰 여성을 선호한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은 멤버가 없는 대신 마담이 멤버의 역할을 한다.

룸싸롱의 경우도 업소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와 마담이나 웨이터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부분에서 나이트클럽의 운영방식과 비슷하다.

룸이라는 일정한 공간에 갇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매춘 남성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야 하며 육체적 괴로움을 당하며 많은 술을 마시는 등 나이트클럽에 비해 힘이 들지만 매춘여성이 룸싸롱을 선택하는 이유는 룸싸롱에 오는 남성이 대부분 돈이 많은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기회에 따라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클럽 손님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남성에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춘여성임이 노출되지만 룸싸롱의 경

우 매춘여성과 매춘 남성만의 관계이다 보니 비밀이 유지될 수있다. 그리고 룸싸롱의 경우 키가 큰 여성보다 작고 얼굴이 예쁜 여성을 선호한다.

2) 숙박업소 / 목욕업소

숙박업소로는 여관이 있고 목욕업소로는 증기목욕탕(일명 터키탕)과 안마시술소가 있다. 여관이나 여인숙(이하 여관)의 매매춘은 여관에서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보다는 보도사무실을 통한 매매춘이 더 많다. 여관을 찾는 남성은 여관비를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데 보통 5-7만원 정도이다. 매매춘 비용은 여관과 보도사무실, 여성이 나누게 된다. (숙박업소의 경우 대부분은 보도 사무실을 통한 매춘이다. 보도 사무실은 별도로 다시 언급하겠다.)

증기목욕탕의 경우는 주로 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다는 것 외에는 매매춘 비용과 분배법은 숙박업소와 비슷하다. 증기목욕탕의 특성상 비밀이 유지되므로 자신의 매춘을 숨기고 싶은 남성들이 주로 찾는다. 매춘여성의 경우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의 특성상 힘이 들지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빚이 많은 매춘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매춘여성이 대부분이다.

3) 매매춘 밀집지역

매매춘 밀집지역은 전국적으로 매춘남성의 유동인구가 많은 역전 근처엔 대부분 있다.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와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매매춘 밀집 지역은 많은 업소와 매춘여성이 대규모로 있다는 특성상 연령폭이 넓고 생활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매매춘의 종합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매매춘 밀집 지역의 매매춘 업소는 개별 업소에 비해 단속을 피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불법영업(미성년자 매매춘, 여성 성기를 이용한 쇼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시간은 24시간 일을 하는 곳이 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는 업소가 있으며 매춘여성의 수입도 지역과 업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기본월급이 책정된 상태에서 한 매춘남성 당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 월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수입이 되지만 의상비, 숙소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이 된다. 많은 매춘 남성을 상대하는 것에 비하여 수입은 작은 편이다. 빚에 대한 이자율은 원금의 월 10% 정도가 가장 많으며 사채 업자 대신 업주가 하는 경우가 많다.

매춘여성이 자발적으로 매매춘 밀집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남성과 특별한 관계(대화, 서비스 등) 없이 단지 매매춘을 한다는 것 때문이며, 타의적인 선택은 업주(소개소)에 의해 매매된 경우와 인쇄 매체(생활정보지, 길가에 붙어있는 전단 등)에 의해 속아서 오는 경우이다. 인쇄 매체에 의해 유입되는 여성은 대부분 가출 여성인데 숙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들은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매춘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매매춘 유형보다 폭력이 잦아 존엄성 상실이 크며 매춘 생활에 자포자기 상태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4) 무허가 소개소(보도 사무실, 직업소개소)를 통한 매춘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춘 형태는 과거 오래 전부터 숙박업소와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에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숙박업소의 매매춘은 대부분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얼마전 매스컴에서는 보도사무실 등(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을 통한 주부, 직장여성, 여학생 매춘 문제를 신종 매춘이라며 매매춘 문제가 예전의 타의에 의한 매춘과는 달리 즐기기 위한, 자의에 의한 매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매춘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모순 투성이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매매춘 형태로서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춘이 성업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허가 매매춘 소개소(보도 사무실, 결혼소개소, 직업소개소 등)의 확산은 현 매매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춘은 기존의 한 업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억

압이 따르는 매춘과 자유 의사를 갖는 독립적인 거리 매춘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성상 독립적인 매춘보다 고정된 수익을 보장받으며 억압받지 않는 형태의 매춘이라는 점에서 대규모로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보도 사무실은 직업소개소와 함께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직업소개소(이하 소개소)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개소는 매춘여성을 업소(유흥접객업소, 다방 등)에 한 달을 기간으로 소개해 주고 대가로 소개비(건당 3-40만원)를 업주에게 받는다. 소개소에 속한 여성은 대부분 매매춘 구조에 따른 빚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채 많은 지역에 매매(賣買)를 당하며 소개소와 업주에 의해 많은 경제적, 육체적 착취를 당한다. 소개소 여성은 한 달을 계약으로 업소에 묶여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데 만약 여성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개비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소개비를 통해 더 많은 착취를 하려는 소개소에 의해 매춘여성은 한 달을 기준으로 자주 이동하게 된다.

본래 소개소의 목적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성의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매매춘 알선이 주 역할이 되었다. 업주들이 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춘여성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빚이 많은 매춘여성의 경우 소개소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개소는 미성년자를 업소에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소개소는 위조된 보건증이나 주민증을 만들어 취업을 시키게 된다.

소개소를 전전하다 빚이 많아진 여성은 산업형 매매춘 지역에 장기적으로 넘겨지기도 한다. 매매춘 소개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더 확산되어 있다. 지방일수록 고용관계의 전통형 매매춘이 확대되어있기 때문이다.

보도사무실(이하 보도)은 유흥접객업소(이하 업소)에 매춘여성을 일정액의 소개비를 받고 한 남성의 파트너로 일회(소개소 한 달 기준, 보도 하루 일 회 기준) 소개해 주는 일을 한다. 따라서 보도는 구태여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 가정집이나 작은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무선 연락으로

통하기도 한다. 지방의 경우 오래 전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는 매춘여성을 고용하기 힘든 단란주점 등에서 보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소규모 룸싸롱이 많은 지역, 주로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 지역보다 단란주점 등이 많은 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남 지역에서도 유흥업소가 발달된 송파구, 강남구에 더 많다.)

보도는 많게는 30명 이상 매춘여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등 업소에서 고용되어 일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는 여성(미성년자, 외모로 인해 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여성, 직장여성 등)들이 대부분이다. 보도는 가출한 여성 등 숙식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원금 백만 원에 2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사채를 연결시켜 주어 쉽게 월세방(일수방)을 얻도록 유도해 지속적인 매춘을 강요하고 있다.

보도의 매춘여성 확보는 주로 보도에 속해 있는 여성이 친분이 있는 학교나 지역의 친구들을 보도에 연결시켜 주거나 벽보 등 인쇄 유인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규모가 큰 유흥접객업소는 자체적으로 여성을 고용(지정)하여 매춘여성을 통해 단골 남성 유치에 신경을 쓰지만, 보도와 연대하는 업소는 대부분 크지 않은 소규모의 업소로 소수의 고용된 매춘여성과 보도여성을 함께 유치해 단골 남성의 확보보다 일회성 매춘에 초점을 맞춘다.

보도가 확대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략 업소 · 매춘여성 · 보도사무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① 업소의 입장 : 업소는 자체적으로 매춘여성을 고용하지만 여성의 수가 부족할 때 보도를 통해 쉽게 단발적으로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 가령 매춘남성 10명이 업소에 왔을 때 매춘여성이 7명뿐이라면 업소는 보도사무실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매춘여성이 있을 때 관리가 어려운 업소는 소수의 매춘여성만을 고용하고 필요에 따라 보도를 통해 충당하며, 보도를 통해 오는 매춘여성들이 대부분 남성들이 선호하는 미성년자라는 점 역시 업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매춘여성을 업주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춘여성이

지고 있는 빚을 책임져야 하는데 보도를 이용할 경우 업주는 부담감이 없을 뿐더러 소개소를 이용했을 때 필요한 소개소 비용도 절약이 된다.

② 매춘여성의 입장 : 보도를 통한 여성은 업주에게 고용된 매춘여성에 비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업소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매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업주에게 직접적인 억압을 받지 않으며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에 비해 매춘 남성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업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탈매춘이 가능하며 매춘여성이라는 죄의식이 약하다.

③ 보도사무실의 입장 : 보도 사무실은 매매춘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단속에 걸릴 확률도 적고 투자되는 비용이 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도사무실은 산업형 매매춘 지역이 아닌 단란주점이나 작은 규모의 술집이 있는 유흥가에 많이 있다.

보도를 통한 매춘여성은 직업적으로 고용되는 기존의 매춘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보도를 통해 매춘을 경험한 여성은 점점 매매춘의 구조에 젖게 되고 탈매춘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타의적이고 장기적인 매매춘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도사무실의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특성에 기인한다. 미성년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보도가 기존의 소개소 운영방식으로 발전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다. 착취구조와 매춘여성의 대응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속해있는 매매춘 형태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매매춘 형태에서 두드러진 폭력은 경제적 착취이다. 경제적 착취는 매춘여성의 빚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탈매춘을 어렵게

만든다. 매매춘업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금품착취 또한 매춘여성의 착취로 이어진다.

많은 경우, 경제적 착취는 매춘여성의 빚을 늘리고 빚이 늘어난 매춘여성은 업주간의 매매 대상이 된다. 업주간에 여성을 매매할 경우 갑자기 빚이 늘어나는데 이는 업주가 여러 이유로 빚을 늘려 타 업주에게 매매를 하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일을 쉬게 하여 이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매춘여성과 서로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일이 힘들어 도망을 치게 되면 연대보증을 섰던 여성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도망을 쳤다가 잡히면, 업주는 찾는 데 든 비용으로 보통 하루 10만원 이상의 빚을 늘린다 (도망친 여성을 잡아 다른 업소에 매매하고도 연대보증을 섰던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씌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 착취와 함께 매춘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매춘 남성들의 폭력이다. 매춘남성은 여성을 돈으로 샀다는 이유로 일정시간 동안은 여성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남성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과 매춘여성을 노예화시키는 비정상적인 성 체위는 매춘여성에게 심한 자멸감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며, 매춘남성의 남근에 삽입된 이물질은 매춘여성에게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손상을 가져온다.

이밖에 물리적 폭력도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업주와 마담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은 매춘여성의 몸과 마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파괴시켜 탈매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매매춘 지역에는 많은 종류의 폭력이 존재하지만, 매춘여성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춘여성이 직접적으로 폭력에 대응을 할 경우 생계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매춘여성은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매매춘 유형별 폭력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룸싸롱 / 나이트클럽

경제적인 착취가 두드러진다. 같은 업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성간에는 많은 수입의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멤버, 마담, 웨이터(이하 멤버)와의 관계 때문이다. 멤버가 매춘남성과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춘여성과 멤버의 관계가 원만해야 경제력이 있고 매너가 좋은 상대 남성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멤버가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매춘여성의 수입은 없게 된다. 때문에 매춘여성은 보통 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멤버비를 30만원 이상 상납하게 된다. 그리고 팁도 멤버와 자주 분배를 하고 의류 등의 선물을 상납하게 된다. 또 멤버는 고액의 의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해서, 상인으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챙기며 매춘여성을 착취한다. 멤버비가 없는 룸싸롱의 경우도 형태만 다를 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멤버들의 착취를 매춘여성 스스로 해결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 외 다양한 경제적 착취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접대라는 명목의 매춘이다. 접대란 멤버의 명령으로 멤버가 지정하는 남성과 무조건 대가없이 매춘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불응하면 멤버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매춘여성은 심한 수치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응하게 된다. 그 외의 물리적 폭력도 많이 존재한다.

2) 매매춘 밀집지역

매매춘 밀집지역의 경우 하루에 많은 남성과 매매춘을 하고 정확히 책정된 매매춘 가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춘여성 역시 정확한 자신의 수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한 업주들은 거짓 장부를 만들어 매춘여성의 수입을 착취하게 된다. 그리고 매춘여성이 정확히 자신의 수입을 알더라도 업주는 숙박비, 치료비, 약값 등 많은 이유를 대며 수입을 주지 않거나 속여서 착취를 한다. 다른 매춘 형태보다 언어적, 육체적 폭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라. 매춘여성의 의식 : 순결관과 결혼관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는다. 그들은 언제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구체적으로 돈을 모아 어느 곳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못한다. 흔히 매춘여성들은 돈이 조금 모이면 작은 카페나 옷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여성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매춘여성 스스로 느끼는 매춘유입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하면 결국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아진다. 매춘여성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여성'은 좋은 남성 즉 경제력이 있고 가정적인 남성에게 선택되어 결혼해 가정을 만든 여성이다. 그리고 좋은 남성에게 선택될 수 있는 여성은 '순결하고 많이 배우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예쁜 여성' 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상품적 가치를 이미 내면화한 매춘여성은 결혼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매매춘 지역의 착취로 인해 생각만으로 남아버리고, 자립을 포기한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끊임없이 남성을 찾아다니게 된다.

매춘여성은 끊임없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좋은 남성에게 선택되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을 소유한 기혼여성을 나름대로 규정지어(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성,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모르는 한심한 여성 등) 자신보다 불행한 여성이라고 자위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장에서는 매춘여성의 순결관과 결혼관을 중심으로 매춘여성이 갖고 있는 태도와 의식을 살펴보겠다.

1) 매춘여성의 순결관

매춘여성들은 순결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 강하며 매춘에 대한 죄의식이 심하다.

룸싸롱이나 나이트클럽 등의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은 성 관계만을 위한

매매춘 업소의 여성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데 이유는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다. 자신들은 처음 보는 남성손님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하에 성을 팔지만 성관계만을 위한 매매춘 업소의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성을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더럽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하루 몇 명의 남성과 매매춘을 했는가도 크게 작용하는데 룸, 나이트클럽의 여성들은 자신이 하루 평균 1명의 남성과 상대하는 것에 비해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매매춘 지역의 여성을 더 더럽다고 생각한다.

매춘여성은 매춘남성과의 입맞춤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매춘여성의 순결관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매춘여성들은 남성에게 입술을 허락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순결하다고 위안을 받는다.

즉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매춘여성의 성 의식 역시 우리사회의 강한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고 있으며, 나름대로 순결의 기준과 위계를 규정해서 상대적 순결성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욕구를 보여준다.

2) 매춘여성의 결혼관

매춘여성은 결혼을 거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을 원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이 결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더럽혀졌고 더럽혀진 여성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는 매춘여성은 대부분 동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매춘여성의 동거는 매춘여성의 결혼관을 보여준다.

첫 번째 유형의 동거는 건달과의 동거이다. 위계질서가 심한 건달조직에서 매춘여성은 건달과의 동거로 인해 새로운 이름(형수님, 제수씨 등)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게 된다. 건달과의 동거는 강한 남성에 소속됨을 의미되며 또한 '현모양처'를 연상시킨다. 매춘여성은 동거남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매춘을 거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생활비는 늘어나(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매춘여성이 부담한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건달 남성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춘여성이 건달과 동거를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희생과 순종을 깨끗한 여

성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와 건달과의 동거를 통해 얻어지는 매매춘 지역에서의 기득권 때문이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두 번째 동거 유형은 유흥업소 종사자(웨이터, DJ, 삐끼 등)와의 동거이다. 매춘여성과 함께 업주의 억압을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남성은 매춘여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쉽게 동거로 발전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의 동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거를 경험한 매춘여성은 반복적인 동거를 원하게 된다. 이 유형은 다른 동거관계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건달과의 동거와 마찬가지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유부남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과의 동거 등 많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동거 유형은 건달이나 유흥업종사자 남성과의 동거이다.

정치적, 경제적, 인격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매춘여성은 많은 남성에게 소유되면서 자신을 잃어간다. 동거는 이러한 잃어가는 것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많은 남성에 의한 소유를 거부하고 그 대신 동거의 공간 안에서 최소한의 인격적 만족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3. 탈매춘을 위한 제언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탈매춘을 원하고 있다. 빨리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탈매춘 동기를 갖지 못하는 매춘여성들에게 매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음뿐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탈매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매춘 후 다시 매매춘 지역으로 유입되는 여성이 흔히 보이며, 그들은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즐기는 나쁜 여성이라고 비난받지만 대안이 없는 탈 매춘은 장기적일 수 없다. 소수의 경우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탈 매춘을 하지만 결혼 후 여성의 매춘의 경험은 여성자신의 죄의식과 남성의 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탈 매춘 역시 실패할 요소가 많다. 부모에 의한 탈매춘의 경우 역시 매춘의 동기가 되었던 가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다시 매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자의적인 탈매춘을 위해서는 업주와 채무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빚을 만드는 매매춘의 구조로 인해 탈매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돈을 벌어 탈매춘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탈매춘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번째는 매춘여성 스스로 유입동기[3]를 찾아내고 탈매춘의 강한 동기를 갖는 것이다.

매매춘 문제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은 매춘여성의 유입 동기로 여성억압(강간, 가정폭력, 가부장제도 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매춘여성에게 유입동기를 물어보면 "어쩌다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매춘여성의 경우, 자신의 명확한 유입 동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 매춘의 동기 또한 갖지 못한다. 여성운동가들이 매춘은 매춘여성의 잘못이 아니라고, 매춘여성은 가부장제도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도 매춘여성들은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매춘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강간을 당한 것도, 엄마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것도, 매춘을 선택한 것도 모두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춘여성은 자신에게 일

3 매매춘 지역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간접적 매춘 유입동기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대부분 매춘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매춘여성 공통적인 과거 이야기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 많은 경우 아동기 성폭력(근친강간 등)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결혼시장에서의 상품적 가치인 순결을 상실한 여성은 매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매춘여성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매춘으로 유입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 많은 여성들이 아버지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고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에서 여성의 열등하고 수동적인 위치를 내면화시키고 남성의 폭력에 취약하게 만든다.

- 이중적인 성교육과 성차별적인 학교 교육, 즉 정복심과 소유력을 강조하는 남성의 교육에 비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순결을 강조하는 여성의 교육은 여성을 성의 대상화에 취약하게 한다.

- 성차별 구조 안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점차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매춘유입의 중요한 간접 동기로 작용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간접적 유입동기를 가진 여성들이 직접적 유입동기를 갖게 되면 매매춘 구조에 쉽게 유입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어났던 모든 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혹 그런 일을 겪더라도 잘 참으며 인내를 했어야 했다고, 그것이 좋은 여자라고 후회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매춘여성의 유입동기가 구체적인 유입동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려주고 여성 개개인이 얼마나 심각한 억압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매춘을 '선택했다'는 생각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명확한 유입 동기를 알게 된 매춘여성은 탈 매춘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탈매춘이 가능한 매매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탈매춘의 동기를 갖게 된 여성이 탈 매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매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매매춘 구조에서는 매춘여성이 탈매춘을 원해도 가능하지 않다. 매매춘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매춘여성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위한 움직임과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매매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탈매춘 후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탈매춘 후 대안이 없다면 매춘으로 재유입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탈매춘 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 매춘여성이 탈매춘 후 일시적으로 기거하며 자신의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과 선택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타의적 탈매춘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춘여성을 획일화시켜 집단화 프로그램으로 탈매춘을 유도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위해서는 매춘여성의 개인성을 살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IMF이후 산업형 매매춘에 진입한 여성 사례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본 사례는 4월 12일~21일의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면접을 시도하여 면접에 성공한 내용이다. 면접은 조사대상자의 근무 시간을 피해서 이루어졌고, 면접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IMF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서 혹은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향락산업에 진입한 여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간다는 강남 등의 고급 유흥가보다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유흥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업소의 사장에게 조사자의 신분과 면접 목적, 내용을 밝혀 양해를 얻은 후 면접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사장이 소개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면접 내용 즉 IMF이후에 향락 산업에 진입하게 된 과정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설명하고 나면 면접에 응하기를 거절하거나 응답하기를 주저하였다.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서 거절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1. 연령 : 24세
2. 출신지 : 서울

3. 학력 : 상업고등학교 졸업
4. 가족사항 : 미혼이며, 아버지와 오빠 1명이 있다. 아버지는 부천에, 오빠는 수원에 살고 있다. 독립해서 살기 시작한지 3년째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1. 근무조건

- 일요일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가게를 열지 않는다. 일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 나온다. 아프거나 나오기 싫으면 2~3일 정도 쉬기도 한다. 매일 나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나오면 돈을 못버니까 나만 손해다. 월급을 주는데는 안나오면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우린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나와도 공치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안나오면 자기만 돈을 못버는 거다.
- 못나오는 날은 미리 전화해서 마담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예약 손님이 있어서 특별히 찾는 경우가 아니면 안나올 수 있다.
- 일주일 중에 3일 일한다고 보면 된다. 일요일 쉬고, 토요일은 손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금요일에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월요일에 손님이 많은 것 같다.
- 아가씨들은 마담이 관리한다. 우리업소는 마담이 한 명이다. 마담은 방에 아가씨들을 넣어 주고, 술값, TC나 2차 비용을 계산한다. 마담은 손님들 취향을 봐서 아가씨들을 테이블에 넣는데 아가씨들 수입을 고려해서 골고루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업소에 나온 아가씨는 아가씨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자주 들여보내기도 한다.

2. 근무여건

- 다른 사람들하고는 주야가 바뀐 생활을 하지만 나는 밤에 활동하는데 더 잘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 도리어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보통 저녁 7시에 출근한다. 손님은 8~9시부터 들어오기도 하지만 10시 정도는 되어야 많아진다. 심야영업이 금지되었던 때에는 1~2시 정도까지 근무했었는데 심야영업이 허용된 다음부터는 3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다.

- 하루에 1~2 table 정도의 손님을 받는다. 대개 한 테이블당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있게 되는데 술마시고 노래부르고 노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른다.

3.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 우리 업소에는 12명의 아가씨가 있다. 이중에서 10명 정도가 출근한다. 적어도 6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다.
- 1~2년 정도 된 사람들도 있고, 나같이 얼마 되지 않는 신참들도 있다.
- 민자(고등학생)들은 없고,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이다. 미혼도 있고, 가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은 안해도 대부분 애인도 있는 것 같다. 나처럼 직장을 갖고 있다가 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 돈이 급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정말 1~2만원이 없어서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 일은 매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돈이 급한 사람이 시작하기가 쉽다. 나도 그랬다.

4. 손님

- 연령대나 직업도 다양하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많고, 나이드신 할아버지들도 있다. 회사원, 교사도 있고, 노가다 아저씨들도 있다.
- 여기 있으면 남자를 못믿게 된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다.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 어린 여자들을 찾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진탕 질퍽하게 논다. 가슴도 만지고, 팬티에 손도 넣고 할건 다한다. 못하게 하거나 싫어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낸다.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할

때가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올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하다. 우리가 자기네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사실 심하게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5.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 지금은 별로 IMF를 타지 않는 것 같다. 이 업소에 온 지 얼마 안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작년 초에는 좀 어려웠다가 하반기부터는 나아졌다고 한다. 요즘은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적어서 수입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6. 여가생활이나 휴가, 월차

- 일요일이나 손님이 없는 토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똑같이 술을 마시는 거지만 손님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 혼자 살기 때문에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한다.

<유입과 이동과 관련하여>

1.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

- 돈이 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2살에 처음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다. 1~2달 있어 보니 모르는 남자들과 술 마시고 그런다는게 싫었고, 회의가 들었다. 애인까지 있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대리점 판매원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일하던 대리점이 부도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한동안은 쉬면서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돈 1~2만원이 없었다. 돈이 당장 급한데 돈을 벌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단란주점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업소는 세 번째 업소이다. 단란주점에서 돈을 벌면 중간에 잠깐씩 쉬기도 했다. 다른 직장을 구해 보려고도 했지만 자리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사무직원으로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란주점에서 일하면 사무직원 한달 월급보다 많이 버는데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았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이 일을 찾게 되는 것 같다.

- 처음엔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멋모르고 시작했다. 다시 시작한 것도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돈을 모으기 위해 하고 있는 거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전세로 옮길 거고, 결혼 자금도 마련할 거다.
- 단란주점에서 일하기 전에 룸싸롱도 생각했었다. 노래 부르고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룸싸롱이 단란주점보다 더 질펀하고, 술도 더 많이 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단란주점에서 일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았다.
- 한때는 보도(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는 업소에 가서 일하고 돈을 받음)로 갈 생각도 했었는데 가지 않았다. 보도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말은 들었다. 업소에서 일하게 되면 공치는 날도 있지만 보도에 있으면 연락이 오는 업소에 가서 일을 하니까 공치는 날도 별로 없고, 잘되는 날은 하루에도 몇 탕씩 뛸 수 있다. 돈은 더 많이 벌지는 몰라도 업소에서 일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이 힘들고, 모르는 업소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업소에서 일하기로 했다.

2. 유입경로

- 당구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단란주점 주인을 통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업소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 업소에서 일하다 보면 업소에 대해, 손님이 잘 모이는 곳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소

문을 듣고 옮기는 거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서 옮긴다. 같이 일하는 언니 중에는 벼룩시장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 온 사람도 있다.

3. 이직의사와 이유

- 지난번 업소는 손님도 별로 없고, 가게도 작고, 손님도 꾸질했다. 지금 업소는 괜찮은 것 같다.
- 다른 업소로 갈 생각은 없다. 돈은 어디 가서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똑같이 번다면 분위기가 좋은 업소에서 근무하려고 한다. 이 업소는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 있을 생각이다.
- 이왕 일을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돈을 벌어서 나갈 생각이다. 계획한 것을 이루고 나면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4. 지속 이유

- 카드 빚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생각이다. 처음에는 돈을 쓰기 위해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결혼도 해야겠고, 집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적금도 넣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옮길 생각이다. 사무직으로 한 달에 40~50만원 받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 갈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는 사무직 같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1년 정도는 일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5. 이동경로

- 업소를 이동할 때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이나 정보를 갖고 업소를 옮기게 된다. 나도 지난번에 있던 업소에서 소문을 듣고 여기에 왔다.
- 어느 정도 한 업소에서 일을 하면 단골 손님도 생겨서 좋기도 하지만 손님들

이 질려하기 때문에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업주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업소를 옮기곤 한다. 단란주점에서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단란주점에 있다가 까페에 갔다가 다시 단란주점에 오기도 하고, 잘은 모르지만 비슷한 업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6. 신체적 위협

- 손님들한테 신체적 위협을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손님들 때문에 언짢고 서럽고 속상할 때가 많다. 원하지도 않는데 강요할 때가 있다. 자꾸 주물럭거리고 추근덕거리면 싫다고 해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손님에 따라 다르지만 반말하고, 무시하고, 얕보기도 한다. 술마시기 싫어도 거절하면 안된다. 하지만 내색할 수가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 힘들어도 누가 직장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7. 강제 이동 · 매매

- 마담이나 사장한테 돈을 끌어다 써서 빚을 지게 되거나 그 빚 때문에 업소를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른 업소에서는 더러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업소나 내가 일했던 업소들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8. 매춘(2차)에 대해서

- 애인이 있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애인이 없는데 애인을 만들어서 애인과 성관계를 하느니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성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애인과의 성관계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험은 돈을 벌 수 있는 손님과의 2차에 대해 허

용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고 생각됨).

- 돈을 벌려면 2차를 나가야 한다. 2차를 나가게 되면 그냥 테이블에 들어가서 놀아주는 것보다 몸도 힘들고, 지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다. 지난달에는 2차를 나가서 돈을 좀 벌었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 한번도 나가지 않아서 돈을 모으지 못했다.
- 손님이 원하면 2차를 나간다. 손님이 2차를 나가자고 하면 마담한테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러면 마담이 아가씨한테 손님이 2차를 원하니 나가겠냐고 물어보고, 아가씨가 원하면 2차를 나간다. 사장에 따라 손님이 원하면 무조건 2차를 나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2차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2차를 나가게 되면 사장에게도 돈이 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손님이 원해도 손님이 정말 싫으면 생리중이라고 하고 나가지 않는다.
- 2차는 맨정신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나가게 된다. 손님이 많으면 하루에 2번 나가기도 하는데 초저녁에 나갔다가 (초저녁에 2차 갔다가 다시 업소로 들어옴) 새벽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2시 반 정도까지는 2차를 나간다. (바로 퇴근함).
- 손님들 중에 낮에도 만나자고, 애인 사이 하자며 연락처를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2차는 나가지만 그런 것은 안한다.

9. 이전 직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1년 일했다. 1년간 일을 하다 보니 판매원 일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월급도 많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힘도 들고, 진급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급을 해도 반장 (일반 판매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판매코너에서 5년은 일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면서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당구장에서 일했고, 잠시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다. 다시 대리점 판매원 일을 했는데 IMF로 대리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다.

10. 친구와 가족

- 가족들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줄 알고 있고,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식구나 친구들에게 떳떳하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다. 돈 버는 것 빼고는 힘은 힘대로 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 28살 정도에 결혼할 생각이다. 이런 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이 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속이면 된다. 속이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도리어 남자를 알기 때문에 바람을 피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득과 지출에 관련하여>

1. 개인소득과 소득분배

- 한 테이블에 들어가면 TC (Table Charge)로 6만원을 받는다. 정가는 6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손님에 따라 6만원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몇몇 그런 짠돌이가 있는데 그럴 때는 주는 대로 받는다. 어떤 경우는 팁을 더 주는 경우도 있다. TC는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데 보통 그날 번 TC는 당일에 가져간다. 현금일 경우는 당일에 가져갈 수 있고, 외상일 경우에는 그 외상을 갚는 날 갖고 갈 수 있다.
- 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벌지만 단골 손님이나 지명손님 (손님이 특정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지정하는 경우)이 많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다. 우리는 월급제가 아니고 Table에 들어간 만큼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다. 한 테이블도 들어가지 못해 공치는 날에는 돈을 못벌게 되는 거다.
- 2차를 뛰게 되면 돈이 2~3배씩 달라지기도 한다. 많이 벌 때는 200~300만원도 버는 것 같다. 2차 비용은 20만원이다. 20만원은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데 사장과 나누어 갖는다. 현금일 때는 18만원을 아가씨가, 2만원을 사장이 갖고, 카드로 계산했을 때는 17만원을 아가씨가 갖고, 3만원을 사장이 갖는다.

2. 지출처

- 주로 식생활비나 월세비용,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사용한다 (정확한 액수는 질문했으나 알려주지 않음. 아마도 한달 월급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월급이 드러나면 한 달에 2차를 어느 정도 가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지난 달에는 100만원 정도 저축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적금 넣는 통장과 여유돈을 넣는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많이 할 예정이다. 하루하루 돈을 받기 때문에 저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출근하기 전에 은행에 넣기 때문에 괜찮다.

<건강에 관련하여>

1. 건강검진여부

-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모두 갖고 있는데, 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 따로 개인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이 일은 오래하면 매일 술을 마시는 일이라서 몸이 나빠진다. 보통 하루에 맥주 10병, 양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섞어 마시면 안좋다. 술을 마시기 싫어도 손님이 주는 술은 거절할 수가 없다. 매상 문제도 있고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 몸이 안좋고, 술을 못마실 것 같은 날은 아예 쉬어서 회복한 다음에 다음날 출근한다.

3. 임신이나 기타 병에 대해

- 2차를 나가게 되면 임신이나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돔을 사용하기도 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몸 안에 넣기도 하는데 나는 콘돔을 사용한다. 콘돔을 항상 갖고 다니지는 않고 여관에 들어갈 때 콘돔을 갖고 오라고 해서 임신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IMF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 과정, 중소기업의 잇단 부도,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여성은 그 우선순위에 있었다. 집안의 가장인 남성도 직장을 잃는 마당에 여성들을 위한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경제가 호황일 때에도 여성은 (재)취업하기가 남성에 비해 힘드는데 경제 불황 시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실업률이 8%에 이르고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의 가장인 남성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이 해고되어야 했던 것처럼 구직을 기다리는 남성들에 때문에 여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구인하는 회사 보다 구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던 일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고,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하던 일을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학력, 직업능력이나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한 여성은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IMF 2년째인데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6개월, 공공근로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이니 실직자 혹은 그 가정의 생계 문제의 심각성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돈을 더 많이, 더 쉽게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가장이 실직하거나 본인이 졸업 후 취업기회가 없거나 혹은 실직으로 재취업 기회를 갖지 못해, 당장 생활을 해야하는데 일정한 수입도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향락업소는

학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곳이다.

향락업소라고 불황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손님을 접대하고 술시중을 드는 것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고, 매매춘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본 사례도 IMF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돈은 다 써가는데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단란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계수단으로 향락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업소를 찾게 된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향락업소에서는 현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도 돈 1~2만원이 없어서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 의사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해서 이를 자발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광고를 보고 혹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기회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했다면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향락업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상품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항상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게 마련이고 수시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할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자발적 선택을 가장한 비자발성은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향락업소에서는 2차 서비스로 매매춘을 한다. 1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본인이 원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락업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성적 노리개로 희롱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더구나 2차로 매매춘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2차로 매매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향락업소는 본인이 옮기고 싶을 때 업소를 옮길 수 있다. 이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잘되는 업소를 찾아 이동할 수 있다. 업주와의 금전적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그외의 경우는 유입과 이동이 자유롭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의 의사라기 보다는 한곳에 머물 경우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소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업소의 생리에 따라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다니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향락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을 벌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날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혹은 생활비로 버는 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돈을 벌기는 하지만 돈을 모을 수 없다. 대부분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지만 구조적으로 돈을 벌기 어렵고 결국에는 이 곳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여성이 향락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 선택을 가장한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입도 없고,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환경 등은 여성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해 제한적인 취업기회나 교육기회, 여성들이 술시중을 들고 이런 여성들과 매매춘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 여성에 의한 접대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에서도 버젓이 접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위험수당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구조 등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이 이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춘여성의 탈매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어려움

정연순 (변호사, 열린 전화 자문위원)

1. 들어가는 말

매춘여성들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중의 하나는 매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매매춘 시장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의심과 편견이다. 매춘은 가장 존엄하게 취급하여야 할 자신의 육체를 직접적인 생존수단으로 내놓으며 상대방의 처분에 완전히 내맡긴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철저히 억압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하급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이다. 여성이라면, 매춘 행위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시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의심과 편견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70년대와 달리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 뒤에 고도의 소비사회로 정착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믿는 사람들과 언론에 의하여 이러한 의심과 편견은 도를 더하고 있다. 또한 매매춘의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매춘여성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는 매춘여성들의 탈매춘과 자립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4] 본 발제는 매춘여성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4)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0-41.

중에서 특히 업주와의 착취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의 정산과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률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5)

2. 매춘 여성의 실태와 법적 지위

현재 우리 나라의 매춘산업은 유형과 형태를 달리하여 다양하고도 거대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대일로 매춘행위를 맺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이 매춘여성이 포주집에서부터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나 남성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서나 보도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매춘여성이 생활하는 나이나 경력, 미모, 강제성에 따라 그 고용관계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감금형식에서 숙식하는 형, 출퇴근하는 형,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형 등 다양하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업소에서 인신매매나 감금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현재 형법상으로 매매춘행위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관련법규들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비롯하여 형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10여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매매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대개의 법률들이 금지조항 또는 처벌경력이 있는 자의 특정사업활동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매춘행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다. 동법은 매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6)과 매춘여성에 대한 선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5)매춘여성의 자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러한 고용관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상담에서 매춘을 시작하게 된 동기, 고용관계, 원인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식으로 시작하였다면 그 과정에서의 차용금의 반환 등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고발이나 고소를 한다든가, 손해배상금을 구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반면 프리랜서형의 매춘여성의 경우 과연 차용금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지(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6)동법 제2조 :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3. 매춘여성의 탈매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매춘여성은 고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나 고수입을 능가하는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매춘여성의 자립을 막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빚과 고율의 이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매춘여성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는 원인들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벌금제

벌금제의 전형인, 티켓다방의 형식을 보면, 다방에 고용된 여성들이 계약된 기간동안 쉬거나 기타 사유로 다방의 자리를 비울 때면 티켓을 끊도록 되어 있다. 여성과 업주는 한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이 기간동안 여성이 하루 결근을 하면 벌금으로 15~2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 여성이 업주와 계약된 내용으로 하면 30일간의 노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며칠은 쉬기 마련이어서 결국 60~80만원 가량이 다시 벌금으로 회수되게 된다. 룸싸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휴업을 하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상 며칠은 쉬어야만 하는 구조에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도 벌금을 내게 된다.

2) 높은 이자

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윤락행위 2.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윤락 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정하는 행위

매춘여성은 대부분 돈이 없다. 매춘을 하게 된 동기도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화장품, 옷 등의 구입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다시 돈이 쪼들리게 되고 포주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고리의 이자를 물게 되고, 이를 다시 갚지 못하면 또 돈을 빌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빚에 묶인 뒤부터는 완전히 주인에게 매여 사는 신세가 된다.

3) 연대보증

매춘여성이 빚을 지게 되면 다른 매춘여성이 서로 연대보증을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중의 한 여성이 힘들어 도망치게 되면 연대보증한 다른 여성이 이를 모두 책임지게 된다. 도망쳤다가 다시 잡히면 업주는 찾는데 드는 비용(하루 10만원)을 다시 매춘여성에게 물린다.

4) 경제적 무감각

매춘여성이 경제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과대한 의상비, 화장품비를 지출하는 것도 매춘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한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춘여성이 업주와 결탁한 의상업자의 옷을 구입하면서 의상비로 많은 돈을 쓴다고 한다. 하루의 팁으로 상당한 돈을 받아도 현금으로 돈을 쉽게 만지는데다가 이미 빚도 상당히 져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전망을 수립할 의욕과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헤프게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헤픈 씀씀이가 매춘여성의 빚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매춘여성이 일반 사회로 돌아왔다가도 이를 잊지 못하고 다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으로 매매춘시장에 오래 있는 여성일수록 빚을 더 많이 지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7] 그 결과 업주는 매춘여성을 완전히 소

유하게 되고 매춘여성은 매춘시장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4. 매춘여성과 업주와의 계약관계의 법리 검토

1) 계약무효의 법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성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률[8]을 뜻한다. 이에 따라 축첩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계약, 매매춘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는 계약,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인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의 규정만으로 해석할 경우 직접적인 화대의 불법성은 명백하나 화장품, 식대, 차용금 등의 실비나 관련비용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법리상으로 주 계약이 무효인 계약이라면 부수 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도 실비용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매춘여성이 자신이 포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무효가 되어 받지 못하는 반면 포주로부터 제공받은 숙식비, 옷값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면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른다면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포주가 매매춘여성에 대하여 가

7)조사보고에 따르면 매춘여성 중에서 23.8%가 빚을 지고 있으며, 매매춘에 종사한지 1년 미만인 집단에서 18.7%가, 1~3년 미만에서 21.6%, 3~5년 집단은 27.1%가, 5년 이상된 집단에서는 27.5%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박정은,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한국여성개발원, p.63.

8)이영준(1987), <민법총칙>, 박영사, p.229.

지는 모든 채권은 무효가 된다[9] 고 볼 것이나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무효가 되는 채권은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범위에는 매춘여성이 윤락업무에 종사하면서 업주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즉 벌금, 화장품값, 옷값, 숙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매춘여성이 꾼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업주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리게 된 경위가 윤락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윤락행위가 관련없이 꾼 돈이라면 업주와 매춘여성이 매춘계약의 관계에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여성이 100만원의 선금을 받고 일하던 중, 동생이 아파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300만원의 돈을 업주로부터 꾸었으나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갔다면, 그 경우에도 업주는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 정의관념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주는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업주가 돈을 꿔주면서 변제의 방법으로 윤락행위를 요청하였거나 묵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채권이 '윤락행위와 관련된 채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0]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사채업자가 동조의 '이에 협력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 채무가 윤락행위와 관련성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2) 구체적인 문제

9)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가 조사되고 있지 아니하다. 실제로 매춘여성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깡패들을 풀어 끝까지 추적하고 감금하는 상황하에서는 법의 보호기능은 무력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10)만일 구체적인 소송에서 문제된다면 업주가 자신의 채권이 윤락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매춘여성이 자신이 갚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 업주가 실비용이나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을 두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주가 매춘여성에게 이미 지급한 월급이나 기타 화장품 비용 등을 부당이익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

매춘여성이 자신이 지급한 빚 갚은 돈의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예도 없을 것이며, 이 역시 같은 법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 취업사기의 경우

매춘을 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 선금을 받아 도망간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선풍양속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주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라. 고율의 이자

이전에는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자라 할 지라도 연2할5푼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였다. 그러나 IMF가 오고나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2할5푼 이상의 고리도 가능한 셈이다.

마.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별도의 합의서를 쓰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업주가 합의서나 각서를 가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시의 채권무효의 사유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51조)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써주면 별도의 약속어음채권이 발생하고 이는 무인(無因)채권이기 때문에 어음을 소지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바. 실제 소송과정

실제로 업주가 매춘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그 채권의 발생이 매매춘 계약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러하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마치 다방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일반 종업원의 관계에서 돈을 차용해 준 것처럼 위장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사채업자)를 내세우는 방법 또는 차용증의 형식으로 무색투명하게 만들어 제기하거나, 가족들을 구슬러 새로운 형태의 합의서를 받아내거나 연대보증하는 방법 등으로 변형시킨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이용, 매춘과 관련한 채권이라는 성질을 지워버리려 할 것이다. 제3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일반 대여금처럼 위장한다면 그 실체관계를 밝히지 않는 한 매춘여성이 그 짐을 벗기란 어려운 문제일 거이다. 사채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춘여성으로서는 그 사채업자가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이에 협력하는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구하는 방법, 실제의 거래관행을 입증하는 방법).

5. 형사법적 제문제

1) 업주의 형사고소

업주들이 매춘여성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의 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외견상 관계없어 보이는 제3자를 내세워 대여금 사기 등인 것처럼 위장하여 고소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취업사기는 일정기간 일하기로 해놓고 선금을 받은 후 그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에서이고, 차용사기는 처

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약속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시에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즉, 처음부터 돈을 떼어 먹으려고 작정하였다는 고의)가 밝혀져야 한다. 매춘여성이 도망가게 된 경위, 근로관계, 돈을 갚지 못한 이유 등을 엄밀히 따져서 애초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났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금원을 빚졌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 소환통지를 받게 되면, 현재 윤락행위방지법이 쌍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나가 자신의 처지를 적극 변호하기보다는 이러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앞서고 더구나 자신이 매춘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별도로 처벌받을까를 두려워하게 된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업주에게 빚을 일부 갚고 합의를 보라고 종용도 당하게 된다. 그 빚의 형성과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성으로서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으레히 고소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는 하나, 합의를 안보았다고 해서 무죄가 될 사건을 유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할만한 사건에서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며 무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업주가 폭력배를 고용하여 해결을 도모하거나 감금시켜 다른 곳으로 인신매매하는 경우

이것은 모두 체포, 감금, 폭행 등의 별도의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율된다. 따라서 매춘시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들은 좀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매춘여성이 이러한 것을 들

어 고소를 하여도 경찰관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거나 과거를 캐묻는 등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받게 되고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 과거의 매춘행위로 처벌받기도 할 것이다. 현행법규로는 윤락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1년이다. 이러한 엄벌주의적 통제방식이 매춘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6. 맺음말

매춘여성을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와 사회의 지원이다. 매매춘행위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우리 법제는 강한 처벌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매춘, 강제 매춘 등의 더욱 악랄한 범죄와 일반 매춘행위가 혼재하고 있으며, 처벌일변주의의 정책은 매춘여성을 범죄자화하여 매춘여성이 탈매춘을 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매춘여성은 자기에게 가해진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가 힘들며, 국가나 사회 또한 매춘여성을 탈매춘하도록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업주와 단속기관의 유착관계, 수사기관의 남성주의적 편견, 수사방식 등이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정부의 엄벌주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6월 공개 세미나

주 제 : 국제 여성매매 메커니즘

관 련 자 료

1.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 메카니즘
   - 기지촌에 유입 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 아시아 태평양 8개국 성매매 경로 연구
   한국의 사례 - 러시아 여성의 매매춘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 메카니즘
-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1. 성산업의 국제화와 여성의 매매

현대 사회의 성산업은 성을 대규모로 생산, 소비하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과 함께 공간적인 다양성을 생산해낸다. 이는 성산업이 국지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점차 국제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복잡하고 다중적인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서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섹스 관광과 노동자를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소녀와 여성들을 외국의 성산업 구조로 유입시키는 현실은 국제적 성산업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특히 아시아 지역이 국제적인 성산업의 주요한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아시아의 관광산업에 기인한다. 세계적 상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 경제적, 정치적 약소국들에 대한 관광과 출입이 개방되면서 각국의 정부들은 관광촉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추진된 관광 정책은 수많은 남성 관광객을 섹스 관광으로 끌어왔고, 이국의 여성들과 성적 모험을 즐기려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로 사업화되었으며, 이러한 성산업을 통해 신흥개발국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Bishop과 Robinson은 태국 섹스 관광의 발전을 검토하면서 베트남 전쟁으로 주둔한 미군기지들로 인해 성산업이 성장했다고 주장하였다. Lee는 거시경제학

적 수준에서 볼 때, 태국은 관광사업으로 40억불 이상을 벌어들였고, 1980년대 중반 태국의 관광산업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태국의 주요 외화획득 산업이었던 쌀 산업을 능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을 위한 성산업은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발전 방식이 되어왔고, UN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관광산업을 저개발국이 소득을 증대하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하기도 하였다(Lee 1991). 이러한 섹스관광 산업이 확대되는 나라에서 매춘의 공급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태국에는 약 5만개의 사창가와 성적 서비스 센타들이 있고, 치앙마이에 있는 여성들이 50%가 미얀마 여성이다(CATW 1997).

이렇게 여성의 성매매가 초국적인 성산업의 방대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국가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가난과 실업을 겪고 있는 나라의 여성들의 이주노동을 야기했고, 국가정책적인 해외노동의 장려와 값싼 노동력에 대한 국제적 필요에 의해 촉진된 이주노동 구조는 성매매의 알선자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외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선진국의 섹스 산업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여성 이주자의 수는 남성을 앞지르게 되었고, 여성들은 종종 적대적인 외국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으며,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1)더구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가도록 하는 경제적인 압력은 불법적이거나 사기취업 및 여성을 성산업에 넘가는 브로커들에게 풍부한 토대를 제공해왔다.

성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여성의 인신매매 외에도 국제적인 여성 매매가 유지되고 성장하는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된다. 성별화된 경제발전, 불균등한 국제 경제로 인한 절대 빈곤, 가부장적 관행들과 가족내 봉건주의, 성산업의 수많은 억압 고리들, 정부와 정치적 위기 상황, 군대 주둔 등의 이유로 여성은 국제적으로 매매되고 있다(IOM 1997).

Kathleen Barry(1995,175)는 세계 자원과 빈곤 문제가 어떻게 여성매매와 관

11)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의 이주 노동력의 여성화가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주노동에 대한 수요는 매우 성별적이며,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과 지위에 있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내노동자나 연예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련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1992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와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간의 경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잇다. 세계 인구중 가장 가난한 20%의 나라들의 GN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서 1.4%로 떨어진 반면, 부유한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0.2%에서 82.7%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여성매매의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Barry는 인간개발지수가 낮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은 봉건적 권력구조하에서 여성매매가 증가됨을, 이들 나라보다 인간개발지수가 높고 경제적 발달과정에 있는 중진국은 성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극도의 가난과 지속되는 빈곤의 상황은 딸들이 돈을 벌어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과 결합하면서 여성들에게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가족 부양의 의무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에게 성산업을 선택하게 하거나 이주노동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가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이 빠른 외화획득과 실업의 해결을 위해 장려하고 있는 해외 이주노동은 여성의 성매매에 있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성이 국제적으로 매매되는 것은 비단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뤼셀의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1996년에 50만 명의 여성들이 서유럽의 매춘 지역으로 팔려갔다고 보고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칸반도 국가들이 여성들을 보내는 공급 국가이며,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공화국이 주된 운송 국가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가 여성들을 수입하는 주 목적지이며, 미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목적지 국가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공급국, 이동로, 목적지 국가는 인신매매 시장의 논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가난과 궁핍이 만성화된 곳에서 여성들은 무궁무진하게 공급되며 부유한 나라들은 여성과 성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Gender Matters Quarterly 1999).

이러한 국제적인 여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여성매매를 통해 얻게 되는 높은 경제적 이익과 여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여성매매에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성노예로 파는 것은 국제 범죄조직의 사업중 하나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은 정규통로를 이용하여 여성이나 아동을 매매하기도 한다.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은 마약, 무기밀매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는 여성매매를 통해 높은 이익, 탈세, 돈세탁 등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2. 국제적 여성매매에 관한 논의

국제적 성산업과 국가간의 여성매매는 현재 여성인권을 위한 조직과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의 삶의 쓰라린 경험들이 알려지고 있다. 여성인권과 관련된 많은 비정부기구들과 국제협약은 성산업으로 여성과 아동이 매매되는 것을 국제적인 성착취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제이주자기구(IOM)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여성매매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은 1949년 '인신매매와 타인에 대한 성적 착취 금지 조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에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다룬 것에서 시작되었다. 1981년 UN은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발표하였고, 이 협약에 의하면 '국가 정부는 매춘여성의 착취와 모든 형태의 여성매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와 함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UN 구성원의 2/3 이상인 155개국이 이 조항에 서명을 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기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고, 네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가 이 조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CEDAW에 비준한 19개 나라에 광범위한 성매매 조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UN 협약에 따르면, 인신매매(Trafficking)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 여성과 소녀를 국가와 국제적 경계를 가로질러 매매하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활동'으로 정의한다. 즉,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알선자, 모집자, 인신매매자, 범죄조직이 여성과 소녀들을 성적, 경제적으로 억압적이며 착취적인 상황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강제 가내노동, 사기결혼, 비밀고용, 사기입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매매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매매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는,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는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하 CATW)'과 태국에 본부가 있는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이하 GAATW)'가 있다. CATW에 따르면 여성매매(Trafficking in women)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춘이나 강제노동 및 성노예화를 목적으로 금전상의 이익이나 기타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여성과 소녀를 이동, 매매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GAATW는 여성매매를 '국경 내외에서 일어나며 일과 서비스를 위해 폭력과 위협, 빚, 사기, 다른 강제적인 수단으로 여성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것에 연관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그룹 모두 여성매매의 문제가 산업화된 국가와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성매매와 성적 착취가 가난으로 야기된 취약성 때문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 여성의 낮은 지위로 인해 여성매매가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에 의한 성산업 촉진 정책과 세계 경제질서 안에서 여성 노동력의 이주를 장려하는 제도 등이 결국 여성매매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 대한 매매는 국가들간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해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소비가능한 수입품으로써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매매와 매매춘의 문제에 대해 이들 두 단체와 여성주의자들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모두 여성매매와 매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 국제협약과 이 문제를 다루는 국가, 국제법의 내용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ATW는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성매매 구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반면 매춘여성들의 모든 행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GAATW는 국제적인 협약과 법적 규제가 모든 인간에 대한 인신매매를 불법화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매매춘과 '자유로운' 매매춘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Jeffreys, 1997).

GAATW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CATW의 Janice Raymond는 여성매매와 매매춘의 문제를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따르면 이렇게 강제적인 매매춘과 자유로운 매매춘이 구분될 때, 강제가 드러나지 않거나 증명 가능하지 않는 형태의 성적 착취가 합법화될 것이며 분명한 강제가 동반된 경우만을 '그럴듯한 희생자'로 간주하고 결국 이들에 대한 대책만이 고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Jeffrey에 의해서도 제기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매매되어 유입된 여성과 국내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이 강제적이었건, 자유에 의한 선택이었건 성적 대상화되고 성적 노예화되는 상황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강제적 여성매매와 자발적 매매춘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여성매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위와 같은 비정부기구 외에도 국제이주자기구(IOM)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여성매매에 관한 활동과 논의를 하고 있다. IOM의 경우 이주에 있어서 인신매매와 성매매, 매매춘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발간하면서 성산업에 매매되는 여성에게 이주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ILO는 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성산업의 경제적 측면을 조사한 'The Sex Sector'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노동을 경제적으로 인정하여 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의 이 보고서는 조사대상 4개국 모두에서 섹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대했으며, 상업적 섹스가 직업 매춘여성외에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며,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섹스 산업이 이들 나라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Sex sector'라는 용어를 통해 성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공식적

인 인정과 '일하는 조건의 향상을 통한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혜택'을 요구하였다. 이들 나라의 섹스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른 비숙련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왔으며, 각 나라의 GDP의 2~14%를 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에서 95년 사이 태국 성산업의 수입액은 총 252~270억 달러에 달했으며, 도시의 매춘여성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약 3억 달러로 정부 예산에 따른 지역개발비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의 경제난과 통화가치의 변동으로 값싼 섹스 관광을 즐기려는 외국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실업자 증가와 빈곤의 가중으로 어린이 매춘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단지 20%의 여성들만이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감금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착취를 동반한 매춘이나 어린이 매춘의 추방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Lim, Lin Lean, 1998).

CATW의 Janice Raymond는 이 보고서에 나타난 ILO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지난 십년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치 불안정과 함께 경제 위기가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ILO가 주장하는 '성인여성의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매춘의 허용'은 빈곤과 실업의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도시와 외국의 성산업으로 진입하는 것,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Raymond는 ILO가 '모든 형태의 어린이 매춘은 용인될 수 없는 어린이 노동으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어린이)은 안되지만 나중(성인)에는 괜찮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여성매매가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aymond는 여성과 아동을 매매하는 기저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성산업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사회에서 허용될 때 인신매매와 섹스 관광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ILO의 보고서가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4개국이 성매매로 인해 경제적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제3세계의 매매춘과 여성매매가 단지 가난한 나라의 실업과 빈곤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제3세계 여성의 성을 요구

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매매가 제3세계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경제의 불균형으로 저개발국 여성의 성을 부유한 나라의 남성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3세계 여성들의 매매춘은 단지 가난한 나라 여성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여성의 성을 요구하는 '남성 수요'와 알선자의 행위, 외국 여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화로 인해 특별한 매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매매춘 구조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3. 필리핀 여성 노동력의 이주 배경

제3세계 국가들은 근대화의 과정속에서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자원을 잃게 되었고, 임금 노동이나 수입을 위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하는 영속적인 하위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만들었고, 아동 노동의 증가와 도시로 이동하는 빈민층이 증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빈곤과 전통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도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주는 소녀들과 여성들이 생존하기 위한 일부 방법 중의 하나가 되었다(Jeffrey, 1997).

필리핀 여성의 이주와 여성매매의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이었던 어업이 대형화됨에 따라 여성 어부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광석 채굴의 이해관계로 인해 원주민 여성은 경작할 땅을 잃었으며, 도시의 가난한 여성들은 개발 인프라로 인해 대체될 뿐만 아니라 시골의 여성들은 농업의 자유 무역화 때문에 지속적인 쇠퇴를 겪고 있다. 더구나 거대 기업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주요 희생양으로 해서 임시 고용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 통계를 보면 남성의 85.7%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46.8%만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시골 지역에서는 딸들에게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기대를 하며, 이러한 가족 부양의 압력은 필리핀 여성들을 해외로 이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Jean

Enriquez, 1999).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는 해외 이주노동에 대해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주 노동자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해 강조한다.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이주노동자를 '새로운 영웅'이라고 칭했으며, 1994년 현 정부는 12월을 '해외계약노동자의 달'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간지 중 하나인 Philippine Daily Inquirer은 1996년 올해의 필리핀인으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필리핀 정부는 해외취업을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력이 거래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최근 필리핀 정부는 취업알선 산업의 규제를 자유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여성의 이주노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가내 노동자나 간호원, 엔터테이너 등으로 중동, ASEAN 국가들,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떠나고 있다. 1987년 필리핀 이주고용부의 기록에 따르면 전체 해외계약노동자 382,999명 중에서 47.2%인 180,441명이 여성이었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344,513명의 노동자가 이주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1/3을 차지하는 수이다. 이렇게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노동력의 수는 걸프전 기간동안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필리핀 국가통계청에 보고된 해외계약노동자의 수는 1991년까지 752,700명으로 거의 두 배의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서 두드러지는데 752,700명의 해외계약노동자 중에서 50.6%가 여성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보고는 해외 이주노동에서 여성의 비율이 55%까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4년 1월부터 9월까지 분석된 자료에서도 575,805명의 해외노동자 중에서 316,693명이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Beltran&Rodrigues 1996). 이와 같은 통계는 필리핀 해외계약노동자의 여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성 이주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필리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되어 있는 곳은 일본[12], 홍콩,

12) 필리핀 여성이 이주하는 목적지는 일본-특히 엔터테이너-이다. 1994년 일본에 유

말레이시아, 대만, 부르나이 등이다. 반면 중동 지역에서 필리핀 여성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이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이며, 아프리카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이다. CATW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7번째로 많이 오는 나라이며, 합법적으로 고용된 필리핀 엔터테이너들이 다섯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Enriquez, 1999).

매매춘의 문제는 주로 강제적 성노예화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볼 때, 필리핀 여성의 성매매는 제도화된 해외 이주노동에 의해 조장되기도 한다. 필리핀 정부가 해외 이주노동을 장려하고 해외 취업알선 산업을 자유화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여성을 매매하던 직업소개소는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난한 필리핀 여성들은 종종 학대받거나 매춘으로 끝나는 해외취업의 이중 칼날을 잡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Law, 1997). 이주여성들이 외국에서 위험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엔터테이너와 중동과 동남아의 가내 노동자의 이야기는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을 통한 여성의 매매춘 외에도 필리핀의 성산업은 군대 매춘과 연결[13]되어 있고, 현재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미군기지의 존재는 필리핀 여성매매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1992년 필리핀의 미군기지가 철수하면서

입된 1,165,110명의 여성-이중 52%가 29~39세-중에서 75%가 아시아계인데, 일본에 온 아시아 여성은 1992년 전체 1,207,903명 중에서 한국 여성은 500,362명이고 대만은 366,160명, 필리핀 여성은 101,709명으로 필리핀 여성은 한국, 대만 여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가 이주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남성에 비해 4배 정도 많은 수이다. (Piquero Ballescas, 1996)

13) 지난 수십년간 전쟁의 성공과 외국 군인을 출현은 한국과 필리핀에 유사한 영향을 가져왔다. 한국전쟁동안 미군에 의한 거대한 매춘을 확립시켰고 정책적으로 관리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01년부터 미국 군대가 주둔해왔고, 1960년대 엄청난 수의 미군이 베트남으로부터 이동해왔다. 1976년 미군의 수는 감소되었지만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군대 매춘지역(기지촌)은 새로운 성산업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섹스 관광은 더욱 증가하였다. 필리핀에 찾아오는 25만 명의 일본 관광객 중에서 84%가 남성이었고, 독일 관광객 3만 명중에서 72%가 남성이었다(Wendy Lee, 1991).

매춘업에 등록되어 있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필리핀의 다른 관광지역으로 밀매되었고, 다른 나라-특히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 주변의 성산업으로 알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필리핀과 미국 정부는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통해 필리핀의 22개 항구를 미군에게 개방하였는데, 이는 수빅만(Subic Bay)의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던 미군기지를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전 지역이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대 매춘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4. 결론

국가간의 여성매매는 성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초국적 자본주의에 의한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해외 이주노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국사회에 외국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것 역시 이러한 체계와 맞물려 있으며, 외국 노동력이 가지는 저임금의 매력이 성산업에서도 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 노동력의 수입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들은 제조업의 단순직 외국 노동력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문제 역시 단순직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 때문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 여성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내 매매춘 논의에서도 국가간 여성매매의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매춘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성매매, 성상품화가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 환경의 '세계화' 시스템 속에서 여성의 성이 노동력 또는 국가간의 거래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여성매매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노동계약과 엔터테이너 비자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이주노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여성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여성의 성과, 여성의 성착취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국가간의 관계와 제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 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곤과 실업이 지속될 때 여성매매는 더 이상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여성들에게 해외 이주노동이 주는 경제적인 유혹은 폭력이나 억압을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성매매가 합법적이고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선택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여성의 성적 착취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와 인종간의 권력 관계가 투영되어 이로 인한 차별과 억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여성들간의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국가간의 여성매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여성의 성을 요구하는 남성 수요의 존재와 외국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적 장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간의 경계와 인종간의 배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종이 다른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성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특별한 섹슈얼리티로 상품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광고에서 포르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산업의 방식들이 다른 인종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남성 수요는 특별하게 성애화된 여성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인종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은 국제화의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성산업에 의해 구성되며 국가간의 여성매매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 세미나는 국가간 여성매매의 문제를 필리핀 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으로 수입되어진 구조와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착취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한 외국여성이 불평등한 대우와 경제적인 착취를 경험한다는 것이 필리핀 여성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여성이 성적으로 타자화되는데 이용되는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여성의 성이 수입, 이용,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 내에 외국여성의 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외국여성에 대한 성적 타자화를 통해 이득을 얻

는 주체와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문제는 국가간의 여성매매의 문제 속에서 인식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매매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여전히 한국여성이 외국의 성산업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외국여성의 성이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가간의 여성매매, 국제적인 여성매매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으며, 교차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 : 이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 재학중인 백재희씨의 석사학위 논문인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8개국 성매매 경로 연구 <한국의 사례 - 러시아 여성의 매매춘>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199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약 50만 명의 여성들이 매매되었고 이중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유럽 연합으로 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NGO EPCAT(International Campaign to End Child prostitution in Asia Tourism)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연방국 출신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국외로 이동되고 있음을 관찰했다. 지금 매춘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성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모스크바 등에 중심을 둔 여성 매매 조직은 일본, 한국, 태국까지, 서쪽으로는 서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경로는 즉 러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가장 큰 이동 원인은 출생 국가에서의 기회 부족 즉,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특히 동유럽, 러시아의 경제적 붕괴는 여성들을 실업으로 내몰았고, 이들로 하여금 해외로 나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겼다. 또한 교육의 부재와 매매춘 현실에 대한 정보 부재가 국경을 넘는 매매춘이 지속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구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 중 다수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한국과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유입되어 소위 '보따리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여성을 쉽게 만나게 되는 곳은 도매 시장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 곳곳에 퍼져 춤을 추거나 술을 접대하고 매춘을 하는 룸립이나 술집 등이다.

국내에서 현재 매매춘에 종사하는 러시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의 일부 보고서는 러시아 및 구 소련 연방국가와 동유럽 등 체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여성들이 국내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말미암아 해외로 매매

춘을 위해 배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1998년 신문을 통해 보도된 자료와 이 사건을 다룬 검찰청의 공소장, SBS '제3취재본부'의 프로그램(1999년 4월 6일 방영),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1. 매매춘 러시아 여성의 실태

지난 1999년 2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 여성의 수는 2천 5백명으로 집계 되었는데 이중 상당수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출신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지방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 여성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의 상황

엘레나는 가라오케에서 춤추며 2차를 나가 돈을 버는 호스테스로 일한다. 한 달에 약 1,000~1,200불을 벌었고 이 돈의 일부를 매달 러시아에 있는 할머니, 동생, 아들에게 송금했다고 밝히고 있다. 엘레나는 특정 업소나 매니저에 소속되지 않고 비규적 자유롭게 매매춘을 해왔으나 유흥업소 일대를 돌며 돈을 갈취하는 카레이스키가 찾아와 스스로를 러시아 마피아라고 주장하며 매달 1천 달러씩 상납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러시아 여성들은 대게 매니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고,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카레이스키들과 동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러시아 여성이 일하는 유흥업소는 클럽, 술집이 밀집한 이태원 등을 포함해서 주택가까지 퍼져있다. 특히 이태원에 가면 러시아 여성들이 있다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은 대개 한 업소에서 한 달 이상 일하지 않는다. 클럽에 설치된 무대에는 두 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15분에서 30분씩 교대로 춤을 추며 다른 러시아 여성들

은 주로 홀이나 룸에서 술시중을 든다. 러시아 여성을 룸으로 불렀을 경우 팁은 7만원선. 춤을 추는 러시아 여성들은 모두 번호표를 달고 있다. 춤추는 것을 보고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러시아 여성은 홀이나 룸에서 일이 끝난 후 승합차에 타고 숙소로 가거나 2차를 나간다. 2차는 대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이어지는데 2차 비용은 팁과 별도로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이다. 술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2차를 나간다. 항상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중인 차를 타고 간다. 공공연하고 체계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엘리나는 21살이고 러시아에서 레스토랑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두 달 동안 다섯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일했다고 한다. 엘리나는 지방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탈리는 25세로 지난 2월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그녀는 서울 형사기동대가 이태원의 한 유흥가를 단속했을 때 불법체류로 잡혀 외국인 보호소에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한국에 놀러 왔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놀러 온 것이며 그저 한국이 좋아서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친구와 함께 왔으나 친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면회자에 대해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여성들은 각각의 매니저에 소속되어 있어 매니저가 업소에 데려다 준다. 보통은 월급제로 한 달에 1,000~1,500불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2차를 나가 매춘을 하게되면 하루에 450~500불을 받는다. 그러나 2차 비용은 모두 매니저가 갖고 러시아 여성의 몫은 팁 뿐이다. 매니저들은 곧 포주와 동일한데 러시아 여성들이 벌어온 화대를 업소 주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챙긴다. 업소는 단지 손님과 러시아 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장소에 불과한 셈이다. 매니저들은 유흥가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하면서 철저히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다. 서로 다른 매니저의 구역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 매니저들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러시아 여성들이 매니저에게 여권을 빼앗긴 상태다. 단속 결과 매니저는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망이며, 각 업소마다 러시아 여성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곳이 있었다.

러시아 여성들은 매니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폭력 행위도 감수하고 있었다. 일단 한국에 오면 여성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매니저 없이는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철저히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업소 주인은 매니저들의 허락 없이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할 수 없다. 즉, 유흥업소는 단지 이 여성들을 남성들과 연결해주는 장소에 불과하다.

러시아 여성들은 불법 체류라고 하는 불안한 신분과 매니저들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강제 추방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 작년 민원 건수의 70% 이상이 러시아 여성들의 폭력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건이었다.

3. 유입 경로

러시아 여성들은 어떤 경로로 유입되는가? 대부분 두 단계를 거친다. 현지에서 러시아 한인(카레이스키)이나 한국과 연결된 러시아인이 모집책을 맡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여성들은 관광 비자나 약혼 비자와 함께 한국의 매니저들에게 넘겨진다. 현지에서 신문, 텔레비전 등에 광고를 내서,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한다. 일단 지원자가 모이면 수요에 맞게 선발하여 한국의 매니저에 넘기게 된다.

대부분의 러시아 여성들이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며 일하는 것과 달리, 외국 연예인 알선 기획사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공연자와 공연 내용을 문서로 받고 심의만 해서 허가를 내준다. 한국 기획사가 초청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4. 외국 매매춘 여성의 유입과 법체계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매매춘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러시아 여성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한다.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시키며 매춘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조직에 대한 정보도 없고, 불법 체류 러시아 여성에 대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연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더라도 공연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법에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입국 후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법적 제재를 가할 권리도 없다. 결과적으로 공연 비자로 유흥업소 접대부를 데려오게 되는 셈이다.

1999년 5월 9일부터는 공연비자 발급에 대한 규정이 더욱 완화돼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만 있으면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도 외국인 여성을 데려올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는 6개월 공연 비자를 원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5. 글을 마치며

외국 여성의 매매춘이 가능하게 된 시기는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허용된 이후로 보인다. 외국 노동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나서, 이러한 현상이 매매춘 산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러시아 여성들이 매매춘을 위해 한국에 유입되는 동기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매니저의 폭력이 존재하고 한국 생활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직업도 없고 일을 구해도 월 50불 정도의 임금에 그것도 몇 개월씩 체불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여성은 낯선 주위 환경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고, 국내 경찰들도 외국 여성들에게는 동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나 업주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쉽다는 측면이 있다. 매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고 이를 재생산하는 구조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러시아 여성의 매춘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7월 공개 세미나

주 제 : 매매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관 련 자 료

1.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 시각들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 앨리슨 재거
   : 이경아, 김정란 (이화여대 여성학과) 번역

2. 매매춘과 남성지배 (Prostitution and Male Supremacy)
   : 안드레아 드워킨 (Andrea Dworkin)
   : 민가영 (매해연) 번역 / 정리

3. 페미니스트들은 매매춘에 반대해야 하는가?
   (Should Feminists Oppose Prostitution?)
   : Laurie Shr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 시각들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앨리슨 재거 지음
이경아, 김정란 (이화여대 여성학과) 옮김

이 강연은 매매춘에 대한 지난 25년 간의 서구 여성주의 담론의 발달을 추적하면서, 문제들을 두 가지 주요한 현대적 대안들과 함께 가려보고, 이 논쟁에 관련되는 몇몇 개념적, 도덕적, 정치적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맺기로 하겠다.

1. 19세기 서구 여성주의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150여년동안 매매춘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전형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물론 여성주의자들은 매매춘을 승인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특징적으로 매매춘을 여성의 종속과 연결짓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비판은 인습적인 비난과는 구별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매매춘에 대한 비여성주의적 비판들은 전형적으로 성적 활동에 관한 어떤 도덕적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성관계는 잘못이거나 죄악이고 성은 사랑과 애정의 맥락에서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 성적 활동을 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고 소외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일부 비여성주의적 비판가들은 성 자체가 더럽고 구역질나는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인습적 서구 견해는 매매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매춘여성을 비난해왔으며 종종 그녀를 죄스럽고 품위를 잃었으며 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녀가

때로는 낭만적 소설에서 "소중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매춘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정상적인" 성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없이 착취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서구 사회들에서 "Whore" "Tart" 같은 욕설의 사용이 정당화되었다.

반대로 여성주의자들은 종종 매춘여성들을,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강제에 의해 매매춘으로 강요된 남성 탐욕의 희생자들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거나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1차 대전 이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연설들에서, 엠마 골드만은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적 태도를, 많이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어느 곳에서도 여성은 그녀의 일의 공헌에 따라 대우되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거의 필연적으로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적 호감과 연결되는 위치를 보유함으로써 존재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그녀가 결혼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신을 한 남자에게 파느냐 여러 남자에게 파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개혁가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하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열등성이 매매춘에 대해 책임이 있다."

2. 1970년대 매매춘에 대한 논쟁들

매매춘에 대한 전통적 비난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비여성주의자들과 여성주의자들 모두에 의해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피임약의 출현에 의해 영향받은, 좀 더 허용적인 성적 태도를 향한 더 넓은 문화적 운동의 부분이었다. 매매춘은 이 당시에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이었으며 또한 매매춘 호객행위와 비도덕적 수입에 기생하는데 대한 금지는 업주들과 핌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매춘은 최근에 영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 일부에서 탈범죄화 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적인 직업으로 법에 의해 인정되고 규제되어 왔다.

1970년대 매매춘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쟁은 그것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하도록 나를 자극하였다. 나는 1975년에 "매매춘" 이라는 논문을 써서 미국철학협회에서 발표하였고 1980년에 그것을 출판하였다. 그 논문에서 나는 매매춘에 대한 세 가지 여성주의 견해를 구분하였다. 그것은 자유주의 여성주의, 마르크스적 여성주의, 그리고 급진적 여성주의이다.

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이는 1963년에 동성애 공격과 매매춘에 관한 Wolfenden Report에 의해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시민 자유연맹(ACLU)에 의해 미국에서 표현되었다. ACLU는 매매춘에 관한 법적 금지가 개인의 자기 몸에 관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춘을 "희생자 없는 범죄"로 이름 붙였다. 이러한 분석을 따라서 자유주의 여성론자들을 포함한 자유주의자의 권고는 매매춘이 탈범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매매춘이 법적으로 규제된다면 그 규제는 남성과 매춘여성을 구별하지 않도록 성중립적인 언어로 쓰여져야 하며 이성애적 성교 뿐만 아닌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여성론적 태도의 정신은 매매춘이 단지 또 하나의 직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가격에서의 깨끗한 거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내 논문에서 그려진 매매춘에 대한 두 번째 여성주의적 접근이었다. 자유주의 여성론처럼 마르크스주의는 매춘을 임노동에 비유했지만, 이번에는 그 유사점이 매매춘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임노동을 비정당화하는 것에 있었다. 매춘여성은 노동자였고 노동자는 매춘부였다. "자본은 우리 모두를 쥐어짠다."

다. 급진적 여성주의

그 일차적인 관심이 여성이나 젠더에 있지 않았던 정치적 전통으로부터 파생된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여성론과는 달리, 급진적 여성주의는 그 일차적 관심이 여성과 젠더인 현대의 정치적 전통이다. 그러므로 매매춘에 접근하면서 급진적 여성주의는 단지 하나의 직업일 뿐이라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성중립적인 분석들을 거부하고, 매매춘이 본질적으로 성별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Evelina Giobbe에 의해 한 마디로 표현되었다. "매매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여성의 조건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매매춘과 같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서구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으며 종종 여성주의 정통으로 간주된다. 서구 급진적 여성론의 핵심은 여성들이 비자발적으로 매매춘에 들어간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몇가지 방식으로 주장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급진적 여성주의에서는 매매춘을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종류의 강제 그 자체는 매매춘을 다른 유형의 "임금 노예"로부터 구분짓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매매춘에 여성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성차별에 기인하는 여성의 다른 직업 기회의 제한의 결과로 보여질 때 여성주의적이 된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또한 매춘여성들을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남성 핌프들과 알선업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본다. 노예화와 착취가 성중립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매매춘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남성지배의 서구적 규범들로 분석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적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 규범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내면화되었고, 그에 따라 남성들은 그들이 여성의 성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여성들은 종종 이를 받아들인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또한 서구에서 매춘여성들이, 아이들이 어린이 포르노그리피나 근친강간에서 처럼, 보통 여성주의자들은 이 여성들이 매매춘 같은 일로 신체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대신에 그들은 성적 서비스가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유

일한 일이라고 배워왔다. 이는 성적, 신체적 학대가 소녀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녀들은 소년보다는 적어도 두 배는 더 성적 학대를 겪기 때문에 성별화된 주장이다. 이는 다시 소년들과 남성들뿐만 아니라 소녀들과 여성들에 의해 전형적으로 내면화된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의 결과이다. 그 규범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규범은 또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성애화한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로 규정되는 것을 당하지 않았던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소녀들이 매매춘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적인 성별 사회화는 소녀들을 "성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남성에게 성적으로 봉사하고 즐거움을 주도록 훈련하는 형식을 띄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서구 여성들의 매춘여성이 되고자 하는 결정은 사실상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외적" 사회적 요인들과 "내적" 심리학적 요인들 모두에 의해 제약된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매매춘이 모든 여성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해를 입는 사람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매춘여성 자신들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물론 남성들의 일도 때로는 위험하지만, 매춘여성들이 당면하는 위험은 우연적이라기 보다는 고의적이고, 여성에 대한 증오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성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매춘여성들이 해악과 질병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직업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취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매춘여성들이 항상 사회적으로 낙인찍힌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성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적 이중 기준은 남성은 여성을 "가지고" 여성은 남성에 의해 "가져진다" 는 성적 활동에 대한 영어 단어에도 반영되어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매매춘 제도가 일차적으로 남성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남성의 성은 순전히 신체적인 충

동이고 남성의 성적 소외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럽다는 문화적 믿음을 조장하는데, 이 믿음은 성적 공격과 강간을 정상화하고 합법화한다. 결국 매매춘의 존재와 "창녀"로 이름 붙여질 수 있다는 위협은 모든 여성들의 이성애적 활동을 통제하는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급진적 여성주의의 매매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특수한 공공 정책적 권고가 뒤따른다. 간단히 말해서, 급진적 여성주의들은 매춘여성이 희생자이며 그녀에게 강요된 것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매매춘이 탈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위해서는 비도덕적인 수입에 기생하는 것을 막는 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매매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성의 지위를 올리고 성에 대한 공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3. 1980년대 : 매춘여성들의 권력와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매매춘에 대한 나의 논문이 나온 이래로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적 담론은 매춘여성 자신들의 논쟁내로의 진입으로 인해 상당히 변화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참가자들은 성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했으며, 매매춘을 명백히 여성주의적인 조건에서 방어하고자 하였다. 몇몇 매춘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단순하게 자유주의적 여성론의 한가지 판으로 보이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매매춘은 반드시 그것이 윤색되는 만큼 나쁘지는 않으며 다른 많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들보다 확실히 더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 매매춘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춘여성을 성적 개척자로, 매춘을 일종의 정치적 저항으로 그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여성주의자들로 기술되었다. 나는 매매춘에 대한 더 약한 옹호를 스케치한 뒤 더 강한, 소위 말하는 포스트모던적 정당화로 옮겨가겠다.

매매춘이 여성이 놓여있는 다른 많은 상황들보다 낫다는 주장은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매춘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매매춘이 짧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보수를 주며 작업 환경에 대한 상당한 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직업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매춘여성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고객에게 제공할지를 결정한다고 대가를 지불 받는다고 주장한다. 여성에게 열려진 다른 많은 유형의 지불 노동보다 더 좋은 거래일 뿐만 아니라 매춘여성이 아내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기 때문에 매춘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통해 매춘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춘여성들의 행위 주체성을 주장한다. 매매춘이 공적인 침해이고 사회적인 방해라는 비난에 대응하여 그들은 여성의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가 그들에게 호객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업상의 선전과 여성들의 남성 호객 행위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 - 달리 말하면 성희롱이라고 알려진 것 - 보다는 훨씬 덜 위협적이다. 그들은 또한 남성만큼이나 여성들도 배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고용 기회의 제한된 범위를 인정하지만, 그들이 그 안으로 강제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부 서구 매춘여성들은 희생보다는 세력화(Empowerment), 그리고 착취보다는 기업가 정신의 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일부 매춘여성들은 매매춘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일종의 비판단적 맥락에서의 성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매춘여성이 진정으로 남성들에게 귀기울이며 고객들의 필요에 민감하다고 주장한다. 한 매춘여성은 여성들도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가져야만 하며, 따라서 매매춘이 결국은 특별히 성별화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Shannon Bell은, 이러한 종류의 주장들을 통해서 매춘여성들이 기존 가치들을 변화시키고 매매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매춘여성은 질병의 생산자라기 보다는 치료사로, 상업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교육자로, 일탈자라기 보다는 성전문가로, 상업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여성 사업가로 구성된다.(Bell 1994:100)

여태까지 낙인찍히거나, 주도적인 여성주의 담론에서 배제되어온 매춘여성들이 이제 단순한 담론의 객체가 아니라 그 주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벨

에게는 포스트모던함의 표출로 보인다(Bell 1994:100).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매춘여성의 권리 담론은, 주도적인 여성주의적 자유주의의 권리 담론을 전유함으로써 그리고 이 권리의 요구들을 집단적 정체성의 정치학의 맥락에서 명확히 함에 의해서, 자유주의의 틀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위반한다. 정체성의 정치학은 경험과 존엄성, 역사적으로 주변화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같은 (추상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관례적인 자유주의적 구성을 넘어선다." (100)

벨은 매춘여성들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시민으로 인정될 권리에 대한 공적 요구를, 차이에도 불구한 평등의 요구가 아니라, 매춘여성이라는 명백한 차이에 기초한 평등의 요구로서 분석한다. 그녀는 법적 권리와 평등에 대한 이 명백한 자유주의적 요구의 표면 바로 밑에는 "이중 위반의 윤리적 제스처 : 상업적 성을 비상업적 성 만큼이나 정당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과 가치들에 대한 재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Bell 1994:101)

매춘여성의 권리 담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매매춘의 반-헤게모니적 측면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협소하기 짝이 없는 소위 "정치의 올바른" 반-성적(Anti-sexual) 가치들을 깎아 내리고, 적극적인 "프로-섹스(Pro-sex)"의 정치적 진술을 만드는 것으로 매매춘을 해석한다. 예컨대, 매매춘은 혼외 성관계,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적 새로움과 다양성을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주장한다고 말해진다. 그것은 또한 여성들이 한 명의 파트너만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 매춘여성 대표자인, 매춘여성 권리 조직인 COYOTE (Call Off Tired Old Ethics)의 Margot St. James는 "매춘여성들은 유일한 해방된 여성들"이라고 주장한다.

Shannon Bell은 매춘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평등을 점점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의 부분으로 동일시한다. 이 투쟁의 한 측면은 매매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

자들이 매매춘을 일로 개념화하고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그것은(학대적이고 착취적인 형태의) 성적 활동으로 개념화하는 반면에, 매춘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매매춘을 성과 일의 가운데 있는 활동으로 그려낸다. 비록 매매춘의 일로서의 측면에 대한 강조가 정부 정책과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지만, '매춘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 위원회(ICPR)'는 성 판매를, 성관계를 거부하고 주도할 수 있는 권리, (낙태를 포함한)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레즈비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성과 계급을 초월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들과 연결된 "성적 자기결정"의 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Bell 1004:110)

벨은 매춘여성들에 의한 공공 퍼포먼스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을 "여성의 몸에 대한 신성한 축제 이론가들"로 특징짓는다. 그녀의 주장은 스트립쇼 무희인 Amber Cook같은 다른 이들의, 성적 엔터테이너는 무엇이 에로틱한지를 규정하고 그들 자신의 성을 표현하며 때로는 그 일의 창조성과 힘을 주는 성격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술가라는 주장과 연결된다. 벨의 책의 한 장은 여섯 명의 북아메리카 매춘여성 퍼포먼스 예술가들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들이 같은 여성의 몸에서 신성한 것과 음란한 것을 재통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다. (Bell 1994: 137) 벨의 해석에서 이 공연자들은 "그들 자신을 퍼포먼스라는 매개를 통해 저항의 살아있는 구현체로 재구성함으로써, 이탈한 몸, 성적 이방인과 사회적 이탈자의 몸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하며 재주장한다."고 한다. (Bell 1994:139)

"매매춘 퍼포먼스는 특수한 여성적 몸, 지배적 담론과 여성주의 담론이 음란한 타자로 표시했던 몸을, 이 몸의 위치에서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이 몸만이거나, 일차적으로 이 몸인 것이 아니다. 그녀는 동시에 많은 것이다. 예술가 / 배우이고, 에로틱 / 성적인 존재이고, 지적이고 / 비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 사회적인 논평가이다." (Bell 1994:142)

그리하여, "부분적으로 매매춘 퍼포먼스 예술은 이미 결정된 범주화들에 맞추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매매춘 예술가들은 그들의 몸을 '가부장제가 분해시켰던 것'을 재통합시키려는 저항의 장소로 사용한다." 매춘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매춘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매춘을 금지하려는 어떠한 제안들에도 저항한다. 그들은 이 제안들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음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승객이나 운전사들이 때때로 공격받는다는 이유로 지하철이나 택시를 밤에 폐쇄해야 한다고는 아무도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들은 매춘여성들이 때때로 공격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여성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실 대부분의 구타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매춘여성들이 참아내는 폭력의 대부분이 직업의 낮은 지위와 불법성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매춘여성 권리 분석에 따르면 매매춘의 주요문제는 그 일의 성격이 아니라 매춘여성들의 사업 실행을 방해하고 그것을 차별하는 법에 있어. 예컨대 선전을 금지하는 법률들은,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들이 여성을 희롱할 남성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은 채로 매춘여성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리로 매춘여성들을 몰아낸다. 업주들을 단속하는 법률들은 업주들이 매춘여성들을 갈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핌프들을 단속하는 법률들은 업주들이 매춘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에게서 가정적 유대를 빼앗는다. 여성들을 매춘부로 이름 붙이는 것은 그들로부터 많은 시민적 권리들은 강탈한다. 그런 여성들은 자기 아이들에 대한 후견권을 잃고, 만약 그들이 이민자들일 경우에는 쫓겨나며, 다른 고용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매매춘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며, 관광자로서든 이주자로서든 다른 나라로의 진입이 거부된다. 만약 매춘여성들이 참아낸 폭력이 일차적으로 그들 직업의 낮은 지위와 그에 대한 법적 제한들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면, 따라서 그들이 성차별로 보는 것에 의한 것이라면, 정책적 해결은 명확하다. 매매춘은 직업화됨으로써 존경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직업들처럼 고상하고 명예로운 직업이 되어야 한다.

4. 매매춘에 대한 급진적, 자유주의적, 포스트모던적 여성주의의 설명의 문제점

동유럽에서 공산권의 몰락과 서구에서 맑시즘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 담론은 두 개의 이원론적 설명 - 급진적 여성주의와 자

유주의적 /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 로 양극화되었다. 각각은 매춘여성에 대한 서로 상반된 상을 제시한다. 한편에서 매춘여성은 무기력한 성적 희생자로, 다른 한편에서 그들은 힘있는 성적 주체로 그려진다. 그들은 한편으로 가치절하된 성적 대상물로, 다른 한편으로 신성한 기술의 실행가로 그려진다. 매춘은 돌보고 생명을 주는 성적 서비스로 그려지는 한편, 매우 위험하고 생명력 없는 거래로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이 두 가지 설명이 모두 문제가 있으며, 너무 단순할 뿐 아니라 여성주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섹스(Pro-sex)" 포스트모던적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고려할 때 매우 편협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분석은 카리브해나 동남아 지역의 만연된 섹스관광에 대한 전적으로 무지하다. 이러한 설명은 거대하고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소녀의 국제적, 전세계적 거래를 언급하지 못한다. 1995년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감시 국제보고서 (Human Rights Watch Global Report on Women's Human Rights)'는 버마에서 타일랜드로, 네팔에서 인디아로,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으로의 여성 거래에 대해 - 물론 이러한 나라들만이 거래에 개입된 나라는 아니지만 - 강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는 노예 제도와 같은 관행과 불법적 감금, 강제노동, 부채, 고문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1949년 인신매매 억제와 매매춘 착취 등에 관한 회의가 인신매매를 처음으로 밝혀낸 이래, 이러한 거래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금지조치와 협정에도 불구하고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는 많은 국가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강요된 거래와 강제된 매매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이러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기소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1995:199) 경찰과 지방정부 관리들은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대가로 그들은 그들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폐해를 모른척한다.

그들은 거래자들, 매음굴 소유자, 포주, 손님들을 체포로부터 보호하고 강요자, 운전기사, 모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여성이 국경 부근에서 붙잡힌다면 이민국 관리는 그녀의 여행을 사주하곤 한다. (Human Rights Watch)는 에이즈 감염 검사를 받은 19명의 버마 여성과 소녀 중에서 14명이 양성인

것을 발견했다.(225) 만약 매춘여성들이 손님에 의해 직접 감염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피임약을 주사한 주사바늘을 통해 감염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프로섹스" 여성주의자들은 핑크빛 거품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분석이 서구의 맥락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랑자나 마약 사용자, 도망자 등 실제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국외자들을 낭만화하는 의심스러운 서구적 전통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매춘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Prostitutes' Rights, ICPR)'는 서구의 매매춘이 인종차별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상호교차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춘여성의 10~20%에 이르는 거리의 여성 중에서 40%가 유색인종이고, 체포된 여성의 55%가 유색인종이며, 감옥에 있는 매춘여성의 85%가 유색인종이다." (Bell 1995:111) ICPR은 "매매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종속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벨(Bell)이 지적하는 것처럼 매춘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담론은 성별과 계급, 인종불평 등을 만들어 내는 서구 매매춘의 사회적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 (1995:111) 이러한 시각의 한계는 시장을 매춘여성들이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경제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다.

매매춘에 대한 "프로-섹스" 여성주의자들의 분석은 'WHISPER(Women Harmed in System of Prostitution Engaged in Revolt)'의 여성 목소리와 같은, 다른 서구 매춘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WHISPER는 "여성의 몸을 성적인 거래를 위해 상품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125).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체계"이고 따라서 모든 매춘여성은 구타당한 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WHISPER가 제시하는 서구 매춘여성들조차 겪는 피해에 대한 상기가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은 다른 여성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적 / 자발적 매매춘의 구분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진적 여성주의가 매매춘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부정에 반대하여 매

춘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직업을 선택했다는 매춘여성들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사실상 매춘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강제되고 세뇌되었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태도가 무례하고 온정주의적이며 생색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모든 우리의 선택이 무의식적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면 왜 매춘여성의 결정만이 무효화되어야 하는가? 매춘여성의 권리옹호자들은 사실상 여성이 남성을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마치 매춘여성들이 남성 포주에 의해 통제되는 것인양 주장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무례하고 온정주의적이며 생색내는 태도라고 주장한다.

'캐나다 매춘여성 조직(Canadian Organization of Prostitutes)'는 포주 행위에 대한 불법화가 매춘여성들로부터 친밀한 상대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매춘여성들을 대신해서 일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매춘여성의 목소리를 무효화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이 지배적인 사회에 의해 실행되는 주변화와 배제를 반복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많은 매춘여성들은 매매춘에 대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분석을 일차원적이고 독단적이며 모욕적인 것으로 여긴다.

5. 가능한 정책적 대안들

강요된 매매춘은 분명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거래를 반대하는 다양한 국제적 조치가 취해져서 강제적인 매매춘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백만의 여성들이 잡히고 강제구금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국가가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것처럼 도망친 매춘여성을 위한 피난처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피난처는 처벌도 있어서는 안되고 여성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거기에 들어가거나 혹은 남아있도록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피난처는 고등학교 중퇴자나 도망자, 혹은 마약 사용자 등의 집단에게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활과 견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단의 일부는 매춘여성 집단과 중첩된다.

장기 정책 목표는 역시 분명하다. 여성에게 가능한 삶의 선택 구조는, 더 적은 교육기회와 비대칭적인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여성의 고용기회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강제를 제거함으로써 변형되어야 한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화적 태도는 성의 이중 기준과 지배, 종속의 낭만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비판적인 사회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매매춘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적 문제는 변화하는 상황, 특히 매춘여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일을 방어하는 것과 연관된다. 각각의 주요한 정책적 대안은 이와 연관해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해왔다. 예컨대 매매춘 금지는 여전히 매매춘에 개입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그들로부터 삶을 빼앗고 혹은 그들을 더 사기를 당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거나 포주에게 더욱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호객행위, 포주행위, 숨겨주기 등에 대한 금지는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춘여성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들로부터 말하고 교제하는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 매매춘을 탈범죄화하는 것은 매매춘에 대한 국가의 묵인이나 수용을 함의하지 않더라도 매춘여성을 사기와 범죄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매춘계약은 실시되어야 하고 그들의 근로조건을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매매춘을 법제화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춘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여타의 일처럼 만들고 지위를 상승시킴으로서 매매춘을 합법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성산업을 묵인하고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의 근거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한 번 매춘여성이었던 여성을 영원히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다.

6. 결 론

다양한 종류의 매매춘 관행과 상이한 상황에서의 정책적 선택의 더 바람직한 결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 경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작업에 필요한, 여성주의자들에게 수용될만한 조건은 매춘여성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적으로 그러나 비판적으로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듣기는 연구자가

매춘여성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춘여성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을 가능한한 최상의 상태로 제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떤 매춘여성이 그들의 일의 부정적이고 비속한 측면을 감춤으로써 이를 마치 자발적이고 품위있는 것으로 합리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어떤 매춘여성은 그들을 무력한 희생자로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매춘에 대한 연구는 매춘여성들의 말을 낭만화해서도, 무시해서도 안된다. 매매춘에 대한 단 하나의 분석이 모든 경우를 설명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도 안된다.

다양한 정책적 선택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매매춘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무지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만 전적으로 경험적 조사에 의존해서도 안된다. 매매춘에 대한 고찰이 개념적 윤리적 질문의 다양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작업이 철학자에게 남아있다. 특정 맥락에서 성적 대상화가 무해할 수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일(Sex work)'이 본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다른 종류의 일과 다른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질문은 섹슈얼리티와 연관된다. 다른 질문은 개별적 자율성과 자유에 연관된다. 선택이 늘 특정한 사회맥락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지점에서 사회적 강제는 위협적인 것이 되는가?

말하는 이가 실수하거나 자기 기만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억압적이면서 동시에 해방적 측면을 지닌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질문은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종속 사이의 연결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성적 활동 속에서 젠더는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가? 어떠한 결정이 사적인 것이고, 어떠한 결정이 정치적인 것인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여성의 종속에 협력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매매춘과 남성지배

(Prostitution and Male Supremacy)

안드레아 드워킨 (Andrea Dworkin)
번역 및 정리 : 민가영 (매혜연)

이 글은 1992년 미시간 로우 스쿨의 The Michigan Journal of Gender and Law 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Prostitution : From Academia To Activism"이라는 심포지움에서 안드레아 드워킨에 의해 발표된 연설문을 요약 발제한 것입니다.(http://www.co.igc.org/Womensnet/Dworkin/MichLawJournall.html)

이 글은 매매춘에 관한 아카데미 내의 토론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의해 씌어진 글이다. 이론과 실천이라는 주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다소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드워킨의 이 글은 아카데미 내에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하고있는 작업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해 준다. 여성학의 이론은 이론 그 자체의 논리성이 아닌 현실의 정치적 실천과의 연관하에서 그 질적 수준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학문의 장에서 연구하는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하는 작업들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잊은 채, 수업을 위한 수업을,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를, 토론을 위한 토론에 열을 올린다. 더군다나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전략의 방향은 실천의 장에 있는 사람에 의해 마련되어야하고,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의 역할이란 현실에 대한 보다 세밀

한 통찰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정당화해 내기도 한다. 이 글은 현실 변혁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 정치학을 바탕으로 이론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내의 지식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해주는 글이라 생각된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카데믹한 체계 내에서 매매춘에 관해 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로 어렵다.

아카데미의 가정은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삶의 실체에 관해 거의 상상하지 않는다. 아카데미의 삶은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있다는 개념 위에 전제된다. 만일 당신이 매매춘에 종사한다면 당신은 내일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매우 긴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다른 전제들을 화해시킬 수 없다. 나는 학문으로부터 나오는 페미니즘의 전제 - 우리는 여기서 모든 부분들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페미니즘 - 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매매춘은 남성이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매매춘 :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성이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는 돈을 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한다. 우리가 토론해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당신은 매매춘이 아닌 아이디어들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매매춘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남성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의 남성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의 남성에 의해 페니스, 때로는 손이나 다른 물체에 의해 관통된 입이고 질이다. 그것이

매매춘의 실제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부탁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된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부탁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 반복될 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느끼기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매춘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매매춘이 본질적으로 학대적이라고 생각한다. 매매춘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학대이다. 매매춘은 매우 간단하다. 만일 당신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안전해 질 것이다. 당신이 더욱 행복해 지고자 한다면 당신은 매매춘이라는 이슈에 대해 더욱 많은 토론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춘 안에서는 어떤 여성도 안전하지 않다.

돈의 마법과 같은 기능은 젠더화되어있다. 돈을 가지고 남성들은 인간의 성을 사고 시민적, 사회적 의식과 양심과 사회로부터, 그리고 법의 보호와 시민권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권리라는 개념으로부터 그것의 중요성을 지워버린다. 단지 엿같은 50$로 어떤 남성이든지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가난은 매매춘으로의 유입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가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난은 여성들의 깊은 늪을 창조해 내는데는 불충분하다. 여성들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팔릴 수 있는 상품화 되어버린 그녀의 섹슈얼리티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에게 있어 유일하게 가치있는 것이다. 그녀의 육체는 누군가가 사기를 원하는 유일한 것이 된다.

다음과 같은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 만일 그녀가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그녀는 성을 팔 것이다. 그 가정은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깊은 늪을 볼 수가 없다. 그녀들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학대의 희생자-특별히 근친강간-이며 그들은 집이 없는 상태에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매춘의 조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에 대해 얘기

하고 싶다. 알만한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매춘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춘여성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실이고 그것은 은폐되어왔다. 그것은 정치적 이유를 위해 은폐되어왔다. :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의 꼭대기에 있는 남성 지배체계를 파멸시키는 방식을 아는 것에 좀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더럽다고 여겨진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것을 하나의 메타포로써 경험한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더러운 여성의 실체를 살아간다. 거기에는 어떠한 메타포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춘 여성들은 더러움 안에서 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녀들은 전염되어있다.

그녀는 그녀가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그녀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간주된다.

한 남자가 가버린 뒤에 또 다른 남자, 그 뒤에 또 다른 남자,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왔다가 가기 때문에 여성들은 질병에 전염된다. 예를 들어 에이즈에 관한 토론 안에서 매춘하는 여성들은 감염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매춘하는 여성들은 섹스와 남성과 여성과 관련하여 나쁘고, 무언가 잘못된 모든 것의 일반적인 원천으로 취급된다. 그녀는 그녀가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그녀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간주된다.

그녀는 '웃고 있는 질구멍'으로 인식된다. 그녀의 입은 정액받이이다. 그것이 그녀가 인식되고 취급받는 방식이다. 모든 여성들은 그녀의 생리혈로 인해서 더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피를 흘린다. 그녀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남성들이 매매춘에서 여성을 이용할 때 그들은 여성 육체에 대한 순수한 혐오를 표시한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녀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당신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녀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중에서 많은 이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매춘 여성들에게 있어 이것은 매일 매일의 일상적 삶의 경험이다.

매매춘이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은 그 밑바닥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위에 서있다.

남성은 서로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매매춘과 집단강간 안에서 여성들의 육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남성성을 위한 도구가 되고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말할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타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모든 여성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어떤 종류의 대상과 같이 다뤄진다.

사회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그래서 남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갖는다. 사회들은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 되어 있지만 여전히 매춘여성들의 인구를 창조해 낸다. 남성지배는 사회가 남성들이 꼭대기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에 의해 매매춘의 늪을 형성한다. 매매춘이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은 그 밑바닥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위에 서있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매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서 이익을 본다.

우리는 이 사회의 권력을 사용하면서 매매춘에 이용된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매매춘을 낭만화하는 남성들의 역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남성 지배는 파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남성 지배는 단지 개혁되거나, 좀더 멋있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을 가난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홈리스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소녀들을 강간하게 하는 남성들의 역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권력-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을 사용하면서 매매춘에 이용된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매매춘을 낭만화하는 남성들의 역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항하는 공격을 찬양하고 지지하고 선동하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창조해 내고, 여성에 대한 증오를 창조해 내는 남성들의 역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성들이 매매춘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방식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지배하는 방식의 부분인 모든 제도를 파괴하고 약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라. 당신이 질문해야하는 것은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해야되는 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어느 것 한가지를 행하라.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남성 지배의 적으로 만들기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매매춘이라는, 여성에 대항하는 그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매매춘이라는 범죄가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당신은 여성 학대자나, 또는 저항군, 혁명가들과 함께 서있을 수 있다. 당신은 남성이 매춘을 행하는 여성과도 함께 서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용감하다면 당신은 그들-남성과 매춘여성-사이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로 가려면 당신을 거쳐야만 하도록 할 수 있다. 자, 이것들은 선택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의 선택을 하기를 부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매매춘에 반대해야 하는가?

(Should Feminists Oppose Prostitution?)

Laurie Shr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1. 서 론

매매춘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려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여성을 착취하는 기둥서방과 포주들은 잘 처벌하지 않으면서 매춘여성을 괴롭히고 범죄시하는 법을 철폐하기 바란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이라는 일이 도덕적·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 이 관점으로는 돈을 받기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성적으로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해지기 때문에 낮은 지위를 감수한다.

이 글에서 내 관점은 여성의 사회적 종속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상품화된 성을 반대해야 하다는 것이다. 내 목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산업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도덕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매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간문화적, 통시적인 인과 메커니즘을 택하거나, 보편적 의미나 목적을 가지는 "Sex"로 가정하는 상업적 성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반대로 나는 현대 미국사회에서 매매춘을 조직하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믿음과 규칙들의 측면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성을 분석하겠다. 나는 우리 사회의 다른 제도들처럼 성산업이 여성을 억압하는 뿌리깊은 태도와 가치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 분

석의 포인트는 상업적 성을 평등하게 재구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을 통해 매매춘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다. 대신 나는 다른 정치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들을 정당화하는 널리 퍼져있는 신념을 뒤집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찍부터 우리가 공격해 왔던 문화적 신념-과 같은 매매춘은 없다는 것이다.

2. 왜 매매춘이 문제시되는가?

매매춘에 관한 최근의 글들은 매매춘이 가장 오래된 직업들 중 하나라는 관찰에서 시작한다. 그런 '관찰'은 '매매춘'이 유일한 통시적이고 간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나는 매매춘을 현대 서구사회에서 일어나는,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짓는다. 나는 "자신을 판다"는 도덕적 개념의 특성과 범위를 연구하는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매매춘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매매춘으로 간주하는 특수한 활동을 조사하고 싶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매춘여성'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상업적 기초를 가진 성을 공급하는 사람과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기부하는 사람 모두를 뜻한다. 이런 범위는 아마도 겹칠 것이며, 그들의 한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덕적, 사회적 규칙들에 따라 부수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매춘여성'이라는 용어를 '상업적인 성적 서비스의 제공자'로 간단히 표현하고, 그에 상당하여 '매매춘'은 '상업적 성'과 교체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구어와 일치되어 나타나기를 바라고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여성"이 남자일수도 여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매매춘에 대한 많은 분석들은 다음 이슈를 해결하려는 목표가 있다. : 자신을 팔도록 하는 것-비인간적이고 상업적인 성적 거래에 참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설명들은 매매춘이라는 명백한 자발적 행위 뒤에 있는 깊은 심리학적 동기를 찾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매춘여성을 자연적이 아니라 사회

적인 탈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설명이 요구된다. 더구나 성에 대해 요금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매춘여성조차) 불합리하고 불쾌하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춘여성이 매춘을 왜 하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이런 의문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왜 여성이 다양한 선택들 중에서 매춘을 선택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은 여성의 선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어떤 여성은 주부나 기술자가 되지 않고 성적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더라도, 왜 이런 서비스가 요구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왜 여성은 아이보기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쉽게 부자가 될 수 없는가? 개인이 특수한 시장에 들어가는 이유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강제력과 유혹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유형의 상품을 위한 더 큰 시장이 왜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매매춘에 접근하는 이론가들은 매춘여성을 문제시하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남성에게 상업적 성을 사도록 하는 심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힘 또는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팔도록 하는 요인을 설명하지 않겠다. 대신 나는 우선 전체 문화적 맥락에서 매매춘이 가치가 낮고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Sexuality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겠다. 나는 Sexuality의 상업적 이용이 생각할 수 있거나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아닐지라도 이런 행위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을 주변화시키는데 봉사하는 규칙들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데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맥락에서 매춘을 다루기 때문에, 매매춘이 유해한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함으로써 성을 파는 여성과 우리 사회의 전체 여성 양쪽 모두에 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역사적, 간문화적 관점들

Gerda Lerner는 바빌론의 사원 매매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풍요로움(fertility)을 자신의 생존과 신에 대한 봉사를 위해 신성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원 매춘여성라는 특수계층이 발전하였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남신과 여신을 위한 성적 활동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신성한 일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Emma Goldman에 따르면, "바빌론 사람들은 인간의 생식활동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촉진하는 신비롭고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성에 대한 비인격적 항목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촉진시킨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Jacques Rossiand에 따르면, 15세기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성이 현재 미국에서의 역할과는 반대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 **30살까지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사회에 재통합될 진짜 기회를 가졌다... 일반적인 견해는 매춘여성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이 사제나 법 집행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인이나 아내의 위치가 되기가 어렵지 않았다. 많은 도시 시민들에게 공창은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부분적 보상을 의미하였다. 많은 미혼 남성들이 매춘여성에게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시당국의 지역 자선재단은 회개하는 매춘여성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지참금을 주어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겠다는 자비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혼은 대부분 매춘여성들에게 경력의 종착역이 되었다.**

매춘여성이 중세 프랑스 사회에서 남자들이 아내로 바라고 결혼에 적당하다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성의 상업적 교환을 지속시키는 문화적 규칙들이 우리의 성산업을 형성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춘이라는 현상에는 15세기 프랑스와는 다른 정치적 분석과 도덕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정당화된다. 왜냐면 상업적인 성적 거래에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과 다른 사회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매우 다른 두 가지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특정한 행위-매

매춘-를 같은 관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의 간문화적인 예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류학자들은 Etoro라는 뉴기니아의 한 부족을 연구했는데, 마치 우리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자기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하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은 어린 남자아이가 어른 남성으로 발전하기 위해 남성의 분비액이나 정액을 빨아야 한다고 믿는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이 '젖먹이기'라는 관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Etoro의 믿음은 어린 남자아이가 나이 많은 남자-종종 친척-에게 펠라티오를 하는 관습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Etoro의 관습은 근친상간, 어린이와의 성관계, 동성애라는 아주 비난받을 행동이다. 그러나 이 행동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인류학자들에게 있어서 Etoro의 관습을 "아이 기르기"라기 보다는 "Sex"라는 범주 하에서 추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자민족 중심주의의 반영이다. 중요한 점은 "Sex"처럼 문화적 틀과 분리되어 도덕적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관습이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간문화적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적 관행의 형태가 인간의 성적 관행을 결정하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도덕적 절대성을 반영한다고 믿을 이유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대신 그런 연구들은 우리가 "Sex"라고 규정짓는 활동-비인격적이건 아니건 간에-이 다른 배경을 가진 세계 도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Etoro의 "아이 기르기" 관습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페니스 빨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우리는 Sex의 원칙에 의해 직업을 만드는 것이 중세 프랑스나 고대 바빌론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그것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에서 매매춘이 억압적이 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4. 매매춘의 사회적 의미

간단한 유추에서 시작해 보자.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나 개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터부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사람이 고양이나 개고기를 먹는 비관습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 사람의 행위의 도덕적·정치적 특성에 대한 가치평가는 개나 고양이를 먹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또는 소, 돼지, 닭을 먹는 것과 "실제로" 다른지 아닌지와 다소 관련된다. 관련되는 것은 자신의 식사에 개나 고양이 고기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분개하게 하므로,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널리 수용되고 이해되느냐-잘못 이해되거나, 겉으로만 이해되거나, 비이성적으로 이해되거나 하더라도-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데에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들이 어떤 "객관적 실재"에 반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실재"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비전통적 행위가 틀렸다고 논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외적 행동이 수용되는 문화적 관습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 매매춘과 관련해 잘못된 것은 아주 견고한 사회적 관습-여성의 순결에 대한 이상과 성의 비상품화-가 아니라 매매춘에 다른 문화적 가정들-합리적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믿음들-을 집약하는 것이다. 반대로 레즈비언의 성과 평등한 이성애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다. 요약하면 여성 매매춘은 매매춘에 참가하는 몇몇 여성이 사회의 눈에 의해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조직화된 관행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모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믿음들을 영속화하고 증명해 주기 때문에 여성을 억압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매매춘 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신념과 가치들-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행위와 사회적 관습의 명백한 규칙들-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감정적으로는 약화된, 강력한 성적 지향을 자연적으로-사회적으로는 억압되더라도- 가진다고 믿는다. 둘째, 우리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적 역할에 자연적으로 적

합하다고 가정한다. 셋째, 우리는 사실상 모든 맥락에서 남성 생식기와의 접촉이 여성에게 해를 입히고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넷째,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적 관습이 그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동성애자" "양성애자" "매춘여성" "처녀" "변태" 등등-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한다. 나는 이 네 가지 가정을 간단히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 그런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논할 것이다.

잠재적 성충동의 보편적 소유

쇼펜하우어가 성적 끌림의 특성을 묘사한 것을 보면 :

> ***성적 충동은 소설에서 무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삶에 대한 사랑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동기임을 보여주며, 인간의 미성숙한 부분의 사상과 권력의 절반이라고 주장되며, 거의 모든 인간의 노력의 궁극적 목표이며, 대부분의 심각한 일을 중단시키며 .....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혼돈시키며, 뒤집으려는 불길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프로이드는 물론, 이 강력하고 자연적인 본능을 "리비도"라고 부르면서 유아기 때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잠재적 '성충동'이라는 가정은 Lars Ericsson의 매매춘을 옹호하는 비교적 최근의 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가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갈망만큼 본능적인 Sex와 Sexuality를 원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우리는 만약 성교를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면 언제나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한다는 점에서 매매춘으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사는 것은 언제나 나쁘지 않다." 더구나 그는 '성충동'은 상업적 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비경제적이고 자연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충동의 비이성적 특성 때문에, 모든 인간에 대한 성적 접근이 당연하게 될 때까지 매매춘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릭슨은 개인이 다른 사람

에게 성적 접근을 할 수 없으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사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여성의 좌절은 없겠지만 돈을 위한 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결과적으로 에릭슨은 자연적 인간이 원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되지 않은 성산업을 옹호하고 있다. Pateman은 에릭슨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결정된 Sexuality의 자본주의적 상품화로 보지는 않지만, 그녀는 "성적 충동이 인간의 자연적 특성의 일부"라는 가정에 굴복하였다.

쇼펜하우어, 프로이드, 에릭슨, 페트만 등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Sexuality의 특성을 "문화적 공통성"으로 간주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반대로 Doni라는 뉴기니아 부족을 기술한 Karl Heider는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성적으로 절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낮은 수준의 Sexuality는 순수한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남성의 "자연스러운" 지배

우리 사회 성산업의 분명한 특징은 거의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비교적 적은 수의 매춘남성들조차 대부분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한다. 이러한 성별분업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남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성향(자연적 성향)을 갖는다는 문화 원리이다.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문화적 신념은 여성주의자들의 매매춘에 대한 설명(특히 비개인적이고 상업적인 성에 대한 남성들의 요구의 사회적, 심리학적 원인에 대한 설명)에도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다.(예:맑시스트 여성주의) 그러나 맑시스트 여성주의 분석은 왜 여성이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즉 왜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를 일으켰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생산과 재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을 종속시키든지 아니면 정치적 평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시장 이익을 만들지 못했는가?

Gale Rubin은 구조주의 인류학의 통찰을 적용함으로써 매매춘에 대한 사

회적, 역사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경제적 매매춘은 재생산 양식(출산과 양육에서의 성별분업)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기원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사회에서 이러한 체제가 Levi-Strauss가 '여성들의 교환'이라고 명명한 것에 의해 작동하였다. 이러한 교환은 "교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신뢰, 연대, 상호협조의 관계를 부여하는.....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거나 확고히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 교환의 참여자가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얻어지는 사회적 권리나 특권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여성의 성의 상품화는 이러한 최초의 "여성 인신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간단히 말해서 루빈의 설명은 재생산에서의 최초의 남성 지배를 통해 생산에서의 남성 지배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왜 여성이 최초의 교환대상이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남성이 모든 사회 체제 안에서 자연적으로 지배 역할을 담당한다는 원리에 의존하는데서,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의 기본전제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였다. 나의 견해로는 그러한 원리들은 보편적 인과 기제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행들을 합리화하는 임의적이고 문화적으로 결정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적 접촉이 여성을 타락시킨다

성행위의 역사는 여성들의 종류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된 부정적 마크이다. 성경험이 가치있게 평가되기보다는 여성들의 '순결'이 높이 평가되었다. 남성과의 성교가 여성에게 해롭다는 것은 이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비속어에 함의되어 있다. Robert Baker는 woman is 'fucked', 'screwed', 'banged', 'had', 그리고 이것을 그녀에게 하는 것은('pick')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교를 의미하는 메타포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서 Andrea Dworkin의 묘사에서 "삽입thrusting은 영원한 침입이다. 그녀는 열려있고, 가운데가 찢어져있다. 그녀는 정복당하였다-신체적으로, 내적으로."라고 표현되었다. Dworkin은

이성애 관계의 묘사에서 신체적 학대와 제국주의적 지배의 이미지를 드러내었다. 그녀는 이러한 언어가 메타포이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Ann Garry에 따르면 "우리 문화에서는 성을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해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성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해를 입는 대상의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을 성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여성을 온전한 인간이하로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screwing', 'penetration', 'invasion'의 공공 매개물로서 매춘여성은 동물이나 사물의 지위로 하락된다.

성적 관습의 규정

매매춘의 사회적 의미를 결정하는 또 다른 신념은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의 성행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성(gender)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성교를 갖는 여성을 특정한 형태의 존재-예컨대 "헤픈 여자", "slut", "prostitute"-라고 생각한다. 사회비평가들처럼, 성적으로 난잡하거나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들을 "해방된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덕의 이중 규범에 대한 반기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적 구습 타파가 도전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사람의 성적 행위가 그녀의 '"종류"를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이러한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매매춘의 의미를 구조화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상업적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용은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영속화하는 원리의 수용을 함의한다. 더욱이 여성들의 사회적 불평등과 성적 취약성의 통념을 착취하는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매춘여성과 고객의 행위는 그들이 사회에 만연한 일련의 가치와 신념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매춘여성과 그녀의 고객은 여성들이 가부장제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우리가 성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비난해서는 안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산업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관용에 함의되어 있는 사회적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적 성향과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접촉-특히 "안전한" 이성애적 관계의 맥락 밖에 있는 성접촉-이 여성에게 해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춘노동은 다른 직업의 노동과 다른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상업적 토대 위에서 성을 제공하는 여성과 그녀의 고객이 되는 남성은 내가 말하였던 사회적 원리들을 집약하고 강화한다. : 이 원리들은 남성들이 비개인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기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는 (성적 능력이 있고 정복적인) 성적 욕망에 기인하는 신념들을 포함한다. 더욱이 매춘여성들은 단순히 그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이유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바꿀 수 없다. 예를 들면 Margo St. James는 매춘여성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제공하는 숙련된 성적 치료사로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책은 그 행동이 매춘여성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매춘 행위가 그녀의 노동을 해롭게 만드는 문화적 원리들을 전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매춘여성들이 그녀의 행동의 의미가 그녀 자신의 특이한 신념과 가치에 따라 평가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매춘여성들의 서비스를 찾는 이유가 전문가로부터의 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맥락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적 접촉을 가질 때 모욕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맥락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업적 토대에서 성을 제공하는 사람은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특권을 누려야 한다. 매춘여성들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가상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현 상태 뒤집기

나의 포인트는 모든 비순응주의자들의 행동이 똑같이 관습적 도덕에 도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이 나쁘다는 신념을 전복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먹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매매춘에 참여함으로써 Gender와 Sexuality에 대한 태도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녀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전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상업적 성을 구조화하는 신념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매춘여성들은 성적 종속자가 아니라 성적으로 평등하거나 우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성적 전문가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녀 자신을 성적 치료사로서 위치짓고 싶다면, 그녀는 자신을 인간의 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특별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단지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치료사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산업이 개혁되어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무엇이 매춘여성의 노동을 진실한 "성적 치료사"의 노동으로부터 구분시킬 것인가? 만약 그녀의 지식이 준합법적으로만 인정된다면 그녀의 노동은 의사의 노동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개혁과 폐지의 정치적 대안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 만약 매매춘이 여성에게 억압적이지 않게 변형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매매춘은 아니다.

결혼에 대한 관용이 근본적으로 여성 종속의 통념에 근거한 것이라면, 매매춘에 적용되는 주장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보봐르와 엥겔스를 포함한 많은 이론가들이 매매춘처럼 결혼도 여성의 성적 종속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봐르에 따르면 "둘 다 성적 서비스이다. 한 명은 한 남자에 의해서 삶을 위해 고용되었고, 다른 한 명은 일한 분량에 따라 지불하는 몇몇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한 명은 한 남자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다. 다른 한 명은 모든 사람에 의해 각각의 학대로부터 방어된다." 덧

붙여서, Lars Ericsson은 매매춘과 다르게 결혼은 경제적 의존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혼은 여성의 종속을 포함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결혼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이 제도의 억압적 측면들에 도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고자 하는 남성의 비윤리적인 충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혼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이었지만, 이 관습을 합리화하는 핵심 요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다른 가치와 신념-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오랜 기간의 부모의 협력의 바람직함-들에 의해 합리화된다. 그러나 나는 성의 상업적 제공을 합리화하고 지금 있는 대로의 산업을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폐지하지 않을 유해하지 않은 원리를 생각할 수가 없다. 상업적 성은 결혼과 달리 개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이의 수용의 토대가 되는 신념과 가치들을 침식시켜야 한다.

6. 결 론

나의 분석이 옳다면, 매매춘은 사회적 탈선이거나 무질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관행들의 토대의 일부를 형성하는, 잘 확립된 신념과 가치들의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차별적 구조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여성주의자들은 매매춘을 유지하는 문화적 전제들에 도전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매춘은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신념과 관행들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는데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 특별한 사회적 치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성산업을 비판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상징적 여성주의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매매춘을 검토하면서, 나는 매매춘의 보편적 원인과 도덕적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질문들은 매매춘이 의미하는 보편적 현상이 있으며 상업적 성은 항상 사회적으로 일탈된 것이고 바

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대신 나는 현대 서구 문화에서의 상업적 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 주장이 매매춘의 비범죄화의 논의와 일치하지만, 나는 나의 고찰로부터 여성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매매춘에 반대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성산업을 유지하고 조직하는 원리들이 우리의 사회적 삶의 많은 영역에서 유해한 성별비대칭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집약하는 관행들을 용납하는 것은 여성에게 억압적이다.

(편집자주 : 이 자료집에 실린 글들은 저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제시와 문제 제기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신 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